



www.snuaa.org

서울대미주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17호 2012년 5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snuaausa@yahoo.com



“이제 우리 2세를 정계로 보내자!”

김진식 동문 장남 하원의원 출마 후원회 성황 미주 동창회를 비롯한 동포사회서 적극 나서

“이제는 우리의 2세를 본격적으로 정계에 보낼 때다!” 캘리포니아 김진식(공대 66) 동문의 장남으로 하원의원에 출마한 Justin Kim(김성섭)에 대한 기자회견이 지난 4월 18일 LA의 JJ Grand Hotel에서 열린 데 이어 29일에는 후원의 밤 행사가 ‘작가의 집’에서 열렸다. 18일 기자회견에서는 LA지역 각 동포 매스컴이 참여한 가운데 양민(공대 77) LA 공대 동창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밝은 미래제단의

홍명기 이사장을 비롯해 서치원(공대 69) 남가주 동창회장, 구철희(의대 78) 후원회 총무 등이 참석해 Justin Kim에 대한 소개와 그를 후원하는 찬조 연설을 해주었다. Justin Kim은 후보로서의 기존 연설 외에 각 매스컴 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Justin Kim은 “연방법무부와 연방의회 보좌관으로 일하며 정치의 필요성을 느끼고 출마했다.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한인 커뮤니티의 지원을 부탁했다. 또 29일 ‘작가의 집’에서 열린

‘후원의 밤’ 행사에는 예상울 훨씬 넘는 동문 가족들과 동포 인사들로 대성황을 이뤘다. 홍명기 이사장은 후원사에서 “지금으로부터 꼭 20년 전 오늘인 1992년 4.29 폭동 당시 그 약탈과 파괴의 현장에서 우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정계 인사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에 너무나 절망했다”며 “Justin Kim같은 젊은이가 이같은 용기를 내준데 대해 오히려 깊이 감사를 느낀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이어 “출장 중 비행기 옆자리 유태인이 ‘요즈음

←Justin Kim 후원 기자회견후 관계 인사들이 모였다. 왼쪽부터 양민 남가주 공대회장, 서치원 남가주 동창회장, Justin Kim과 부친 김진식 동문, 동창회보 조동준 편집위원, 김병연 IT개발위원장.

각 대학 수석 졸업자 중 한국인이 수두룩한데 너희를 대변해줄 수 있는 정계 인사는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회자 양민 남가주 공대회장은 “4.29폭동 당시 매스컴에도 우리 동포의 현상을 말해줄 인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면서 “지금 우리 동포사회가 이렇게 커진 만큼 이제는 우리 동포를 대변해 줄 정치인이 반드시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서치원 남가주 동창회장은 “동창 선배의 아들은 곧 내 아들인 동시에 우리의 아들”이라며 “우리의 아들이 연방의원이 되면 잃었던 우리의 권리를 찾고 후손들을 위해서도 큰 귀감이 되는 일이니 우리 모두가 십시일반의 힘을 모아 꼭 당선되도록 돕자”고 당부했다. 또 후원회 구철희(의대 78) 총무는 “역경의 우리 동포 이민 역

사가 50년을 넘으면서 경제적 지위는 상당히 높아졌으나 535명의 상하원의원 중 한인이 한 명도 없다”며 “이번에 출마한 Justin Kim은 그 지역 출마자 중 가장 뛰어난 자격과 경력을 갖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전력을 다해 의회 진출을 돕자”고 말했다. 인삿말에 나선 Justin Kim은 “시작하기 전에 4.29(폭동)에 대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LA의 4.29 폭동 때 불과 남쪽 60마일 떨어진 곳에서 12살 어린 나이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폭동이 혹시 우리 마을까지 번지지 않을까 두려움에 가득했던 어린 시절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는 그 폭동이 왜 우리 Korean-American 사회를 불태우고 쏘아 버려 많은 가족과 친구와 생활의 터전을 잃게 만들었는지 그 이유와 깊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 날 우리는 또다른 구석의 한 가운데서 똑같은 공권부재와 불평등의 이슈로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맞서 싸우고 도전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16면에 계속·편집주>

이달의 초대석

오계숙(15면)

My Journey to America 김미환(19면)

특집 <5.16 51주년> 5.16세력의 첫 방송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USC 교수 정재웅 동문

‘호암 의학상’ 수상자로 선정

암 세포 확산을 억제할 수 있는 신물질 발견으로 화제가 됐던 USC 의대 정재웅(52·사진) 교수가 2012년도 호암상 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재웅 박사는 인체에 침투한 바이러스와 면역체계간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바이러스의 면역체계 회피 기전과 암 유발 기능을 구명해 바이러스 종양학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웅 박사는 모교 농대를 졸업한 뒤 UC데이비스에서 대장

균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버드대 의대에서 조교수와 부교수를 거쳐 지난 2004년 하버드대 의대 최초의 한인 종신 교수가 됐다. 또한 지난 2007년 USC 의대 분자 미생물학 및 면역학 과장 겸 교수로 부임했다. 호암상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서울 서대문구 순화동에서 위치한 호암 아트홀에서 열리며 수상자는 26만 5천 달러의 상금과 부상으로 순금 메달을 받는다. ▶호암상=이건희 삼성 회장이 1990년 설립·제정한 상으로



학술, 예술 및 인류복지 증진에 공헌한 인사를 시상하기 위한 것이다. 시상 분야에 따라 과학상·공학

상·의학상·예술상·사회봉사상으로 나뉘며 이외 분야에 특출한 업적을 이룩한 인사에게 시상하는 특별상이 있다. 연간 후보자를 접수하나 매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후보자들이 차년도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대상이 된다. 현재 호암상 수상자의 국적은 불문하지만 한국계 인사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매년 6월 1일 서울의 호암아트홀에서 시상식이, 이어 신라호텔에서 축하연이 거행된다. 또한 시상식을 전후하여 전국의 주요 연구소·대학·고교 등에서 수상자들의 기념 강연이 펼쳐지고 있다.***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님들의 구독료(1년 75달러)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SNUAA.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90248



모교 총동창회 임광수 회장

제24대 총동창회장으로 재선임

“장학사업 확대·모교 발전 위한 지원 확대, 열정 다한 봉사” “더 명예로운 동창회가 될 수 있을 것 등 다짐”

모교의 총동창회(회장 임광수)는 지난 3월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각계 동문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4회 정기총회 겸 제14회 ‘서울대총동창회 관악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관악대상 수상자로 참여부문에 도화엔지니어링 권영필(토목공학 56-60)회장, 협력부문에 원일전선판매 정계영(상학 61-66)회장, 영광부문 한국은행 이성태(경영 64-68)교문, 해외부문에 미국 브라운대 김정석(기계공학 70-74)교수를 선정, 시상했다. 이어 동창회 회칙 제8조(임원의 선임)와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소집)에 따라 제24대 회장 선출이 이뤄졌다.

이날 임광수 회장의 임명에는 3~4명에 그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회칙에 따라 임광수 회장이 제24대 회장으로 재선출됐으며, 박영준·주성민 감사도 재선임됐다. 부회장단 구성은 임광수 회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임광수 회장은 수락인사에서 “그동안 동창회에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일을 잘 마무리하라는 동문님들의 임중환 당부의 말씀으로 알고 열정을 다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임광수 회장의 수락 인사 요지다. “117년 역사와 전통 속에서 모교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서울대인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동창회를 발전시키고, 모교를 지원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이 관심과 성원으로 동참하고 협력해 주신다면 총동창회는 더욱 더 명예로운 동창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대 미주 동창회보

←임광수 총동창회장이 제24대 총동창회장으로 연임된 뒤 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서울대 동창회보 이상기(서양사학 81-87 아시아 N 대표)는설위원은 “동창회와 모교와 후임들을 위해 임광수회장에게 이번까지 동창회장 겸 멘토로서 연임하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총회 의사 진행을 맡은 손일근 상임부회장은 “순기능적으로 정착된 관행은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미풍”이라고 진술했다. 그 다음 회장 선임의 관례와 전통에도 불구하고 몇몇 동문의 제안을 존중해 표결을 단행했으나 표결결과 연임 반대 기수는 3~4명에 그치고 참석자 전원의 찬성으로 회칙에 따라 임광수 회장이 제24대 회장으로 재선출됐으며, 박영준·주성민 감사도 재선임됐다. 부회장단 구성은 임광수 회장에 위임하기로 했다.

“117년 역사와 전통 속에서 모교 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서울대인은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동창회를 발전시키고, 모교를 지원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문 여러분들이 관심과 성원으로 동참하고 협력해 주신다면 총동창회는 더욱 더 명예로운 동창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세계은행 김용 총재 모교 법인설립준비위원으로 활동

“서울대의 변화 없이 한국, 선진국 유지 어려워”



다트머스대 총장이었던 김용(사진)세계은행 총재가 지난 해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모교는 지난 해 3월 학의위원 8명, 내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설립준비위원회는 12월까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작성, 최초의 이사 및 감사 선임, 법인 설립 등기 등의 업무를 완수했다.

김용 총재는 5월과 7월 각각 2차 회의, 3차 회의에서 화상회의로 참석해 법인 준비 과정 점검은 물론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서울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용 총재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 중 고등교육에 관한 철학이 최근 변화와 혁신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나라 고등교육 현실에 주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용 총재는 민간 주도의 대학 경쟁력 강화, 대학의 사회적 책무 수행, 잠재성 있는 인재육성 등을 강조했다. 김 총재는 “훌륭한 고등교육 기관이 되기 위한 기본은 대학의 제정이 정부 정책이나 연간 제공되는 정부연구금에 구애받지 않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의 장학금 기부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의 변화 없이 한국, 선진국 유지 어려워”라며 “다트머스대는 학생을 입학시키고자 할 때, 학생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총재는 인재 선발에 대해 “최고 성적 보유자는 아니더라도 가능성 있는 학생을 선발해야 하며, 평범한 배경의 학생이 서울대 교육을 통해 세계 리더가 될 사례가 많다”며 “가난하지만 가능성 있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입학제도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세상의 문제들과 씨름하는 인재육성하는 것이 다트머스대의 근본정신”이라며 “대학이 인류사회에 기여하는 인재 육성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또한 “가장 중요한 고등교육을 미국 등 다른 국가에서 조달해서는 안된다”며 “서울대의 변화 없이는 한국이 세계 선진국 위치를 유지하기 힘들다”면서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김용 총재는 고 김낙희(치대 51년 졸) 동문의 장남이다.***

한국문학 번역원 김성곤 원장

SUNY 올메의 ‘자랑스러운 동문인’

김성곤 한국문학 번역원장(사진·63·모교 영문과 교수)이 버펄로 뉴욕 주립대(SUNY)에서 수여하는 올메의 ‘자랑스러운 동문인(Distinguished Alumni Award)’으로 선정됐다. 한국문학 번역원에 따르면 김성곤 원장이 이 상을 받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날 김 원장 외에 13명이 이 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식은 지난 4월 13일 버펄로 캠퍼스에서 열렸으며 김성곤 원장은 시상식을 마치고 난 뒤 뉴욕 주립대에서 기념강연을 가졌다. 김성곤 원장은 지난 1982년 뉴욕 주립대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1984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월 7일에는 한국문학 번역원장으로 임명됐고 2010년 뉴욕 주립대의 ‘자랑스러운 풀브라이트 동문’ 상을 받은 바 있다.***



김성곤 한국문학 번역원장(사진·63·모교 영문과 교수)이 버펄로 뉴욕 주립대(SUNY)에서 수여하는 올메의 ‘자랑스러운 동문인(Distinguished Alumni Award)’으로 선정됐다. 한국문학 번역원에 따르면 김성곤 원장이 이 상을 받는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이날 김 원장 외에 13명이 이 상을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식은 지난 4월 13일 버펄로 캠퍼스에서 열렸으며 김성곤 원장은 시상식을 마치고 난 뒤 뉴욕 주립대에서 기념강연을 가졌다. 김성곤 원장은 지난 1982년 뉴욕 주립대에서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받고 지난 1984년부터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월 7일에는 한국문학 번역원장으로 임명됐고 2010년 뉴욕 주립대의 ‘자랑스러운 풀브라이트 동문’ 상을 받은 바 있다.***

모교 등록금 5% 인하, 장학금은 늘려

모교가 올해인 2012년 학부생 등록금을 5% 인하했다. 이 안하액은 국내 주요 사립대가 2% 안팎을 내린데 비하면 두 배가 넘게 낮은 것이다. 모교는 반면 장학금 수혜율을 46% 수준으로 끌어올려 실질 등록금은 10% 이상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립대학법인 출범 원년을 맞아 국민적인 이슈인 대학생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실천에 나선 것이다. 모교는 지난 2월 8일 제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심의안과 동일하게 학부 등록금 5% 인하, 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결정했다.

학생위원, 학내인사, 외부인사 각 3명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는 서울대가 지닌 사회적 책무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2년 등록금 책정안을 심의하였다. 모교는 이미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타 사립대에 비해 인하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시사만평 박준창(인문대 79·변호사)



- 3. 워싱턴DC 동창회 장학생 선발 Essay
- 4. 의대 91학번 신입생 때 쓴 '나의 20년 후' / 국민소득 6만달러 덴마크의 비결 / 모교병원 12년 연속 1차 위치
- 5. <인류학> 그들은 식인종이 아니었다 / 한 시감상 > 나 자신의 발은 서리처럼 하얗네
- 6. <범창일화> 참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쵸 / 베를레의 마들렌느 대성당
- 7. <시영역> Prayer from a certain Atheist / <동문 시 감상> 반범어리 반세기 노래
- 8-9. <기획특집> 아나운서 박중세 동문의 5.16회고담 "5.16 새벽의 첫 빙숨"
- 10-12. 동문 동정
- 13. <특집 암> 한국의 대기업 회장도 고작
- 4명 임원실, 이곳은 VIP실이란 없다 / 물고기는 가라앉고 달은 숨고
- 14. 까마귀 이야기
- 15. <이달의 초대석> 오계숙 동문
- 16. Justin Kim 후원회
- 17-18. 지역 동창회 소식
- 19. <My Journey to America> 준비된 사람만 이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
- 20. 동창회보를 읽고
- 21. 고국 동문 동정
- 22-23. 동창회비·후원회비 명목 / 미주 동창회 Alaska Cruise
- 24-29. 동문 업소록
- 30-32. 동창회 각 지부 회장단 명목 / 편집 후기 / 광고

차례

워싱턴 DC. 동창회에서는 얼마 전 2011-2012 회기년도 장학생 선발 행사를 진행했다. 오인환 미주 동창회 차기 회장은 지원 동문들의 원서와 함께 제출된

Essay중 2편을 선정해 미주 동창회보 편집실에 보내 왔다. 이지현(영문학 2000, Johns Hopkins Univ.에서 International Relations 박사과정중) 동문과

이정미(심리학 2001, George Washington Univ.에서 Cognitive Neuroscience 박사과정중) 동문의 글이다. 두 동문의 글을 게재한다.

‘Essay on the personal aspiration and future vision’

by Ji Hyun Lee

Observing the rise of China as well as the power struggle between the U.S. and China, I have a number of intriguing questions regarding system transformation in Northeast Asia: Given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as well as political tension between the U.S. and China, are they inevitable competitors or is a more cooperative future possible?

How would their relationship affect the stability of the region as well as that of the world?

How should South Korea cope with and adjust to the changing powers and roles of the two giants?

How would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influence and be influenced by such system transformation?

More interestingly, how would this system transformation affect the demand-supply conditions of the global energy market and the volatility of energy prices?

What would be the underlying mechanisms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se for policy makers?

These are the puzzles that I began to explore as an M.A. student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SNU).

As a citizen of South Korea, a small country geopolitically surrounded by great powers and threatened by North Korea, I have aimed to be a scholar and policy advisor who designs and implements effective and discerning foreign policies. At SNU, I devoted myself to studying theori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authored a paper theoretically analyzing the threat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its



impact on autonomy in the U.S.-ROK alliance.

Accordingly, I won the 25th National Thesis Competition on Unification awarded by the Minister of Unification, South Korea.

Further, after graduating from SNU summa cum laude, I was chosen as a recipient of the 2009 Fulbright Graduate Study Scholarship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ese accomplishments strengthened my desire to perform higher-level academic research abroad.

During the course of my academic experience at SNU, I realized that my research questions would be best answered through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especially between international econom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Hence I chose to pursue the Master's degree in International Relations at SAIS, Johns Hopkins University.

At SAIS, I acquired cutting-edge knowledge in international economics, having taken nine graduate level economics courses.

Concentrating on Energy, Resources and Environment at SAIS and interning at CSIS's Energy and National Security Program, I also accumulated in-depth knowledge regarding Northeast Asian countries' low carbon policies, renewable energy, investment in R&D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nd fiscal policies such as stimulus packages and Feed-in-Tariffs.

As for quantitative skills, two years of graduate coursework at SAIS and the ICPSR summer program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have provided me with a strong methodological foundation.

I have taken Statistical Methods for Business Economics and Econometrics at SAIS.

I also completed Introduction to Statistics and Data Analysis I and II, and Regression Analysis II: Linear Models at the University of Michigan funded by a Korean Social Science Data Center Scholarship.

I am now familiar with and competent in most standard statistical packages and programming.

In addition to my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training, I have been an active participant in academic conferences.

I have presented two papers at the Midwest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PSA) meeting in 2009('The Importance of Social Capital for Successful Transiti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Poland and Russia') and in 2010('The Libyan Model: Not applicabl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respectively.

I also served as a discussant in a session called 'Institutions and Policy in Contemporary China.'

As the only graduate student participant, I also presented a paper at the 2008 Annual Conference of the Social Capital Foundation, whose editorial board members consist of Pierre Bourdieu and Ronald F. Inglehart.

Through my learning ex-

“What are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human mind and behaviors?”

by Jeongmi Lee



“What are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human mind and behaviors?”

My incessant curiosity in this question made me study psychology as my major at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le encountering the latest theories and important perspectives in explaining human mind and behaviors, the linkage between brain and human cognitive functions has most intrigued me.

After graduating from college with summa cum laude, I continued my study on brain and cognition in Master's program. Exciting research experiences in graduate school and the Brain Imaging Cent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NUH-BIC) have fortified my decision and reason to continue my study on cognitive neuroscience.

I strongly felt that investigating the human mind and brain is worth dedicating my life's effort to, and as a result, aimed to pursue doctorate work on cognitive neuroscience.

My primary research interest has been centered on psychological and neural mechanisms underlying attentional selec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attention and reward modulation systems in the brain.

One of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our environment is that it is comprised of a multitude of sensory infor-

mation. Given such richness of input, humans are faced with the problem of having limited capacity for processing information, on the one hand, and the need to analyze as much of the sensory input as possible, on the other.

My research is concerned with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and neural mechanisms underlying attentional selection, and focuses on two general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concerns the representations from which selection occurs and this line of research focuses primarily on the behavioral and neural correlates of spatial and object-based selection as human observers analyze incoming information.

The second question concerns the computations involved in the selection process an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neural source of the attentional signal and the impact this signal exerts on the neural trace of the sensory stimulus before and after it has been attentionally selected.

I joined the attention

and cognition laboratory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in 2008, and have been conducting research with Dr. Shomstein on the neural pathways of attentional modulations and how they are related with those of reward-based modulations. My recent study on “reward-driven object-based attention in human visual cortex” showed that when the effects of object-based attention and reward schedule are directly compared in the same experimental setting, reward priority exclusively guides attention, suggesting that there is a single integrated saliency map that incorporates information from all the units of attention including reward.

An important goal of my doctorate study is to learn how to conduct a quality research in novice areas and to develop insight on issues that are capable of enriching knowledge on human mind and body. When I graduate and become an independent researcher with these knowledge and skills, I hope to continue the work at universities for further extensive studies. My previous research experiences have given me confidence and a solid foundation for pursuing my academic goal.

I sincerely hope that I could get an opportunity to maximize my potential academic strengths and abilities to become a competent researcher.***

periences at SAIS, I came to realize that I should further develop my analytic and quantitative skills in order to solve the aforementioned puzzles in a rigorous and systematic way.

Furthermore, rewarding experiences at major academic conferences made me realize the benefit of active intellectual interactions with colleagues.

So I applied to the doctoral program in General International Relations at SAIS, where now I learn from world-renowned professors and interact with excellent colleagues and high-level policy makers from all over the world.

Upon completing my Ph.D. education at SAIS, I intend to pursue a career in academia, creating and disseminating

invaluable knowledge to the field and helping practitioners acquire proper insights and tools for their decision-making.

In the long run, I hope to work as a policy advisor to governments, contributing to peaceful system transformation based on my academic expertise and professional experiences.***

의대 91학번들

신입생 때 쓴 '나의 20년 후'

20년 전 나의 꿈이 찾아왔다...
"어떻게 사세요" 첫사랑처럼 물었다. 그 감의, 그 교수님이 보낸 그 날의 원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 "하루 하루 일에만 매달려... 그랜 아련했고 행복했다" "그럭저럭 사는 내 모습... 컴퍼스 모습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왜 이리 변해 가는지" "소아과 꿈 대신 성형외과... 다들 잘난 체 하지만 여윌고 불쌍한 사람들" 고국의 한 언론이 게재한 '의대 91학번들이 신입생 때 쓴 사연들'을 전제한다. <편집자>

성균관대 의대 권중원(40) 교수는 이메일을 한 통 받았다. 20년 전 서울대 의대에 입학했을 때 국어를 가르친 은사가 보낸 메일이었다.

"이렇게 볼수록 편지를 받으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지요. 편지를 보내는 이유는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로 메일은 시작됐다. 첫부파일이 붙어 있었다. 신입생이던 1991년 국어 시간에 20년 후의 자신의 모습을 그린 1200자 원고지 스킴본이었다. 제목은 '나의 20년 후'.

"40세 어렸을 때부터 꿈꾸어 오던 중국에 있을 것이다. 서부 초원지대 복측을 하는 지역에서, 복측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의사로서 환자를 대할 것이다. 나의 일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아내, 내 뜻을 받아주신 부모님. 내가 세상에 왔다 갔을 때 세상에 도움이 됐다는 말을 듣고 싶다."

권 교수는 답장을 보냈다. "중국 의료선교사 허드슨 메일러의 전기를 읽고 선교사의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의사, 전문의가 되면서 제 관심과 시야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지금은 진료와 강의, 논문에 시달리고 하루 하루 주어진 일에만 매달리며 삽니다. 아내와 아파트 가격을 걱정하고, 아이들 학교 성적에 신경을 쓰며 살고 있습니다."

답장은 이렇게 끝을 맺었다. "지금은 소박하지만 또 다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제가 가졌던 꿈을 다른 누군가가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감사합



↑서울대 연구실에서 김성규 교수가 21년 전 의대 91학번 학생들에게 낸 과제를 펴두고 있다. 그는 "비록 20세 때 생각하고 다룬 길은 갔더라도, 현재 모습 어떤 가에는 당시 꿈꿨던 꿈이 스며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니다. 잠시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권 교수는 20년 전 꿈을 읽으면서 "아련했고, 그래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동국대 일산병원 소아과 김도현(40) 교수는 스펀 메일함에서 은사의 메일을 발견했다.

그는 "지루하게 일상을 살다가 첫사랑을 우연히 길에서 만난 느낌"이라고 답장에 썼다. 90년대 초반 대학생이 그랬듯, 또박또박 눌러쓴 그의 작문은 비장하게 시작된다.

"2011년 물질문명의 이면에는 경제적 불평등의 수레바퀴에 깔려 신음하는 민중이 있다. 나는 이들을 바다에 깔고 부르주아적 특권을 누려오지 않았는가. 마땅히 사회에 환원되어야 할 특권이 있었다. 나의 첫 개업장소는 조용한 농촌의 소도시다. 곱은 평화로운 분위기에 속은 삶을 대조하는 농촌의 논둑에서서 아픔을 나누다. 멀리서 한 남자가 달려

국민소득 6만달러 덴마크의 비결



민경훈(법대 78)
미주 한국일보 논설위원

덴마크는 면적 4만 3천 평방 km로 남한의 절반, 인구 550만 명으로 10분의 1에 불과한 소국이다.

그럼에도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연 6만 달러로 세계 5위다. 청정에너지 보급률 세계 1위, 빈부 격차 지수 세계 최저, 삶의 질을 재는 인적 개발 지수 세계 7위, 어느 모로 보나 선진국이다.

덴마크는 금융 기계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 청정에너지도 그렇고 낙농업도 마찬가지다. 최근 덴마크의 MD와 스웨덴의 알라가 합쳐 만든 알라 식품은 유럽 최대의 식품 회사다.

덴마크의 금융 시장은 유럽에서 가장 자유롭다. 실업률은 4.1%로 유럽 최저 수준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 복지국가'라고 하면 높은 세금과 후한 복지 혜택을 떠올리지만 그것이 전부인 아니다.

아무리 복지 혜택을 주고 싶어도 세금이 건히야 가능하고 세금을 걷고 싶어도 돈을 버는 기업이 있어야 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산업 없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돈을 퍼주면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는 것을 그리스는 분명히 보여주어 주고 있다.

한국처럼 천연 자원이라고 없는 덴마크의 번영은 전적으로 인력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인력 개발을 위해서 덴마크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덴마크의 거의 모든 교육은 무료다. 무료 정도가 아니라 학생이 있는 학부모에게 월 수백 달러의 지원금까지 준다.

이곳 학생들은 일류대에 가기 위해 유치원 시절부터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 않으며 자기가 원하는 직업학교에 가 필요한 기술을 익힌 후 거의 대부분 취직한다.

어차피 소수 밖에는 갈 수 없는 몇 개의 명문대를 가기 위해 국민이 무리한 과부자를 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가 없으면 취직을 아예 포기하고 불평분자로 남는 동양의 어느 나라와는 다르다.

유럽의 대표 복지국가라는 선입관과는 달리 노동 유연성이 큰 것도 이 나라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 중 하나다.

일마나 쉽게 직원을 채용하고 쉽게 내보낼 수 있으나 제는 이 지수가 크면 클수록 기업들은 직원 수를 늘리는 것을 주

저하지 않는다. 만약에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 언제든지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 하나를 내보내려면 은 노조가 시위를 하고 본인자 살까지 서슴지 않는 나라의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을 꺼리고, 설사 채용을 하더라도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덴마크인들은 또 강력한 자유 무역의자들이다. 국민의 78%가 세계화는 좋은 것이며 무역은 덴마크를 부강하게 한다고 믿고 있다. 이 또한 무역 덕에다. 인력 개발을 위해서 10대 경제 강국으로 뿔음에도 자유 무역을 잘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한국과는 다르다.

일부에서 '시행되던 농민들이 알거지가 돼 유랑 결식한다' '술사늑약을 맺치는 땅국적 대국'이라고 비난받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났다.

이 기간 대미 수출은 전년에 비해 27%가 증가하고 미국산 수입품의 도소매 가격 인하 효과는 각 7%와 6.3%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가 사라지면 수출은 늘고 수입가가 내리러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자유 무역 반대자들은 농업 부분 타격을 이유로 내걸지만 농업 분야도 얼마든지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전자 모든 분야에서 이미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던 일본을 제친 한국이다. 덴마크를 보라. 무엇이 두려운가. ***

<Acropolis Times>

모교병원 12년 연속 1위 차지

모교 병원(원장 정희원)이 지난 3월 13일 한국 능률협회 컨설팅이 발표한 '2012 제14차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K-BPI)' 조사 결과 1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가 시행



된 2001년부터 올해까지 10년 이상 연속 1위 브랜드에 수여되는 '골든 브랜드'의 명성을 이어감으로서 대표적인 장수 브랜드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했다.

이번 조사는 소비재·내구재·서비스업 등 전 산업군을 망라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서울과 6대 광역시 거주 만 15-60세 남녀 1만여 명을 대상으로 1대 1 개별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희원 원장은 "서울대 병원을 사랑해주시

는 국민 여러 분께 감사할 드린다"며 "지혜와 속도를 키 워 드로하는 혁신을 통해 더욱 차원높은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고 친절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사랑받는 병원, 글로벌 헬스 리더로 세계인의 건강에 기여하는 명품 의료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랜드 파워는 한국 능률협회 컨설팅이 국내 최초로 체계화한 브랜드 관리 모델에 의거해 지난 1999년 제1차 조사를 시행했으며 우리 나라 대표 평가 제도다. 서울대 병원도 모교가 의과대학생 수련 및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1978년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이나 너무 아름답겠지요, 국문과 앞 자하면 풍경이 눈에 선합니다. 자연은 그대로인데, 사람은 왜 이렇게 빨리 나이를 먹고 변해 가는지요."

"행동하는 의사회' 상근위원 임석영(40)씨도 은사의 메일을 받았다. 그의 작문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다.

"어느 자그마한 진찰실의 초라한 책상. 내 이름이 아로새겨진 명패 하나와 손에 쥔 청진기. 그리고 환자들이 나를 이어주는 밤색 문. 진실한 사회적 자아로서의 밤색 문을 여는 모습. 그것이 내 20년 후의 모습이라 생각된다."

그는 방황 끝에 10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고 군 복무를 마친 뒤 의료복지 NGO '행동하는 의사회'에 들어갔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대표도 맡았다. 그는 말했다.

"20년 전 글을 보면서 여러 단상이 들었지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제엔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새로운 20년 계획을 세우고, 외국에 나가 의료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서울 입구정동 삼성 라인성형외과 신현덕(40) 원장은 20년 전 '소아과 전문의'라는 현실적인 꿈을 적어냈다.

"매일 아이들과 대하다 보면 피곤하겠지. 하지만 소아과 의사는 인격을 대하지 단백질 덩어리를 대하는 건 아니니까. 내 환자들은 자기보다 30살 연상의 친구를 가지게 된다. 나는 나대로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를 가질 수 있

어 좋을 테고." 신 원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 대하는 일이 참 어렵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의사의 길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손재주를 믿고 성형외과를 택했어요. 그런데 상담 때문에 말을 더 많이 하고 있지요. 요즘 병원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매일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는 은사에게 보낸 답장을 이렇게 마무리했다.

"다들 잘난 체 하지만, 사실은 조금의 여유도 없는 불쌍한 사람 들입니다."

은사는 서울대 국어국문과 김성규(50) 교수다. 1991년 2학기 그의 국어 강의를 들은 서울대의대 91학번 33명에게 작문 원고지를 첨부해 작년 4월 6일 일제히 메일을 보냈다.

"꿈을 선물하기 위해서"였다. 그후 1년 동안 이메일을 통해 이들과 교류하고 있다. 일상을 견뎌던 중년들은 그렇게 잊고 살던 꿈과 마주쳤다.

20년 전 독립영화 감독을 꿈꾼 서울대 의대 김재원(40)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교수가 된 뒤 바쁜 생활에 치여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를 잊었던 것 같아요. 메일을 받은 뒤 영화 관련 글을 다시 쓰고 싶어했습니다."***

*동문 재현들이 기고해주시는 모든 글들은 본 동창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관악세대/Acro광장(인류학 킬링) 포레족과 쿠루병

“그들은 식인종이 아니었다”



이상희(인문대 85)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부교수

지난 번 ‘식인종은 어디에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읽고 반박성 질문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었다. 댓글로도 달렸다. “파푸아 뉴기니에 분명히 식인종이 있다. 그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은 식인 풍습 때문에 죽을 병에도 걸렸다고 하더라. 그럼 그건 뭐냐?”

▶**식인종 이야기 속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번에는 식인종 이야기 속편이다. 파푸아 뉴기니에 사는 포레족은 인류학과 의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부족이다. 1950년대에 포레족에서는 이상한 질병이 들었다. 호주에서 파견된 조사단은 ‘병에 걸린 여자 환자는 몸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일어설 수도 없게 된다. 집안에서 누워서 음식을 조금밖에 먹을 수 없으며 온 몸이 심하게 떨린다. 결국 사망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같은 보고서에 포레족이 식인종이라고도 기술하였다. 몸이 심하게 떨리기 때문에 ‘떨린다’는 뜻의 ‘쿠루’가 병명인데, 환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발작적인 웃음 때문에 ‘웃는 병’이라고도 불렸다.

↓파푸아 뉴기니에서 가이두섹 의료진이 진찰한 포레족 사람들



▶**웃는 병**= 병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3개월에서 2년 정도 생존하는데, 그 기간 동안 세 단계를 거쳐 병이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거동이 가능하지만 불안하며, 허가 풀리고, 몸이 떨린다. 2단계에서는 떨림이 심해져서 거동이 힘들며, 극심한 정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리면서도 가끔 발작적인 웃음을 멈추지 못한다. 3단계에서는 온 몸의 근육이 풀어지면서 거동이 불가능해지고, 언어와 배변 기능이 멈추고, 아무 것도 삼킬 수 없게 된다. 대개는 폐렴이나 욕창에 의한 감염으로 사망에 이른다.

▶**가이두섹 박사의 연구**= 윗 사진은 가이두섹의 논문 ‘기이한 바이러스와 쿠루의 기원 및 소멸’에 실린 파푸아 뉴기니의 지도다. 포레족의 지역은 ‘쿠루 지역’이라고 표시되고 있다. 쿠루를 연구하던 가이두섹은 포레족의 식인 풍습에 대해 읽고, 쿠루에 주로 걸리는 여자와 아이들은 죽은 사람의 뇌를 먹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쿠루의 원인은 마치 유전자처럼 행동하는 단백질인 프리온인데, 프리온의 존재는 의학계에서 의심은 했지만 실제로 존재한다는 발견은 쿠루 연구가 처음이다. 암 세포는 돌연변이로 유전자가 바뀐 상태로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암 세포를 만들어 내지만, 프리온은 주변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세포를 변형시킨다. 가이두섹 박사는 쿠루로 사망한 환자의 뇌조직을 침팬지에게 이식하는 실험을 했는데 2년 뒤에 침팬지에게서 쿠루

새 기획<한시(漢詩)감상> 이백의 '월여사기일' 나막신의 발은 서리처럼 하얗네



김동근(공대 60)

양자강(揚子江)을 떠돌던 이백은 한 눈에 들어온 장간리(長干里)에서의 모습을 월여사(越女詞) 오수 중(五首 中) 첫 수(首)에 담았습니다. 월여사기일(越女詞其一) 이백(李白) 長干吳女(장간오아녀) 眉目艷新月(미목염신월) 屐上足如霜(극상족여상) 不著鴛頭襪(불착아두말) 월 나라 여자 이야기 1 (장간의 오 나라 여자 아이 눈썹과 눈은 초승달 같이 아름답구나. 나막신을 신은 발은 서리처럼 하얗네. 아두말 버선도 신지 않았네) 신월(新月)을 성월(星月)혹은 성공(星空)으로 표기해 있는 문헌도 있습니다. 吳(吳):나라 오, 眉:눈썹 미, 艷:곱다 염, 屐:나막신 극, 著:신을 착, 나타날 저, 鴛:까마귀 아, 겹다 갈

와 똑같은 중세를 발견했다. ▶**광우병도 프리온이 원인**= 그 이후 프리온에 의한 병이 차례로 밝혀졌는데,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된 광우병 역시 프리온에 의한 병이다. 광우병은 소의 뇌를 사료로 먹인 소에서 생기는 병으로, 포레족의 쿠루와 흡사하다. 가이두섹은 프리온 발견을 계기로 1976년 노벨 의학상을 받았다. 소아 전염병 연구를 통해 큰 기여를 한 가이두섹은 아동 성폭력 혐의를 받고 망명 생활을 하는 등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포레족은 식인종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포레족의 식인 풍습**= 포레족은 과연 식인종이었을까? 포레족의 식인 풍습으로 알려진 행위는 그들의 장례 절차다.

↓야노마모족의 소녀



襪(襪, 袜):버선 말 장간(長干): 지금 중국(中國) 남경(南京) 교외(郊外)로 옛날에는 양자강 교역(交易)의 중심지(中心地)이었습니다. 중국 남쪽 여자들이 회고 예쁘다고 알려졌습니다. 두보(杜甫)의 시 ‘장유(壯遊)’에서 ‘원여천하백(越女天下白)’이라 했고, 이백(李白), 최경(崔顥), 장호(張湖), 최국오(崔國輔) 등의 ‘장간행(長干行)’이 있습니다. 나중에 소개하지요. 어떤 벽창(碧窗)호들, 아직도 오(吳)와 월(越)은 원수(怨讐)지간이라 믿는 사람들은 장간리(長干里)는 옛 월(越)나라 땅이니 오아녀(吳兒女)라고 한 것은 이백(李白)의 불찰(不察)이라고 Nitpicking하기도 합니다. 아녀(兒女):시집가지 않은 여자 아이, 몇 살쯤 되었을까요? 이백은 ‘장간행(長干行)’에서 十四爲君婦(십사위군부: 만 13세에 당신의 아내가 되었네요)라 했으니 13살 이하(以下)인가 생각됩니다. 미목(眉目): 얼굴 모습을 이르는 말. 눈썹과 눈이 얼굴 모습을 좌우한대서 이르는 말. 아두말(鴛頭襪): 옛날 버선의 일종인데, 정확한 모양은 몇 가지 형(說)이 있습니다. 버선 목이 여러 겹으로 접혀져 있는 것, 발가락이 따로 들어갈 수 있는 것, 검은 목 버선? 등.

이 시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단순한 글자 그대로의 뜻인가? 한 폭의 그림인 것은 틀림 없으나, 약간 미묘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필자는 집 사람과 여러 번 이 시를 음미하며 소일(消日)해보았습니다. 신월(新月) 대신 성월(星月)이라던 염(艷)자가 요염(妖艷)의 뜻을 내포하지 않나? 마치 많은 남성들이 온전 중 한 눈 파는 것처럼. 또 다른 논문에서 지적 하듯 정말 이백(李白)의 연족벽(戀足癖)이 아닐까? 오아녀(吳兒女)의 어리고 차가운 발은, 오(吳), 진(晉) 나라의 영화기(榮華期)가 지난 지 오래된 이 지역의 가난함(可憐)을 눈여겨 본 것인지? 나막신은 비 온 후 신는 신발이니, 젖은 땅을 피하기 위해 치마를 살짝 올린 청초(淸楚)한 아이의 모습?. 또 아니면 갈(鴛)자를 검은색으로 이해하면, US Open 때의 탁세리의 발처럼, Contrast 를 묘사(描寫)한 것일까요? 오아녀(吳兒女)는 우리 부부(夫婦)의 마음 속에 아련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상들이 시의 참다운 매력 아닐까요? 그러나 애뜻한 마음을 그런 것은 틀림 없습니다. 애뜻한 감정이 Compassion(仁)으로 승화돼 인간사회를 하나로 만드는 집착계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태백(李太白)은 가고, 소동파(蘇東坡)가 한 말도 모르니, 여러분의 견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도 전염된다. 죽은 사람을 손질하는 일을 맡은 여자들이 상처 난 손으로 일을 계속 할 경우 전염되는 것이다. 포레족은 왜 그런 끔찍한 장례를 치를까? 포레족은 죽은 사람을 먹으로써 죽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의 일부가 되어 죽기까지 살던 동네에서 죽은 후에도 계속 살게 된다고 믿는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아마존의 야노마모족은 죽은 사람을 화장해 그 재를 죽에 섞어 친척이자 이웃사촌인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 나눠 먹는다. 기독교에서 엄숙히 행해지는 성찬식에서는 예수가 빵을 뜯어서 자신의 몸이라고 믿고 먹기를 권하고, 포도주를 따라서 자신의 피라고 믿고 마시기를 권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를 기억하라”고 한다. ▶**생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은 아님= 포레족은 식생활의 일환으로 생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 아니다. 죽은 사람을 뜯어 먹는 식인 종비도 아니다. 포레족의 식인 풍습은 겉으로 나타나는 끔찍한 모습을 걷어내면 차라리 지극히 보편적인 인간의 갈망일 뿐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도 계속 함께 한다는 눈물겨운 믿음이다. 포레족이 식인종이라면 우리 모두 식인종이다.***

관악세대/Acro 광장(별창일화) < > 망은배의(忘恩背義)

“참말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쵸?”



박준창(인문대 79) 변호사

돈이 제법 많은 할머니가 이곳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었습니다.

집도, 상업용 건물도 물론 있었는데, 가난한 노인들에게 주는 생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집 소유는 아들 명의로 해 놓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의 수전노= 따라서 기록상으로는 아무 재산도 없는 가난한 노인이었지요. 그러면서 현금을 집에 숨겨 두고, 여윳돈을 빌려 주고 고리 이자를 받는 사채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남을 잘 이용할 줄 알지요. 집을 판다, 상가를 판다, 하며 부동산 브로커를 끌어 들여 온갖 자질구레한 심부름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브로커에게 또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돈을 갠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온갖 협박과 막달에 일부 갠지는 했지만 전부 다 갠지는 못했습니다.

아무리 악덕 사채업자라도 이런 경우 돈을 받아내는 방법은 법 뿐, 남은 돈을 받기 위하여 이 할머니가 드디어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 브로커는 방어 변호사로 저를 고용했고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날 밤, 이 친구의 집에 강도인자 도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어 거실로 나가

보았더니, 침입자가 서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합법중의 침입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침입자가 물건을 뒤질려고 그러지도 않는 것 같았으며, 그냥 서서 있다가 이 친구를 보더니 총을 꺼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쏘지는 않고 얼마간 겨냥만 하더니 그냥 나가버렸답니다. 이 친구는 물론 흔비 백산했지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는 금방 잡히는 데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할머니가 보낸 사람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나니 불안해서 전담 수가 없었습니다.

▶침입자에 겁먹고 합의= 다음 날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소송을 어떻게 해서든 종결짓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도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불안에 떠는 고객을 두고 더 이상의 소송 진행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상대방과 합의를 위한 모임을 가졌고 거의 할머니가 달라고 하는 수준에서 돈을 지불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나쁜 조건의 합의였는데 워낙 이 친구가 무서워 하며 빨리 소송을 종결짓고자 하였으므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송은 끝이 났고 1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상대방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가 했던 사건 기억하십니까? 합의 조건이 내게는 어떠했습니까? 나쁜 조건이었나, 좋은 조건이었나?”

이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내 고객에게는 나쁜 조건이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전노가 자기 변호사를 제소= 그랬더니 제게 하는 얘기가 ‘그 할머니가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해 왔다’ 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다 하지

못하고 실수를 해서 할머니가 충분히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밖에는 못 받게 했으니 내 변호사였던 당신이 보상해라’ 라고 하는 소송 말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변호사가 잘못된 게 없었습니다. 합의도 거의 할머니가 원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졌고, 소송 과정에서 그 변호사가 실수한 것도 없었으며, 특별히 많은 변호사 비용을 요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 잘못이라뇨?

어쨌든 그 사이 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진행되어 ‘재판이 다음 주인데 자신의 증인으로 나와 줄 수 있겠나’ 는 부탁을 했습니다.

▶내게 증인을 요청= 그 변호사가 잘못된 것이 없었기에 기꺼이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 변호사는 고마워 하며 “언제 점심 한 번 사겠다” 고 했습니다(증인에 대해 과도한 보상을 받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증인 매수라는 공격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일로 보상을 받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재판 당일 출석하여 변호사가 아닌 증인 자격으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 쪽 할머니는 물론 저의 출현에 적잖이 실망하였고 자신에게 더 불리한 증언만 나오겠다 싶었는지 할머니 쪽 상대방 변호사는 아예 반대 심문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은 끝났고 자신이 승소하였다’ 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라 “이길 것 같지 않았습니까?” 고, “고생했다” 고 위로했습니다.

▶물엿처럼 사람됨= 이처럼, 참 세상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이익만 앞세우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그래도 전문 직업인으로서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조금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돈을 받게 해 준 자신의 변호사에게 이렇게 ‘망은배의(忘恩背義)’ 일 수가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상은 더욱 각박

베즐레의 마들렌느 대성당<2>



이연행(문리 68)

그 뒷면에는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가 교회의 두 기둥으로 조각돼 있다.

이 문으로 들어가 중앙 주랑을 보면, 1140년 완성된 가장 아름다운 로마네스크 양식의 둥근 천정을 받치고 있는 분홍색 돌 기둥의 웅장하고 경건한 중세 예술의 진수다. 이 기둥들의 기둥머리에 조각된 수많은 조각들이 12 세기의 부르그뉴 조각가들의 최고 걸작이다.

<신비한 방앗간>을 비롯한 118개 기둥 조각들은 다섯 명의 대가들이 작업했다고 한다. 1086년부터 1185년까지는 원시 고딕 양식으로 새 성당 중앙부와 그곳을 횡단하는 주랑의 양 부분이 건축됐다. 지하 성당은 카롤리안 왕조 시절의 것이다.

1190년 7월에는 사자왕 리처드와 필립 오귀스트 왕이 제3차 십자군을 데리고 이곳에서 출정했다. 이 성당도 프랑스 대혁명 때(1790) 혁명군에게 팔려서, 성체실만 남고 성당을 지은 돌들은 건축 재료로, 길바닥의 포석으로 쓰여졌다.

그후 1840년부터 1876년에 걸쳐, 프랑스 최대의 건축가인 비올레 르 뒤크가 이 성당의 건축을 복원하고, ‘역사 문화재의 명단’에 넣어, 오늘날에 이른 다. 또 중앙 문 뒷면의 벽면 조각 <최후의 심판>은 조각가 빠스칼이 중세의 양식으로 이때에 제작한 것이다.

밖으로 나와 성당이 세워져 있는 언덕 위에서 성벽 아래로 내려다 보면, 그 지방의 산과 들, 나무들과 경작지들이 한 눈에 들어온다.

이 마을(베즐레)의 집들 역시 그 역사와 함께 중세부터 간직

돼 온 조각된 돌로 지은 집과 벽돌색 지붕으로 하여, 멀리서 보면 도시 전체가 언덕 위에 펼쳐진 벽돌색 유적지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다.

성당 앞에서부터 뿔뿔이 가장 큰 길은 마을 아래까지 펼쳐 있고, 양쪽으로 작은 골목들과 집들이 펼쳐져 있다. 이곳은 도기 생산으로도 유명하다. 곳곳에 도기 제조소가 있어 만드는 과정을 구경하고 생산품을 살 수도 있다.

학생 시절부터 나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베즐레를 방문, 역시 로마네스크 성당들과 그 조각들이 유명한 부근의 소리유·요·요·풀뤼니 등지를 구경했다. 부르그뉴 지방의 작은 도시들은, 작지만 다리와 성벽, 성당, 건물 등이 중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소도시들도 많고, 옛날 수도원들의 옛터도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베즐레 성당에는 2006년에도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프랑스에서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과 루르드 성당 등과 같이 가장 많은 문화·종교·예술적 방문을 하는 로마네스크 건축과 조각의 명승지다.

나는 언제나 중세 프랑스의 소박하고 아름다운 종교 예술과 문화를 모두 간직하고 이곳과 이 지방에 다시 들어가 보고 싶다. 또한 인근 여러 작은 중세 도시들을 방문하고, 들로 지은 도시 전체에 무한한 애정을 느끼면서, 그 지방의 특산물인 부르그뉴 포도주와 진귀한 치즈 등 갖은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소박하고 인적이 넘치는 산골 주민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 가장 열성적으로 항독 운동을 한 애국자들이었다. 여자들까지 자전거를 타고 연락책 등으로 활약했으며, 영국 군과 미군이 헬리콥터로 떨어뜨려 주는 항독 운동의 전사들과 물자들을 받아 숨겨 주고, 해방이 될 때까지 그들과 같이 목숨을 걸고 나치 독일에 항거하며 프랑스를 구했다.

이 아름다운 문화재와 주민들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친구가 되기를 권한다.***<끝>

↓러시아 도스토오프스키의 소설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도끼로 살해한 전담포 업자 알로나 이바노브나. 이 할머니에게서 언뜻 그런 인상을 받았다. <그림=박준창 화백>



그림= 박준창 화백

LAW FIRM
SUE, SUED & SUING, LLP

내일은 무덤가서 확인해야지

해지기만 하는 데 말이지요. <하지만 변호사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꽤 많지요. 그런 가운데 농담 하나>

어떤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한다.

“거기 모모 변호사 계신지요?”

사무실 직원: “불행히도 그 변호사 님 1주일 전에 교통 사고로 돌아 가셨습니다.”

1주일 후 같은 사람이 또 전화를 한다.

“거기 모모 변호사 계신지요?”

사무실 직원: “불행히도 그 변호사 님이 2주일 전에 교통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1주일 후 또 똑같은 전화다.

“거기 모모 변호사 계신지요?”

사무실 직원(화를 내며): “돌아가셨는데, 같은 전화를 왜 자주 하시는 거예요?”

대답: “어쩐지 자주 듣고 싶어서요.” ***

시 영역(英譯) 감상 <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

“Prayer from a certain Atheist”



배효식(문리대 52)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교수

당신의 제단에 꽃 한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You may not remember me since I have never offered Even a blossom of flowers on your altar).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But God In the deep nights when all people are asleep, I hear the Silent Voice of your breath).

그리고 너무 적절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And when I am lonely, very often, and Pray before You, kneeling down).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 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God, How did you make all those many stars? And when you first let the fish go swim in the ocean, When you let the birds go fly up in the air, With their silver wings, Did you send Your Plaudits to them?).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었습니까.

(Oh, really, God! Was there light when You said, “Let There

Be Light?).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To write poems, now, the poets are dripping their tear drops, That are the same as heavily running blood from their noses, Tearing theirs hearts that are worn out like toenails).

모래 알 만한 별이라도 좋으니까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 만한 빛 한점이면 족합니다.

(Grant me your power enough to make a little star, Alike a grain of sands, with my hands. No, not a star in the sky, But in the darkness of my heart, the glow of a little firefly, Flying around, might satisfy me).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런 옷자락을 때로는 손으로 조금 만져 봐도 되겠습니까.

(May I come closer to You? May I touch a little bit with my filthy hands? Even the end of Your holy robe that covers your feet).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뚫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Would you please permit me to write a line of poems, Beautiful, that, like an organ sound, would be able to permeate Into the hearts of people who are rude against You? God!).

이 시는 인터넷에서 발췌한 이어령 교수의 시다. 이 시를 접해 영어로 번역해보고 싶었다.

이어령 교수와 나는 1952년 문리대에 입학해 동창이 됐고 서울에 수복해 우리는 학생운동에 참여하여 친하게 됐다.

흔히 학생회 회장은 정치파에서 나와 하게 마련인데 이번에는 이학부 물리과에서 ‘오세규’라는 경이고 출신 미남자가 출마해 정치과 학생을 물리치고 회장으로 당선됐다.

이 때 오세규군은 이어령(국문과)·배효식(영문과)·김영철(생물과)·송승현(화학과) 등을 포섭해 정치과의 아성을 무너트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령군은 이런 꿈으로 문예부장, 나는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훈련 부장, 송승현은 후생부장, 김영철은 총무 등으로 활동했다.

이 때 이어령 문예부장은 교지(校誌)를 창간해 T. S. Eliot의 ‘황무지(The Wasteland)’를 실었다.

이 시를 읽고 당시 양주동 교수가 강사로 나오실 때인데 교수님 간증하실 때 “역시 문리대는 지성적인 학생들이 많아 나를 가르치고 있다”고 토로 하시면서 “교지에 실린 ‘황무지’ 때문에 정신을 다시 차려 T. S. Eliot의 진집을 출판하게 됐다”고 말씀하셨다.

이토록 많은 학자들에게 대학생 시절부터 이어령 교수는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지금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문인으로서, 학자로서, 한국 문화 창달자로서의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시에 대해 나의 이해를 밝힌다면 이 시인은 무신론자임을 고백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정은 어느 성도보다 강하다는 것을 느낀다.

또 그 열정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깨끗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어머니의 젖을 빨아 먹고 싶은 간절한 욕구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다.

마치 아무도 볼 수 없는 밤에 물레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이 때로는 지성으로 가득 차 있는 지상 인간으로서 순결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는 거룩한 영성을 그리워 하고 있다.

오히려 의향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내향적인 유신론자라고 보면 더 좋다.

이 시인의 기도의 모습은 너무나 온밀하고 순결해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는 특권을 지닌

동문 시 감상

‘반딧불이 반세기 노래’



최용완(공대 57)
동창회보 논설위원·작가

반딧불이
반귀머거리

뒤 하나 우리에게 웅근 거 있었나요
석삼년이 아니라 반세기 넘게

희뿌연 안락

미국사람도 아니고
한국사람도 아니고
하늘엔 울타리가 없는데

이쪽은 아침
저쪽은 저녁 샌드위치
그 사이에서 꿀 먹고 살았나요

간 폐고
쓸개 폐고
용케 예까지 왔습니다

손짓, 발짓 바쁘게 꾸러민
필사의 하루 하루

할머니, 할아버지의 한국 사투리
자라는 2세의 툰 높은 아메리카 소리

애 태운 디아스포라
고개올며 웃으며 아리랑 아리랑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다.

안타까운 마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홀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숨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이 시인은 인간이기에 욕망도 있다. 그러나 그 욕망은 이기적이지 않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할 것 없이 어둠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간의 가슴이 철쭉 같기 때문이다.

큰 불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모래 알 만한 불빛, 아니 반딧불 같은 작은 불빛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그것으로 사람들의 캄캄한 마음 속을 밝게 하겠다는 야심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이 있다.

이 시의 형식은 대화 형식, 더 나아가 대답식은 질문 형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으로 대답을 해주신다.

그러므로 이 시인은 독자에게 현실적인 감각을 가지고 시를 읊미 하도록 인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무신론자의 시라고 하지만 이 시인은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이 살아 계신 분으로 인식하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성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시인의 영성은 높은 차원에 있다고 보겠다.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되고 지상의 지성인이 천상의 영성인 된 이어령 교수의 인격의 탈바꿈에 경의를 표한다.

보고 싶은 마음에서 당신의 시를 영어로 번역해 보았소.***
drhyopai@gmail.com

모교 도서관 건립 38년만의 신축공사

“동문들의 적극 후원 바랍니다”

모교가 도서관 건립 38년만에 신축 공사에 나서고 있다.

모교 도서관 신축공사 관계 인사는 “그간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러나 도서관의 기반시설은 지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모교는 지난 1974년 서울 관악구로 캠퍼스를 이전하면서 중앙도서관을 건립했다. 그러나 도서관 준공 후 40년이 돼 가면서 건물과 설비가 노후화 되자 신축공사를하기로 결정하고 기금 마련에 나섰다.

실제 학생 1인당 도서관 연면적을 비교하면 고려대(1.3㎡), 연세대(2.0㎡) 등에 비해 서울대

(0.6㎡)는 좁은 편이다. 열람실 좌석수도 고려대 9560석, 연세대 7379석에 비해 서울대는 3354석으로 훨씬 부족하다.

모교는 지난 3월부터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이란 제하의 도서관 신축 모금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중앙도서관 김미향 기획홍보실장은 “오랜전 총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고 계속해서 지난 3월 중순에는 한국에 계신 60세 이상 동문들에게 기금 모금을 위한 브로슈어를 배포했다. 미주 동문들께서도 기금을 위한 후원을 바라고 있

다”고 말했다.

모교는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총 1,000억원을 모금해 중앙도서관 본관을 리모델링하고 신관을 지을 계획이다.

모금 캠페인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http://friends.snu.ac.kr> 로 접속해서 후원을 위한 방법을 얻을 수 있다. ***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도서관의 새로운 도약, 도서관 신축 모금 캠페인!

1974년 권익캠퍼스 이전과 함께 건립된 현재의 도서관은 40년이 다 된 노후 건물로서 새로운 도서관의 신축이 절실합니다.

새로운 도서관은 ...

- ✓ 학생들이 찾고 읽고 배울고 싶은 생생공부와 수종의 장이 될 것입니다.
- ✓ 학부별 공적의 저무임을 바탕으로 세계 수준의 지식경보의 확보가 될 것입니다.

*모교는 도서관 건립 38년만에 신축 공사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 도서관 친구들 홈페이지: <http://friends.snu.ac.kr> 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075-17-306136 신관: 100-514-326209 우편: 1000-601-280134

<기획특집>아나운서 박종세 동문의 5.16 회고담

“5.16 새벽의 첫 방송”



박종세(사대 59졸)

박종세 아나운서는 1966년 KBS에 입사했다. 1961년 5월 16일 새벽 5.16 첫 방송의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졌는데 당시 상황이 부분적으로 전해오기는 했지만, 회고록 '방송, 야구, 그리고 나의 삶'을 펴내면서 상세한 내용이 소개됐다.

박종세 아나운서는 경북고와 1959년 모교 사대 교육학과를 졸업했고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로 거쳐 1964년 TBC 개국 무렵 중앙일보·동양방송 시절 아나운서실장과 국장급 방송주관을 역임했다. 1980년 방송 통제할 때 KBS에서 방송주관으로 있다가 퇴직 후 코레일 대표이사, 아시아경제 회장 등을 역임했고 한국 아나운서 클럽 회장을 지냈다.

다음은 박종세 동문의 5.16 당시 직접 겪은 회고담이다.

▶새벽 4시의 출성= 1961년 5월 15일 오후, 나는 야구 중계방송으로 지친 몸을 이끌고 숙직을 하기 위해 남산 KBS 방송국으로 출근했다. 초여름에 접어드는 따가운 햇볕 아래서 몇 시간 동안 악을 쓰면서 중계방송을 했던 터라 온 몸이 축 늘어지고, 거기가 입술까지 터져 기분이 아주 좋지 않았다.

나는 셋길 아래 쪽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사 먹고 아나운서실로 들어왔다. 나와 같은 팀인 송영규 아나운서와 저녁 8시 방송을 마치고 새벽 1시를 넘어선 시간에 숙직실로 올라갔다. 뽕씨 지쳐 있던 나는 몇 번을 뒤척이다가 곧 잠에 떨어졌다.

얼마를 잤을까. 우리는 숙직실로 올라 온 수위 아저씨가 소리를 질러대는 바람에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주섬주섬 옷을 걸치고 1층 현관으로 나갔더니 현병들이 들어와 있었고, 그중 책임자인 듯한 대위가 숙직 책임자를 찾는 것이었다. 그날 밤 숙직자 중에는 나이가 많은 도상보 음악 PD가 있었지만 방송국 직급으로는 내가 책임자인 셈이었다.

현병 대위는 앞으로 나선 나에게 “지금 정세 불명의 군인들이 김포 방면에서 서울을 향해 진격하고 있습니다. 북괴군 같기도 하고 반란군 같기도 한 데 그들이 일단 서울에 들어오면 먼저 KBS를 접수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 현병부대가 지키러 왔으니 별 일은 없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주시 바랍니다”라는 요지의 말을 건넨 후 방송국 곳곳에 현병을 배치하는 것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

악이 안됐지만 상황이 긴박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며 걱정에 휩싸였다.

그렇게 웅성거리며 10분쯤 지났을까. 방송국에 배치됐던 현병들이 허둥지둥 트럭에 올라타더니 명동 쪽을 향해 도망치듯 내달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현병들이 사라지고 채 5분도 안 지났는데 또 다른 군 트럭들이 남산 쪽에서 방송국 앞으로 들이닥치더니 얼룩무늬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쏟아져 내렸다.

그들은 단숨에 방송국 담을 뛰어넘으면서 일제히 총을 쏘아댔고,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로 겁에 질렸다. 도상보 PD와 함께 도주 군인들의 총구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삼태기 모양의 KBS 남산연주소(演奏所) 앞은 군인들의 난입과 어지러운 총소리로, 총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빛으로 한 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그 새벽에 우리는 귀를 찢는 총성 속에서 금방이라도 온몸이 불길에 휩싸일 것 같은 공포감으로 떨쩍도 하지 못하고 현관 앞 큰 유리문 앞에 물러 있었다.

그 때 도상보 PD가 자기를 따르라면서 뛰기 시작했다. 도상보 PD는 우리들 중 나이가 가장 많았고, 6.25 때 수색대장으로

“5시 방송 안나가면 당신 죽을 줄 알아” 권총이 내 옆구리를 질렀다. “박종세를 잡아와” 방송시켰더니 덜덜 떨면서 애국가를 틀어야 할 순간 민요를 틀더라”

복무를 했다고 해서 ‘도 대위’라는 별명을 가진 분이였다.

우리는 그를 따라 1층 아나운서실을 지나, 한 번 꺾인 벽으로 막혀 있는 보도실로 뛰어 들어갔다. 보도실로 우르르 밀려든 우리는 다시 방 한 쪽 구석에 칸을 막아 만든 텔레타이프(Teletype) 실 문을 열고 안으로 숨어들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런데 앞장섰던 도상보 PD는 거기도 안심이 안되는지 잠시 바깥 동정을 살핀 후 우리에게 “기다리라”는 말을 남기고 창문을 훌쩍 뛰어넘었다. 순간 창밖에서 “손들어!” 하는 고향소리가 들려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신문중·출입중 든 양복 침문 밖으로 던져= 우리는 다시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텔레타이프 뒤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웅크리고 앉았다. 언뜻 6.25 전쟁 당시 남치당한 윤영노·전인국 등 선배 아나운서들의 이름이 떠올랐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나는 아나운서라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부랴부랴 신문중·출입중·방송매도 등이 들어 있는 양복 상의를 벗어 돌돌 말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렸다.

그 때 누군가가 텔레타이프실 문을 두드렸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바짝 었었다. 그 사람은 반쯤이 없자 문을 몇 번 흔들어 잠긴 것을 확인하더니, “거기 박



↑1961년 KBS방송국이 서울 남산에 위치해 있을 때 박정희 장군과 박종세 동문의 모습이다.

종세 아나운서 있습니까?” 하고 나를 찾았다. 순간 나는 어떤 안도감을 느꼈다.

“거기 박종세 있어? 나와!” 했으면 나는 아마 자지러졌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찾는 목소리는 위해감이 느껴지지 않았고, 정중하기까지 했던 것이다.

원로방송인 황우경·전영우·김병희님과 함께 아무리 비상 상황이래 해도 말을 전문으로 하는 아나운서가 그것을 구별하지 못할 리가 없었다.

▶박 장군이 직접 하시지요= 나는 텔레타이프 뒤에서 나와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공수부대 복장의 소령 한 사람과 대위 두 사람이 서 있었는데, 소령은 나를 알아보는 눈치였다.

그는 “같이 가지지요” 하면서

란 사건 같은 정세불명의 군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나는 일단 가슴을 쓸어내렸다.

혁명공약이 적힌 인쇄물을 내게 건넨 뒤로도 박정희 장군은 군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사정을 몇 마디 더 보태면서 나를 설득했는데, 그런 그의 모습은 진지했고, 말에는 조리가 있었다.

그런 긴박함 속에서도, 위협에 처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사였을까. 박정희라는 ‘박’ 자(字)가 그렇게 반가울 수 없었다. 나는 “중제시군요” 하는 말을 목구멍에서 억지로 참았다. 그러다 보니 떨리는 가슴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작은 여유도 생겼다.

나는 용기를 내, “박 장군님이 직접 방송하시고 제가 소개 멘트를 해드리면 안 될까요?” 라고

락부락한 용모를 가진 중령 한 사람이 “아나운서가 하면 다 되는 것 아니냐? 5시에 방송 안 나가면 당신 죽을 줄 알아!” 하면서 ‘철커티’ 권총을 장전해 내 옆구리를 쿡쿡 찔렀다.

나는 나중에야 그가 옥창호 중령인 것을 알았다. 그는 그 큰 군화발로 복도를 뒹굴며 옥박질렀고, 나는 현기증이 나 쓰러질 것만 같았다. 그 현장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동창 김기주(자 MBC 전무 책임)는 훗날, 그때 내 얼굴이 백지장처럼 창백해지는 것을 보고 자기까지 조마조마 했었노라고 말하기도 했다.

오전 5시 5분 전, 시간이 그야말로 5분 밖에 남지 않은 그 절박한 순간에 갑자기 아래 층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났다. 엔지니어가 돌아온 것이었다. 텔레비전 2층으로 뛰어 올라오는 두 엔지니어를 보는 순간, 나는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었다. 내 얼굴에 핏기가 다시 올라오는 것을 스스로도 느낄 수가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의 손을 맞잡고 “방송상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그들은 지체 없이 메인 키를 올렸고, 남산연주소와 연희송신소까지 방송되는 타령이 남산연주소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훗날 5.16 첫 방송 이악기를 쓴 혁명 주체 한 사람이, 이 타령이 울려 퍼진 상황을 묘사하면서 “박종세를 잡아와 방송을 시켰더니 덜덜 떨면서 애국가를 틀어야 할 순간 민요를 틀더라”고 써서 쓴웃음을 지은 일이 있다.

▶취청자 안심시키려 체근달 방송= 그 무렵 작은 스튜디오에서 아나운서 혼자 기기(機器)를 조작하면서 뉴스와 음악 등을 방송했는데, 그날 5.16 혁명을 알리는 첫 방송은 7초 스튜디오 불리는 작은 방송실에서, 내가 뉴스를 진행하는 메인 마이크 앞에 앉고 송영규 아나운서가 보조 자리에서 턴 테이블에 행진곡을 걸어놓고 기계조작을 해주었다.

내 앞에는 박정희 장군이 곳곳이 서서 방송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뒤로는 김동하(전 마사회장) 장군, 이주일(육군 대장·감사원장) 장군과 함께 김종필·이석재 중령이 서 있었다. 정문순 중령, 이형주 중령은 내 뒤의 작은 의자에 앉아 권총을 빼는 채 나를 감시했다.

타령이 이어 방송이 시작되어 애국가가 나가고, 그리고 5시 정각 행진곡과 함께 5.16 혁명 방송이 시작됐다.

앞장섰는데, 나는 괜히 줄어들어 우물거리고 서 있었다.

그 때 대위 두 사람이 “앞으로 따라가라”는 턱짓을 하며 기관단총으로 내 등을 쿡쿡 찔렀다.

나는 그들과 함께 보도실을 나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군모(軍帽)에 별 두 개가 유난히 선명한 장성앞에 세워졌다. 그 장성은 대령 “박종세 아나운서입니까? 나 박정희라고 하오” 하면서 악수를 청했다. 나는 잠시 그의 손을 잡았다 놓았다.

박 장군은 차분한 목소리로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지럽소. 학생들이 판문점에 가서 북한 학생들과 만나겠다고 하지를 않나, 국회는 매일같이 싸움질만 하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았소. 그래서 누란(累卵)의 위치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우리 군이 일어섰소. 오전 5시 정각에 이것을 방송해줘야겠소” 하면서 전단 한 장을 내미는 것이었다.

나는 전단을 받아 제팔리 훑어 보았다. 그것은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온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서...’로 앞 부분이 시작되는 혁명공약이었다.

혁명공약은 ‘대한민국 만세! 권 기군 만세!’로 마무리돼 있었다. 북한군이냐, 여순(14연대)반

말했다. 그러자 박 장군은 “박 아나운서가 하시오!” 라고 했다. 그 목소리가 너무도 단호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다.

▶내 얼굴이 백지장 처럼 창백해져= 곧 이어 내가 심년감수하는 일이 일어났다. 그 때 시각이 오전 4시 40분으로, 오전 5시까지 는 단 20분 밖에 남아 있지 않았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엔지니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옆에서 있던 이석재 중령(뒤에 총무처 장관·감사원장)에게 “저 혼자서 방송을 할 수 없습니다”라며 “엔지니어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 때부터 방송국 건물에는 초비상이 걸렸다. “엔지니어를 찾아라”는 긴급 명령이 떨어지자 건물의 구석구석, 하다못해 공개방송실 의자 밑까지 뒤지며 난리를 피웠다.

그러나 엔지니어는 방송국의 어디에도 없었다. 그 날의 담당 엔지니어인 한영식씨와 임시현씨는 우리가 아래 층에서 혁명군의 난입으로 떨고 있을 때, 2층 주조실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방송국 뒷담을 넘어 명동 쪽으로 피신했던 것이다.

방송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기술담당 직원을 찾을 수 없게 되자 군인들은 점점 거절어지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큰 키에 우



첫 방송터 기념일에 원로방송인들

나는 "...은인자중하던 군부는 드디어 오늘 아침 미명을 기해 서... 대한민국 만세! 권기군 만세! 군사혁명위원회 의장 육군 중장 장도영" 으로 끝나는 혁명공약 방송을 같은 자리에서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일단 성공적으로 첫 방송을 내 보낸 뒤, 나는 이석제 중령과의 논쟁 혁명공약 방송 사이사이에 다른 프로그램을 넣어 가면서 방송을 계속했다.

이 중령이 '청취자들을 너무 놀라게 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해서 채근담(菜根譚) 등으로 엮은 '마음의 샘터' 라는 10분짜리 프로그램을 그 긴박함 속에서도 친연덕스럽게 방송했다.

오전 7시에는 '미국의 소리 (VOA)' 방송도 그대로 받아서 내 보냈다. 그때 '미국의 소리' 에 가 있던 장기별 전례의 방송에서 혁명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대목이 나오자 즉각 중단했다.

▶사복에 카빈 총 들고 지휘하던 김종필= 당시 김종필 중령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검정 양복 차림이었는데, 한 쪽 머리카락이 축 처져 내려온 데다가 손에 카빈총을 들고 군인들을 지휘하는 모습이 마치 영화에서 본 프랑스 레지스탕스 지도자 같았다.

누군가가 김 중령이 서울대 사대를 다녔다는 귀뜸을 해주어 친근감이 느껴지던 참인데, 마침 그가 내게로 다가왔다. 오전 4시 40분경이었다.

나는 그에게 '지금 이곳 남산 KBS 방송국만 접수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곳은 연주소이고 방송이 발사되는 곳은 연회 송신소라는 것이다. 그곳에서 자키(콘서트) 하나를 빼든가 스위치를 내리면 방송은 되지 않는다. 그곳을 빨리 쟁취야 한다' 는 요지의 말을 전했다.

김 중령은 "그런 절차가 있느냐"며 깜짝 놀랐고, 서둘러 송신소로 군인들을 보내느라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그런데 연회동에 있는 송신소로 향한 군인들이 아현동 언덕을 넘어 신촌역 부근을 지날 때 5.16 첫 방송은 전파를 뒀다. 연회송신소에 군인들이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혁명 방송이 탈 없이 나간 것이다.

그날 연회송신소 담당 엔지니어는 서울대 동문으로 나와 인연이 많은 정용문(전 한솔PCS 사장)씨였다. 그는 새벽에 방송 스위치를 올리고 나서 잠시 혼란에 빠졌다고 한다. 방송이 나오는데 이상했던 것이었다.

난데없이 행진곡이 울려 퍼지고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으로 시작되는 방송이 나오자, 그는 뭔가 잘못됐다는 판단이 들어 남산연주소로 연락을 해볼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다시 들어

볼 때 청취하는 국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당직 아나운서를 통해 자연스럽게 방송하자는 쪽이 우세해 결국 내가 마이크를 잡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방송국 당직을 택한 것이 혁명방송의 성공을 가져온 것이 됐다.

▶엔지니어들, 달아나 파출소에 신고= 당시 나는, 나에게 식은땀을 줄줄 흐르게 했던 한영식·임시현 두 엔지니어가 어떻게 극적으로 방송국에 나타나게 됐는지 궁금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두 사람은 2층 주조실에서 서 군인들이 들어다치는 것을 보고 바로 뒷문을 열어 증구 필동 쪽으로 해서 명동까지 내달려 파출소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지금 KBS에 군인들이 쳐들어 와 총을 쏘아대고 있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무슨 소릴 하느냐"며 도무지 믿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방송시간이 다가오자 책임질 일이 생길 것 같아 조심조심 방송국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다가 지금의 적십자사 근방에서 자신들을 찾는 군인들을 만나 한 걸음에 방송국까지 오게 됐다고 한다. 나는 지금도 그때 두 사람이 집에 질러 끌려가지 나타나지 않았다면 혁명방송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혁명방송을 모두 끝낸 뒤, 신분증을 넣어 텔레타이프실 밖으로 내던진 양복 생각이 나서 가보았더니 하필이면 텔레타이프용 기름통에 빠져 있었다. 다행히 신분증은 건질 수 있었지만 양복은 세탁을 해도 기름이 빠지지 않을 것 같아 그냥 버리고 말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 얘기를 들었는지 방송을 담당했던 이석제 중령이 나중에 양복을 몇 벌 보내 주었고, 소본이 퍼지자 훗날 유신고속 사장을 지낸 박창원 장군도 양복 몇 벌을 보내 주었다.

▶해의 도피 선박도 인천 앞바다에 준비해 놓았소. 유사시 사람을 보낼 테니 여차하면 박 아나운서와 가족도 우리와 함께 떠남시다!

해 그 면을 위로 가게 쌓아 놓았었다 한다. 소설을 인쇄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던 것이다.

오전 9시까지 방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강찬선씨가 가장 먼저 출근해 교대해주어 나는 짐으로 향할 수 있었다. 그 시각은 야전군 사령관인 이한림 장군과 미 8군 사령관 매그루더의 움직임이 혁명군들을 긴장시키고 있었다. 한 쪽에서는 절망의 소리까지 들을 있을 때여서 퇴근하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방송국 현관을 나올 때 군인 몇 사람이 격려의 말을 했는데 이중 한 장교가 걱정스러워하는 나를 보더니 "지금 인천 앞바다에 여차하면 혁명군을 싣고 해외로 도피할 선박이 준비돼 있으니 박 아나운서도 함께 떠나자"고 묻지도 않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박 아나운서의 집이 누하동이라는 것도 안다"면서 "유사시에 사람을 보낼 테니 집에 가서 꼭 쉬고 있으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나는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잘못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걱정이 커졌다.

▶책상 밑에 숨은 박종세를 발길로 차 끌어냈다? 나는 이렇듯 5.16 첫 방송을 했다.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5.16에 관한 회고를 하면서 첫 방송 장면을 증구난방(衆口難防)으로 해대는



청와대 조디란은 박종세님 부부

←첫 방송기념터에서 원로 방송인 황우겸·전영우·김명희님과 함께.

↑청와대 초청을 받은 박종세 등 부부(왼쪽)가 박 대통령과 환담 중이다.

혁명이 바로 내 입을 통해 전파를 타고 국내외에 선포됐으니, 나는 어쩔 수 없이 '역사의 현장'에서 있었던 것이다.

남산연주소 2층에 있던 제7방송실은 그후 5.16 첫 방송 기념관이 됐다. 밑줄을 그은 원고사 사진들에 넣어져 벽에 걸리고, 그때 사용한 마이크와 당시 박정희 장군을 중심으로 한 사진도 전시돼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그것들은 슬그머니 지워져 감추고 말았다. 혁명공약이 인쇄된 전단을 받아 들고 두리췌속에서도 실수를 금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한다. 그 전단의 앞면에는 혁명공약이 인쇄돼 있었고, 뒷면에는 소설이 인쇄돼 있었다.

5.16 전야에 종로구 안국동 광명인쇄소에서 비밀리에 혁명공약을 인쇄하면서 사장 이학수씨의 지시로 한 면은 소설을 인쇄

바람에 그런 글을 대할 때마다 나는 혼자 쓴웃음을 짓곤 했다. 혁명주체들이 쓴 글에는 5.16 아침 방송국에서 저마다 나를 자기가 잡아내 방송시켰다는 내용이 많았다. 심지어는 '책상 밑에 숨어 있는 것을 발길로 차서 끌어냈다'고 쓴 사람도 있었다.

"박종세 아나운서가 너무 놀란 나머지 애국가를 틀어야 할 것을 우리 민요타령을 틀었다"는, 방송 메카니즘을 모르는 얘기는 차라리 애교라도 있었다.

그중 시인 박복월 선생이 쓴 '육영수 여사' 라는 책도 나를 끈혹스럽게 했다. 저자가 원고를 보여주며 고쳐 달라는 부탁을 해왔기에, 첫 방송 장면을 사실대로 바로잡아 주었다.

그런데 정정(訂正) 부분은 썩 무시하고 이전 원고대로 잘못된 묘사를 그대로 살려 책을 발간한 것이다. 발간된 책에는 첫 방송이 예정시간인 오전 5시 정각에서 10분 정도 늦게 방송됐다는 영타령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몇 초만 방송이 늦었어도 혁명이 실패한 것이 돼 혁명군 내부에 큰 혼란이 일었을 것이고, 총을 들고 설쳐대는 살벌한 혁명군이 나를 그냥 놔두었을 리가 없는 데,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 책으로 나온 것이 몹시 섭섭했다.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의 회고록= 혁명 첫 방송을 언급하고 있는데, 나와 박정희 장군이 나는 대화가 뒤바뀌어 있는 것을 빼고는 비교적 정확했다.

조선일보에 실린 조갑제씨의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에도 5.16 첫 방송 부분이 꽤 많이 언급돼 있는데 당사자인 나도 놀랄 정도로 묘사가 정확했다. 그 기사를 읽으면서, 그때까지 안 나왔던 텔레타이프실 얘기라든가 박정희 장군이 나를 설득하던 대화장면 등이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돼 있어 취재경위도 물을 겸 조갑제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부재중이어서 최준명 국장과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난다.

▶그때 나 때문에 혼났지? 1972년, 김종필 총재 등의 추천으로 5.16 민족상을 받게 된 내가 내자(內子)와 함께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그 전에도 몇 번 청와대 초청을 받아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는 별 말없이 있던 박정희 대통령, 그 날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박종세씨, 그날 아침에 나 때문에 혼났지?"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도 "왜 총을 쏘고 들어 오셔서 모두를 놀라게 하셨습니까? 조용히 들어오셨으면 우리가 만세를 부르면서 나가서 맞이했을 텐데요"라고 농담 비슷하게 말했다.

박 대통령은 "너무 급해서 그랬어! 혁명군이 한강 인도교까지는 별일 없이 왔는데 한강에서 대항하는 군인들이 있어서 지체한 데다 KBS 방송국을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첩보에 들켜명령을 내린 거야. 그렇지만 위협사격이었지, 총구는 모두 하늘을 향했으니까. 아무튼 미안했어!" 하면서 크게 웃는 것이었다.

모두들 따라 웃었지만 나는 평생에 지워지지 않을 충격이었던 그 날의 새벽을 떠올리며 마냥 웃을 수만은 없었다.***



TBCRADIO.NET

←TBC 시절 청와대 육영수 여사로부터 초청받은 TBC 아나운서들 모습이다. 뒷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가 박종세 아나운서다. 앞줄 가운데가 육영수 여사.

해 그 면을 위로 가게 쌓아 놓았었다 한다. 소설을 인쇄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썼던 것이다.

동문동정(미주 중앙일보·한국일보 인용)



진은숙 동문 신작 5월 LA서 초연

세계적 실내악 앙상블, 창단 25주년 신설 음악제 위촉 '문자 퍼즐' '코스미기믹스' 내달 연주 주목. 사우스웨스트 체임버 뮤직 'LA 국제 뉴뮤직 페스티벌'

세계적인 작곡가로 유명한 진은숙 동문의 작품이 5월 9-26일 콜번 스쿨에서 개최하는 제1회 LA 국제 뉴뮤직 페스티벌(LA International New Music Festival)에서 초연된다.

이 작품은 현대음악 연주단으로 유명한 실내악 앙상블 '사우스웨스트 체임버 뮤직(Southwest Chamber Music)'이 연주하는 것이다. 사우스웨스트 체임버 뮤직(SWM)은 창단 25주년을 맞아 올해 처음 시작하는 이 음악제에서 총 25개의 작품을 선보이는 데 이 중 14곡이 LA(혹은 서부지역) 초연, 3개작이 미국 초연, 그리고 4개작이 SWM가 위촉한 신작들의 세계 초연이다. 이 중 2개 작품이 한국인 작곡가 진은

숙과 나효신의 것이다. 진은숙 동문은 이번 페스티벌에 참석했으며, 연주되는 진은숙 동문의 작품은 '문자 퍼즐(Akrostichon Wortspiel 1-5월 9일)'과 '코스미기믹스(Cosmigmicks-12월)'이다. 소프라노와 앙상블을 위한 '문자 퍼즐'은 진은숙의 이름을 세계에 알린 1991/93년 작이고, '코스미기믹스'는 이번 음악제를 위해 작곡한 신작이다. SWM과 암스테르담의 니우앙상블이 공동 위촉한 '코스미기믹스'는 작곡가 사무엘 베케트에게서 영감을 받아 쓴 7개 악기(피아노, 만돌린, 기타, 트럼펫, 하프, 현악, 타악기)를 위한 뮤직 펜타마임으로 지난 4월 네덜란드에서 초연한 후 미국에서 다시 초연되는 것이다. 사우스웨스트 체임버 뮤직은 그레미상을 두 차례 수상(7회 후보지명)한 글자의 실내악단으로 전통 클래식을 기반으로 미국과



첫 사진이 진은숙 동문. 왼쪽 사진은 사우스웨스트 체임버 뮤직의 연주자들 모습이다.

남미, 아시아 출신 현대작곡가들의 컨템포러리 음악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예술감독은 제프 폰 데르 슈미트(Jeff von der Schmidt). 재독 작곡가 진은숙 동문은 서울시향의 상임작곡가, 베를린 도이체 심포니 상임작곡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오늘의 음악 시리즈' 예술감독이며, 이번 시향의 북미주 투어의 프로그램에 그녀의 '생활협주곡(Shu)'이 포함된 세계적인 작곡가다. 모교 음대 작곡과를 나와 독일에서 리게티를 사사한 협주곡으로 '음악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그라메마이어 작곡상과 아르놀트 쇤베르크 음악상을 받았고 2012 호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문의 (800)726-7147, www.swmusic.org The Colburn School 200 S. Grand Ave.LA, CA 90012



바리톤 윤형 동문 '라보엠' 오페라 '라 보엠' 마르셀로 역 출연

바리톤 윤형 동문 '라보엠' 출연

퍼시픽 심포니 오케스트라 오페라 '라보엠' OC 공연서 마르셀로 역으로 출연

바리톤 윤형(사진) 동문이 지난 4월 19-24일 LA의 퍼시픽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오렌지 카운티의 시거스트롬 홀에서 공연하는 콘서트 버전의 오페라 '라 보엠'에서 마르셀로 역을 맡아 출연했다.

윤형 동문은 모교 음대를 졸업하고 보스턴 대학교에서 석사, 커티스 음대에서 오페라를 전공한 뒤 1997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디션 파이널리스트에 오른 후 미국 내 여러 오페라단에서 활동해 왔다.

한국의 유명한 성악가 윤치호(2007년 작곡)씨의 아들이기도 한 그는 2000년에 보스턴 탕글우드 페스티벌에서 세이

지 오자와 지휘로 베르디 '팔스타프'의 주역을 맡아 공연했다.

2001년에는 성악 콩쿠르 '설리번 어워드'를 받았으며, 2002년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메롤라(젊은 예술가 지원) 프로그램과 워싱턴 DC에서 플라시도 도밍고가 만든 오페라단의 젊은 예술가 프로그램에 발탁되어 멤버로서 활약했다.

2004년 메트로폴리탄에서 레온 카발로의 '팔리아치'의 실비오 역을 맡아 최초의 한국인 바리톤 주역으로 데뷔했다. 또한 2007년 홍혜경·김우경씨와 '메트로 정복한 최초의 한인 성악가' 카네기홀 공연을 갖기도 했다.

퍼시픽 심포니의 '라 보엠' 공연은 4월 19·21·24일 등 총 3회에 걸쳐 열렸다.***

한테라 동문 록펠러 재단서 3만불 받아

가야금 한테라 동문 국악의 경계 넘어 다양한 음악 "언제까지 한국의 소리만 외쳐야 하는가" ...

한테라(30·사진) 동문이 가야금 연주자로는 처음으로 록펠러 재단 펠로십에 선정돼 3만 달러를 받았다. 한테라 동문은 펠로십 기간 동안 국악의 경계선에서 벗어나 다양한 음악·음악가들을 접하고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힐 수 있었다고 한다.

지난 3월에는 뉴욕 아시아 문화 협회(AAC)에서 특별 공연을 열어 타민족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펠로십을 마치고 뉴욕을 떠나는 한 동문이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다.

-펠로십은 어떻게 선정됐나. "2008년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연주했을 때 펠로십 관계자가 내 연주를 보고 추천해주어 지원하게 됐다. 2010년 선정됐는데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바람에 뉴욕에는 지난해 10월에 왔다. 처음에는 분위기도 티프(tough)하고, 정서적으로 잘 안 맞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AAC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타민족에게는 가야금이 생소했을 텐데. "뉴욕에서도 처음에는 전통 음악을 미국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고민 많이 했다. 그런데 가야금 자체로 사람들이 좋아해 주

바이얼리니스트 김정연 동문 음악회

노숙자들 쉼터 '나눔의 집' 자선음악회 참여 연주

바이얼리니스트 김정연(사진) 동문이 지난 4월 29일 뉴욕의 퀸즈 플러싱 타운홀(137-35 노던 블러바드)에서 노숙자들의 쉼터 '나눔의 집' 후원을 위한 자선 음악회에 참여해 연주했다.

김정연 동문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관객들의 눈을 보게 됐다"고 말하며 이번 음악회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모교 음대 수석 졸업 후 예일대 석사와 럿거스대 박사 전액 장학금, 그리고 카네기 홀 공연 등 솔리스트로 다양한 무대에 선 경험이 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명성에 비해 다소 작은 자선 음악회지만 김 동문은 "음악회에서 관객들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됐다"고 말했다. 무대의 크기보다는 관객들과 나누는 교감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선'이라는 좋은 의미에 끌렸다는 말이었다.

7살 때부터 음악의 길에 들어선 김 동문도 처음엔 다른 음악가들처럼 큰 무대가 좋았고, 실력을 키우는 것만이 자신이 갈 길이라고 믿었다고 한다.

김 동문은 "처음엔 저도 잘 하려고만 음악을 해 왔다"며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음악회를 끝내고 나면 허무한 감정이 남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이어 "관객들과 서로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며 "음악의 참 의미가 '나눔'에 있다는 것을 서서히 발견하고 관객과 음악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김 동문은 "그런 의미에서 무대는 관객과 음악을 나누는 것을 넘어 기금도 모아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어 흔쾌히 수락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김 동문이 참여한 자선 음악회는 뉴욕 클래식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김 동문은 엘가의 세레나데와 비발디의 사계 등을 환상적인 솜씨로 연주해 큰 갈채를 받았다.

이날 개인 관람객의 입장료는 70달러로 모든 수익금은 전액 한인 노숙자들에게 점심 식사와 취업 등의 상담을 하는 비영리 단체 '나눔의 집' 후원에 쓰인다.***



더라. 가야금이 한국 악기지만 꼭 한국의 소리만 내야 한다고 생각지 않는다. 우리가 영어도, 한국말도, 일본말도 하듯 가야금이라는 건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감동을 주고 힘을 주는 소리를 내고 싶다."

한 동문은 5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 원래 꿈은 피아니스트였으나 6살 때 가야금을 배워 국립국악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가야금 전공후 모교 학사·석사 후 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국악 연주자로서의 고민은. "왜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할까? 했다. 피아노를 했다면 더 넓은 세상에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 소통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가야금은 그에 비하면 수요·공급도 적어 점점 답답함을 느꼈다. 대학에서는 대

중성과 예술성과 갈등에서 또 부딪치게 됐다."

-어떤 결론을 내렸나.

"식상한 말이지만 감동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내 음악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좋았고 이런 음악을 하고 싶었다. 그 전까지는 내 자신에게만 집중해 기량을 닦고 연주의 질을 높이는 것만 중요했다. 그런데 그건 평생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이제는 공부하고 쌓아왔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에 환원하면서 의미 있는 음악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 활동하던 한계를 넘어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일본이나 중국 같은 이웃 국가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소통하는지 궁금해서 박사 과정에 들어가면서 프로젝트를 쫓다. 프로젝트 하는 도중에 펠로십도 선정된 것이다."

-가야금의 국제 경쟁력은?

"가야금처럼 인간과 친숙한 악기도 없는 것 같다. 100% 명주 실크로 된 현이고 또 이걸 아무 장치 없이 맨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데 이 '살소리'가 굉장히 특별하다. 인위적인 소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오는 소리다. 음악 장르면에서 본다면 우리 음악의 특징은 하나는 한(恨), 그리고 하나는 신명(神明)이라고 본다. 피는물이 날 정도로 슬픈 게 한이고 신이 울고 갈 정도로 신나는 게 신명이다. 연주가 잘 됐을 경우는 누구를 막론하고 이 감정을 알아주는 것 같다."***



박혜숙 동문 LA에서 작품 강연회

박혜숙(미대 74) 동문이 지난 4월 24일 LA의 Park View Gallery에서 삶의 끝없는 열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작품 활동과 생활에 관한 강연회를 열었다.

박혜숙 동문은 이날 "작품 속 그릴 때 3가지로 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혜숙 동문은 "그 세가지 중 하나는 삶과 연결된 것, 둘째는 정치적인 것, 셋째는 미학적으로 좋은 그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세가지 중 박 동문이 가장 치중하는 것은 "사회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삶과 연결돼 있는 삶이 있는 그림' 일 것"을 강조했다.

박혜숙 동문은 작품 설명과 함께 자신의 삶이 예술에 반영되는 모색 과정에 대해 강연을 풀어 나갔다.

박혜숙 동문은 미대 재학 중도미대 UCLA 회화과를 졸업하고, 35년 동안 작품 활동을 계

속해 왔다.

작가의 말처럼 지난 1978년 미국에 와 이민 생활을 하는 중 끊임없이 겪었던 Chaos 후에 마침내 Logos를 찾아 가는 과정이 작품 곳곳에 배어 있는 듯 했다.

박 동문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정열'이 가득하다고도 평했다. 그래서 그런지 진홍의 강렬한 색채가 눈에 가득 들어 오고 있다.

이민생활 중 특히 한국이 그리워도 갈 수 없는 환경을 표출한 나머지 진퇴양난의 절규, 그리움, 갇힌 우리에서의 탈출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 등이 내재돼 있다는 것이다. 삶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자신도 어느 순간에 그대로 동화돼 가는 환화, 이를 통해 분출되는 에너지가 그대로 작품 속에 몰입되곤 한다는 것이다.

박 동문의 작품에 대해 어느 미술가는 "작동과 유린의 감성을 가지고 있다"고도 평했



↑왼쪽 사진은 박혜숙(오른쪽) 동문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이며 옛 사진은 강연에 앞서 Park View Gallery의 홍선례(음대 70) 큐레이터가 박혜숙 동문에 대해 소개하는 모습이다.

다고 했다. 자신이 말하려고도 솔직하게 털어 놓는 소탈함이 오히려 생경한 느낌이다.

박 동문의 작품 속에는 특히 말(馬)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역동적인 자신의 성향과 무관하지는 않다"고도 했다.

그동안 프랑스·북경·타일랜드·LA의 SIP 화랑과 샌프란시스코·뉴욕 등지의 미국, 한국 서울의 인터넷 채널 화랑 등에서 15회의 개인전을 가졌다. 샌프란시스코의 오크랜드 뮤지엄, LA의 뉴포트 하버 뮤지엄과 산타모니카 뮤지엄 등에서 다수의 그룹전을 가진 증견 작가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강의, 신셋 블루버드의 앱소르트 보드카 빌보드 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했다.***

템플대 조영호 교수 은퇴 음악회

5월 6일 필라 한인 연합교회서 35년 음악인생 마무리



템플대 음대 조영호 교수(사진)가 35년 음악 인생을 마무리 짓는 음악회를 가졌다.

필라델피아 음악인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조영호 교수는 지난 35년간 몸 담았던 템플대 음대 교수에서 은퇴할 예정으로 그 정확한 시기는 대학측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템플대 음대 성악 과정을 맡고 있는 조영호 교수는 1968년부터 템플대 성악·오페라과 교수로 초빙돼 지금까지 수많은 후진 양성에 힘써 왔다.

지난 4월 17일 필라 한인연합교회 성가대 이인영 지휘자와 조 교수의 제자들은 서라벌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조영호 교수 은퇴 기념 음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힌 바에 따라 열린 것이다.

이번 연주회는 성악가이자 멘토인 조 교수의 은퇴를 기리는 것으로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대형 이벤트가 됐다고 한다.

조영호 교수는 모교를 졸업하고 1965년 미국에 온 뒤 줄리어드 스쿨에서 오페라를 전공했으며, 쿠투비스키, 뉴욕 국제 콩쿨대회 등에서 연이어 입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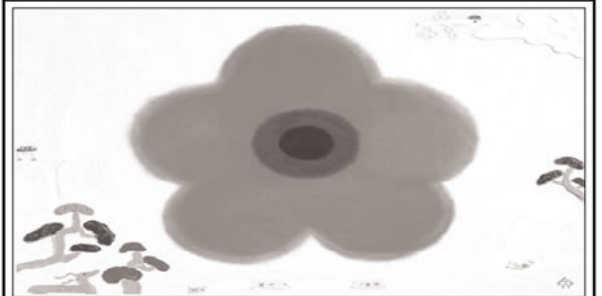
한선정 동문 건축강좌 실시

모교 공대 건축과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UC Berkely 대학원을 졸업한 PQNK 한선정 대표가 비즈니스 오너와 창업자들을 위한 건축강좌를 지난 4월부터 열고 있다. 이 강좌는 OC와 LA 중앙일보 문화센터가 신설한 것이다.

한선정 동문은 실용적이면서도 창조적 디자인으로 60여 개의 상업·의료·문화·주거시설 등을 설계한 경험을 토대로 매

주 1회씩 총 4주간 비즈니스 오너들이 꼭 알아야 하는 핵심 건축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강의한다.

특히 건물 선정시 유의점, 건축 디자인 허가 및 공사과정의 이해, 인테리어와 건축가 선정법, 공사 계약법, 도면 보는 법, 건축법규, Health and Accessible Code, 그리고 인테리어와 예제 등을 핵심적으로 다룬다.***



김병중 교수 뉴욕서 소호 봄 전시회

화랑들이 물려 있는 맨하탄 첼시와 소호에도 새 전시들이 열리고 있다. 따뜻한 봄 햇살 아래 화랑가를 둘러보며 멋진 그림을 감상하는 것도 좋은 봄나들이 방법이다.

맨하탄 첼시의 갤러리 호는 '봄-생명의 노래(Spring Blossom)'를 주제로 지난 4월 5일부터 21일까지 김병중 교수의 첫 뉴욕 개인전을 열었다.

이 전시회에서 김병중 교수는 삶에서 발견한 아름다움을 조형의 언어로 풀어낸 '생명의 노래' 연작과 도점 기법으로 완성한 부조 판화 작품, 그리고 '길 위에서' 연작을 보여주었다.

'생명의 노래' 연작은 김 교수가 1989년 연탄가스 중독으로 생사의 고비를 넘긴 후,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와 생명에 대한 경의심에서 시작한 시리즈다.

동그란 모양의 빨강 다섯 잎을 가진 꽃 혹은 도형화된 초록 새싹 등을 화면 중앙에 배치하고, 그 주위로 다양한 색과 문양의 풍경이나 부주제의 물체들이 동등 떠다니게 그리는 이 시리즈는 동·서양적인 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길 위에서' 시리즈는 작가가 남미를 기행하던 중 오르제를 찾았고, 한지 또는 나무판에 아크릴로 완성시켰다. 유난히 색이 밝고 경쾌하며, 원시적인 강렬한 빨강, 노랑, 흰색을 많이 사용했다.

김 병중 교수는 화가이자 철학자, 문학인, 교육인으로 모교 미대 학장과 모교 미술관장을 역임하고 미대 동양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국립현대미술관, 대영박물관, 몬타리오 미술관, 브뤼셀 BC 대사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신덕재 동문 북음관상 조각 작품전

침묵으로 빛은 '회개의 눈물' 관상기도로 성경인물 형상화 '슬피 우는 베드로' 등 8점 성도마스 성당서 전시회 가져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던 칠흑 같은 밤, 카야파 대사제장의 저택 뜰. 베드로는 그곳에서 닭 울기 전에 자기 스승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불면 당하던 예수가 몸을 돌려 부드러운 눈길로 베드로를 돌아보았다. 짧지만 영원처럼 긴 시간. 그때 땅이 꺼질 듯한 자책감 속에서도 베드로는 그 눈빛 속에서 깊고 높고 영원한 사랑을 보았다.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 형언할 수 없는 슬픔으로 통곡한다. 스승을 사랑하길 마음으로는 원했지만, 스승을 버렸던 죄인의 눈물, 회개의 눈물, 사랑 받은 자의 눈물이었다.

이같은 모습의 베드로 등 성경 인물들의 이미지를 북음관상 기도(하느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직관을 통해 하느님을 바라보고 깨닫고 체험하고 사랑하는 기도방법)를 통해 마음에 그리고 그것을 청동조각으로 형상화한 작품이 마련됐다.

오렌지 애나하임 소재 성도마스 한인천주교회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6일까지 '신덕재 북음관상 조각작품전'을 열었

다. 작품은 '슬피 우는 베드로', '이사야를 바치는 아브라함(오른쪽 사진)', '예수님과 성모 마리아' 등 8점이었다.

신덕재(왼쪽 사진) 동문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한 전시회가 되길 바란다. 수년 전 펜실베이니아에 있을 때 경험했던 이나시오 영성수련이 나를 북음관상기도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고 이번 작품은 그 결과물이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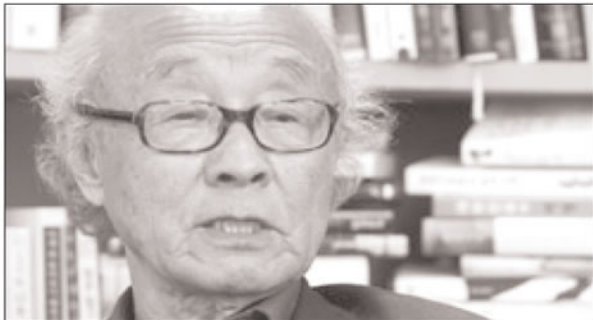
성경구절을 놓고 하는 깊은 묵상과 관상기도가 성경 속 사건이 일어난 특정 장소와 인물들을 자신의 마음에 생생하게 되살아나게 했고, 그것을 청동조각 작품으로 제작했다는 뜻이다.



신덕재 동문은 미대 조소과를 졸업하고 1969년 패사디나 디자인 대학에서 수학한 뒤 지난 25년간 프랭클린 민트 등 미국 기업에서 조각품 디자이너로 일했다.

신 동문은 "펜실베이니아의 로버트 맥매너스 문시놀 신부님의 계정 후원이 없었다면 이 작품들은 아득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진흙조각 형태로 먼지를 덮여쓰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동조각은 먼저 진흙으로 작품을 빚은 후 석고 등으로 곁들을 만들고 그 뒤 다시 세라믹 유약 물감을 한 다음 그 빈 공간에 청동 쇳물을 부어 제작되고 있다.***



평양 방문 박한식 교수 고국서 언론 인터뷰

로켓 실패 김정은이 직접 지시

지난 2.29 중국 베이징 함의로 북·미 관계의 물꼬가 터지는 상황에서 북한은 왜 장거리 로켓(은하 3호) 발사 카드를 꺼내들었을까. 실패한 로켓 발사에 대한 북한의 입장은 뭘까. 지난 4월 10일부터 일주일 동안 평양을 방문하고 18일 서울을 찾은 박한식(73·상대 59·사진) 미국 조지아대 석좌교수가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박한식 교수의 내용을 전제한다.

“평양의 분위기는 어땠나. ‘김일성 100회 생일(태양절) 기념행사’에 동원된 것으로 보이는 주민들이 끝없이 줄지어 어디론가 몰려다녔다. 내은사인을 켜고 건물들도 불을 켜 축제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 같았다. 이전에 김일성 광장 근처에 걸려 있던 마르크스와 레닌 초상화가 없어졌다. 마르크스·레닌에서 파생된 사회주의가 아니라 ‘김일성 나라’가

됐다는 느낌이였다.”
 -방북기간인 13일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쏘았다.
 “의심기자들을 통해 발사 사실을 알았다. 실패 소식도 그들에게 들었다. 저녁 때 북한 당국자들은 공식적으로 실패가 아닌 ‘체도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사석에서는 실패라고 하더라.”
 -주변국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한 이유는 뭘까.
 “발사 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각오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사망한 김정일이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고, 수령(김일성)에게 선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북한 사람들의 의식구조나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김정일의 결정은 절대적이다. 어느 누구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못한다. 그래서 발사는 기정사실화하고 뱃수습을 고민했던 것 같다. 만약 성공했다면 북한 미사일 수입에 관심 있는 나라들이 관심을 보일 수도 있지 않나. 상업적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실패 사실을 알렸다.

“북한 당국자들에 따르면 김정은이 직접 알리라고 했다더라. 주변 참모들이 실패 사실을 발표하면 창피하지 않으나 고 건의했는데 ‘사령관(김정은)이 사실대로 발표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일부 기자들은 스위스에서 공부해 개방적인 게 아닌가란 분석도 했다.”
 -열병식 김정은을 직접 봤나.
 “관중석에서 봤다. 볼펜도 못 가져 가게 하더라. 김정은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사회자가 ‘최고 사령관께서 연설을 한다’고 소개한 뒤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인 경공업에 방점을 둔 듯한 연설을 했다.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20여 분간 진행된 연설문을 본인이 직접 썼다더라.”
 -김정은은 어떤 인물이었나.
 “게스치나 말투는 김일성과 똑같았다. 외모나 행동의 유연성도 노력한 결과이긴 하겠지만 지도자로 자리 잡은 인상이 좋겠다. 하긴 심사숙고하기보다는 그냥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란 생각이 들었다. 자칫 즉흥적인 결정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경우 남북 간에 작은

군사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 미국의 식량지원 철회만도 강경한 압박으로 생각하고 있고, 추가 제재가 있다면 3차 핵실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방북기간 우리 총선이 있었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었나.
 “한국의 총선보다는 미국의 대선에서 누가 되는지 관심이 있더라. 남북 관계 개선보다 북·미 관계 개선이 우선이란 입장이었다. 한국 정부를 중속 변수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처럼 진보·보수라는 강경적 접근보다 자신들에 대한 적대감이 없으면 누구와도 교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경제에 대해선 누구와도 손을 잡겠다는 입장이었다. 그게 달라진 점이다.”
 ▶박한식 교수= 북한 문제에 정통한 미국 조지아 대 석좌교수로 이 대학 부설 세계문제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50여 차례나 평양을 방문하며 구축한 네트워크를 통해 지난 2009년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여기자 석방에 핵심적 역할도 했다.***

지인수 편집위원장 장남 화축

미주 동창회보 지인수(상대 59) 편집위원장의 장남 준서(미국명 George)씨가 지난 5월 5일 오후 4시 산타모니카

Brentwood에 위치한 Presbyterian Church에서 신부 조하나씨와 화축을 밝혔다.***



◀SF중앙일보 칼럼 게재 1,000회를 맞은 정유석(오른쪽) 박사가 중앙일보 편집국장으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고 있다.

강창환 동문 LA에서 개인전

LA의 강창환(법대 68) 동문이 지난 해에 이어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Vernon의 Lucky Gallery에서 개인전을 연다. 강창환 동문은 법학과 언론을 공부한 뒤 독일에서 공법을 연구했으며, 지난 90년 이후 LA에 정착해 라디오 코리아에서 방송 뉴스를 7년간 진행한 뒤 그림 작업을 하고 있다. 강 동문은 “남가주의 최대 상업 중심 도시로 잘 알려진 Vernon에 처음으로 문을 여는

Lucky Gallery는 Vernon이라는 도시의 독특한 이미지로 인해 그 자체만으로도 큰 관심과 반향을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 문화 공간으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작업한 풍경화와 추상화 등을 전시하면서 그림을 좋아하는 이 지역 동문들을 초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화 818-331-9098 changkangart.blogspot.com ***

정유석 박사 칼럼 1천회 돌파

‘정신건강 에세이’, 20년간 게재...어떤 1,000회. SF 중앙일보, 공로패 수여... ‘독자 심원 덕’
 샌프란시스코의 정신과 전문의 정유석 박사가 SF중앙일보에 칼럼 ‘정신건강 에세이’를 20여년간 연재, 지난 3월 21일자로 1,000회를 맞아 SF중앙일보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1992년 4월부터 ‘정신건강 에세이’를 시작한 정유석 박사는 그동안 해박한 지식과 노련한 필력으로 지면을 장식하며 두터운 독자층을 확보해 왔다. 정 박사는 문학·영화·음악·미

술·철학 등 모든 분야를 아우리며 이와 관련된 유명인사들의 심리적 상태 및 정신 증상을 자신의 임상 경험과 접목시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내 인기를 끌고 있다. 지난 3월 31일 SF중앙일보 본사에서 열린 전달식에서 최광민 편집국장은 지난 20여년간 지역 한인들에게 의학적 지식과 더불어 이민생활의 활력을 불어넣어 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정유석 박사는 “1~2년 정도 글을 쓰다 그만 둘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20년이 흘렀

다”며 “독자들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박사는 “건강과 지면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글을 쓸 것”이라며 “독자들이 정신의 학이나 심리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박사는 그동안 중앙일보에 매주 게재했던 칼럼들을 엮어 ‘마음속의 엘리베이터(1996)’ ‘사랑에 빠진 사람이 가장 슬프다(1999)’ ‘나는 나를 시험하고 싶다(2000)’ ‘피카소의 청색시대(2002)’ ‘프로이트와 인터뷰(2004)’ ‘작가와 악료들 증독(2005)’ ‘아트홀릭(2008)’ ‘예술가들의 이상심리(2009)’ 등 총 8권의 에세이집을 출간한 바 있다. 모교 의대를 졸업하고 1969년 도미한 정유석 박사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대학병원에서 강의했으며 1992년 북가주로 이주, 현재 알라메다 카운티 정신과 외래진료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Chang 'Paul' Kang

Solo Exhibition

Lucky Gallery
5205-5207 Downey Rd.
Vernon, CA, 91356
(829) 583-6710

May 24 - Jun 06, 2012

Opening Reception
May 24 Thu: 6:00 pm

Gallery Hour
Mon - Fri: 10 am - 5 pm
Sat: 10 am - 3 pm

changkangart.blogspot.com
munami135@gmail.com 818-331-9098

삼가 명복을 빕니다
 ▶성희모(문리대 53) 권사= 지난 3월 30일 뉴욕에서 작고.
 ▶민족학교 최진환 설립자= 민족학교 공동 설립자인 최진환 박사가 지난 3월 27일 별세했다. 향년 75세.
 고인은 모교 치대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71년 도미, USC 치대를 거쳐 개인 치과를 운영해 오면서 한국 민주화 관련 운동에 동참해 왔으며 1980년대 초 민족학교 창립 이사장으로 활동했다. 유가족으로 부인 최경자 여사와 2남 1녀다.
 ▶남궁영(공대 77, 밴쿠버)= 지난 3월 1일 장모상.



이정주 동문 버지니아서 개인전

서양화가 이정주 동문이 지난 4월 9일부터 5월 4일까지 버지니아 로던에 위치한 워크하우스 아트센터에서 전시회를 가

졌다. 스튜디오 작가로 지난 3월 6개월에 걸쳐 작업한 작품들을 ‘독도 판타지(Dokdo Fan-

←이정주(앞줄 가운데) 동문이 미술가협회 회원 일부와 함께 한 모습이다.
 tasy)’라는 주제로 소개했다. 현재 워싱턴 한미 미술가협회 회장이기도 한 이정주 동문은 모교 미대와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그 뒤 프랑스 폴 발레리 대학에서 미술사, 조지메이슨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했다. 이 동문은 “갤러리 관람도 하고 여러 작가들의 스튜디오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오는 9월에는 이곳 빌딩 메인 갤러리에서 한미 미술가협회 전시회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집<담> MD앤더슨 김의신 박사 칼럼< 차별없는 치료

“한국의 대기업 회장도 고작 4명 입원실 이곳에서는 VIP실이란 있을 수 없다!”



김의신(의대 66년 졸)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

진료비는 비싸지만 - 외국인 환자 기부로 번 돈, 연간 3천 300억원 자신 진료에 써. 암센터는 부자들 기부로 커 - 퇴원하며 500만 달러 쾌척도... 병원 곳곳에 기부자 표지판

수년 전 암에 걸린 한국의 한 대기업 회장이 이곳 MD 앤더슨 암센터를 찾은 적이 있다. 그는 입원에 앞서 여러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 인근 호텔에서 머물렀는데, 같이 온 가족과 수행원이 많아서 호텔 한 개 층을 다 빌렸다. 그리고 항암치료를 위해 입원을 하던 날, 그는 병실 크기를 보고 작잖아 놀랐다. 1인실이라고 해야 13.2-16.5m²(4-5평) 정도로 작기 때문이었다. 한국 병원의 1인실보다 작은 것이다. 그렇다고 이곳은 특실이나 VIP 병실이 있는 것도 아니다. 나란히 붙어 있는 병실 2개를 빌리려 했으나 병원 내규상 허용되지 않았다. 병실은 한 환자당 하나일 뿐이다.

MD 앤더슨은 575개의 병실을 운영하는데 모두 크기가 같은 1인실이다. 텍사스 주 지사가 입원하나, 재벌 회장이 들어오나, 가난한 사람이 입원하나 같은 병실을 쓴다. 1인실을 운영하는 이유는 사생활 보호를 중시하는 미국 문화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암 환자가 한 곳에 모여 지낼 때 병원내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사립병원은 특실을 두는 경우가 있어도, 우리와 같은 주립대병원은 병실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MD 앤더슨’은 진료비가 너무 비싸서 부자들만 오는 병원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 물론 미국 병원의 진료비가 엄청나게 비싼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저소득층 암 환자도 여기서 많이 치료받는다. 병원에서 제공하는 자선 진료 규모가 엄청나기 때문이다. 한 해 전체 수입 약 3조 3000억원의 9-10%를 자선 진료에 쓴다. 전체 환자의 10명 중 한 명은 자선 진료의 혜택을 입는다. 다른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다가 효과를 보지 못한 경우거나, 돈이 없어 결정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진료를 병원이 지원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10년간 2조 2천 300억원 규모의 자선 진료가 이뤄졌다. 병원은 무슨 돈으로 그 비용을 감당할까. 그 비결은 독지가들의 기부다. 성형외과에는 데이비드 장이라는 재미 동포 의사가 있다. 닥터 장은 암으로 유방 절제한 환자들에게 유방



↑MD 앤더슨 암센터 입원 환자 치료실 모습. 환자들은 누구나 똑같은 크기의 병실에서 치료를 받으며, 저소득층 환자에게는 자선 진료도 시행된다.

다. 최근 한 독지가가 말기 암으로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했다가 죽음을 맞은 부인을 기리

다. 이 호텔들은 로터리 클럽에서 돈을 모아 지은 것이고, 호텔 수익금은 모두 병원에 기부된다. 텍사스 주 출신인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은 생일을 맞으면 스카이 다이빙으로 상공에서 뛰어내린다. 그럴 때마다 부시의 친구들은 50만 달러(약 6억원)를 모아서 병원에 기부한다.

“아무리 부자도 1인실 4-5평의 입원실에 입원, 하지만 이들 미국 부자들의 기부액이 연간 4천 600억원, 이것이 MD앤더슨을 오늘 날 세계 최고 병원으로 만드는 원동력!”

암 진단에 쓰이는 PET-CT(양전자단층촬영) 비용이 한국에서는 80만원 정도지만 여기서는 7천달러(약 800만원)다. 의료가수가 10배가량 비싸다. 의료보험이 있어도 치료비의 20%를 자기 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보험이 없거나 돈 없는 사람은 입원비 부담이 매우 크다.

을 새로 만들어주는 재건술을 잘하기로 유명하다. 얼마 전 그는 켈리포니아에서 온 한 유방암 환자를 수술했는데, 너무 감쪽같이 결과가 잘 나왔다. 감탄한 그의 남편이 감사 표시로 500만 달러(약 56억원)를 병원에 기부해 화제가 됐다. 병원 곳곳에는 기부자들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이 널려 있

기 위해 300만 달러를 들여 교회를 지었다. 병원은 교회 한 구석에 부인의 초상화를 걸었다. 병원 앞 분수대가 낡았다며 리모델링에 쓰라며 기부하는 환자도 있었다. 이곳은 입원비(하루 1천 달러)가 비싸서 웬만하면 환자들이 병원 주변의 호텔에 묵는

‘MD 앤더슨’이라는 병원 이름도 목화사업으로 큰 돈을 번 MD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1940년대 초만 거액의 기부해 병원이 설립됐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이곳 휴스턴 지역에서는 각종 자선 갈드퍼레이드를 병원 이름으로 열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게 하나의 문화다. 유명인들은 그런 이벤트에 기꺼이 참여해 기부금 액수를 늘리는 데 기여한다.

병원은 기부 개발팀을 별도로 운영한다. 텍사스 주에는 수백개의 정유회사들이 있고, 이들 소유한 이들은 어마어마한 갑부들이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부 개발팀은 이들의 명단을 갖고 있고, 이들의 건강 수명도 대략 짐작하고 있다. 병원은 1년에 한 두 번 고급 리조트를 빌려 200-300명의 갑부들 초대해 파티를 연다. 건강 강좌도 하고, 연회 사이 사교수들이 5분 정도 각종 최신 암 치료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교수들은 그 자리에서 “전립선암에 정말 좋은 최신 방사선 치료기가 나왔는데 너무 비싸서 우리 병원에는 없다. 뉴욕에는 곧 들어간다고 하더라”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 갑부들이 수백만 달러짜리 수표를 즉석에서 끊어주기도 한다. 미국 부자들은 자기 자식한테 유산을 많이 물려주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하다. 각종 단체나 기관에서 주는 연구비, 환자 독지가들의 기부 등으로 한 해 모이는 돈이 4천 600억원 가량이다.

이런 게 ‘MD 앤더슨’을 세계 최고 암센터로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물고기는 가라앉고 달은 숨고”



이원익(문리대 73)

중국은 긴 역사를 이어 온 큰 나라였으니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 당연히 빼어난 미인도 한둘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도 역사상 이름난 미인이 ‘서시-왕소군-조선과 양귀비’다. 춘추전국시대, 가슴앓이 병치레를 하던 서시는 자주 눈썹을 찡그렸는데 그 모습마저 너무나 아름다워 동네 처녀들이 모두 눈썹을 찡그리고 다녔다는 이야기다. 월나라의 중신인 범려는 서시를 데려다가 미인계로 써서 결국 오왕 부자를 멸망으로 이끌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물가에 앉았더니 물고기들이 알아보다

란다. 고기 떼가 모두 넋을 잃고 쳐다보다가 헤엄치는 것을 잊어먹고는 한꺼번에 가라앉으니 그녀의 다른 이름이 ‘물고기 가라앉힘(浸魚)’이 된 이유다. 전한 시대의 궁녀였던 왕소군은 궁중에서 뽑히어 흉노의 우두머리인 선우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다. 오랑캐를 다독여야 하는 황제는 궁녀들의 얼굴 그림을 보고 그대도 가장 덜 아까운 여자를 보내기로 했는데 미모에 자신이 있던 왕소군은 그림쟁이에게 뇌물을 쓰지 않아 흉하게 그려져 결국 자신이 골라지게 되었다. 나중에 잘못 뽑았음을 알게 된 황제는 노발대발했지만 잃어버린 물, 왕소군은 메마른 북녘의 사막을 향해 가다 서글픈 마음에 거문고를 탔었다. 마침 하늘이 떴어 날아가던 기러기들이 이 미인을 알아보고는 그 가락에 취하여 날개짓하기를 잠깐 잊었다던가. 여러 마리가 동시에 땅으로 떨어졌으니 왕소군의 다른 이름이 ‘기러기 떨어뜨림(落雁)’

이다. 후한 때의 초선도 난세에 여포와 동탁 사이에서 미인계로 쓰였는데 어느 날 보호자인 왕윤과 함께 달을 쳐다보노라니까 달이 마주 보기 부끄러워 구름 뒤에 숨어버렸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달 숨음(閉月)’이다. 마지막은 당나라 원종의 로렌스로 유명한 양귀비다. 그녀가 아직 황제의 총애를 못 받던 초년 시절, 신세를 한탄하며 뜰의 꽃을 아무만지자 꽃이 자신이 부끄러워 하며 잎을 움츠려 말아 올렸다. 그래서 그녀의 여러 이름 중에 ‘꽃이 부끄러워함(羞花)’이 더해지게 되었다. 모두들 서글픈 운명이었지만 이처럼 역사에 이름이 남는 것도 전혀 뜻 없는 일은 아니었다. 그리고 중국 특유의 과장법이 라지만 산천초목도 알아보았다는 이들의 기품과 아름다움이 오로지 절묘양에서만 뿐어나오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요즘 특히 교국에서는 너도 나도 절개풀 뜯어고치기 인공미인 열풍이다. ‘난세에 절세미인이 하나 잘못 나면 나라가 기운다’고 했었지만 이토록 집단으로 전국민이 다른 건 제쳐두고 ‘얼굴

뜯어먹기’만 걱정하고 나서는 것도 문제다. 온 나라가 들쭉거리다 결국 참담하게 바람이 빠져 주저앉을지도 모른다. 바깥을 가꾸는 만큼 이제 안도 챙기자. 부처님 예수님의 가르침도 우리의 안을 위한 것이다. 안이 먼저 아름다운 선남선녀라면, 비록 저 달이 물라주고 물고기가 무심해 하더라도 중생들의 맑은 마음의 눈이 그들을 알아볼 것이다.*** leewonik@hotmail.com

↓중국 4대 미녀중 하나인 초선



생활의 단상

까마귀 이야기



이명재(상대 58) 중부 텍사스 동창회장

내가 사는 고장은 텍사스 조지타운 시에 있는 'Sun City' 라는 별명을 가진 곳이다. 텍사스의 수도 어스틴에서 북쪽으로 35마일 떨어진 곳이다. 이곳은 언덕과 계곡, 그리고 평원이 골고루 섞여 있는 4,100 에이커의 거대 농장이었는데 지금은 7천500 세대의 단독 주택이 있는 텍사스 최대의 은퇴 커뮤니티가 되었다. 18홀 골프장이 세개나 있는 골프 친국이고 숲과 넓은 그린벨트 그리고 세 곳의 자연 산책로(Nature Trail)의 숲 속 길을 걸을 수 있는 낭만적 친환경 커뮤니티이다.

▶체로키 인디언의 고향=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곳은 19세기 체로키 인디언들이 계곡 주변에 수백개의 텐트를 치고 살던 곳이라고 한다. 그들이 이곳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걸프해에서 오는 허리케인을 비롯하여 폭풍, 토네이도 등이 몰고 오는 거센 바람이 조금 높은 남쪽 언덕을 치고 인디언들의 텐트촌을 넘어 북쪽 평야에 자리한 이웃 마을들을 강타하곤 하였다는 지리적 이점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인디언의 전설처럼 자연재해로부터 비교적 안전지대에 살고 있어서 다행이다. 나는 골프를 자주 치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아내와 함께 거의 매일 걷기를 좋아한다. 주요 차도와 나란히 가는 산책로가 즐잡아 15마일인데, 우리가 즐기는 것은 내로남불보다 숲속의 자연 산책로를 걷는다.

▶아내와 매일 산책= 집에서 1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베리 크릭(Berry Creek)이라는 계곡

의 다리를 건너 오른 편에 자연 산책로가 있는데 계곡을 따라 산책, 숲과 초원이 섞인 2.75마일 거리다. 우리는 일주일 1.5 시간 경에 골프 카를 타고 가서 왕복 3마일 정도 걷는 것이 일과처럼 되어버렸다.

숲 속에서 사슴도 만나고 다람쥐도 만나고 아름다운 새 소리를 감상하며 걷는 재미도 좋지만 이곳에 오면 할 말이 많지는 아내의 수다를 듣는 것도 싫지 않다. 물이 친척이 흐르는 물가 경치 좋은 곳에 벤치가 있어 쉬어 가면 마음이 상쾌해지고 피로가 가신다.

이렇게 약 1마일 정도 걸으면 계곡의 맑은 편에 꽤 넓은 초원이 나타나는데 봄이 오면 지팡의 혼한 각색의 들꽃들이 그 야생미를 뽐내고 있다.

▶오크나무의 까마귀= 특히 텍사스의 꽃 'Bluebonnets' 가 파랑색 야생미와 은은한 불향기를 풍기며 싱싱하게 피어 퍼져 있기 때문에 산책하는 모든 이의 걸음을 멈추게 한다.

왕복 3마일 정도를 걸어 산책로 입구 가까이 오면 해질 무렵이 된다. 이 때 빼놓 수 없는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 무엇보다 인 까마귀 떼가 잠자리인 오크 나무들을 향해 모여드는 모습을 구경하는 것이다.

까마귀는 낮에는 주로 먹이를 찾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보

는 그 아래 고공에서 편을 지어 날으며 석양을 즐기는 모습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쳐다 보았다.

작은 점으로 보일 정도로 고도로 올라 갔다가 참새 크기로 내려 오기도 하는 활공을 보면 힘은 조금도 쓰지 않고 바람을 타고 흘러가는 범선갈기도 하고 비행편대 갈기도 하다. 날개는 활짝 편 채로 펄럭임 없이 방향만 조종하고 있는 느낌이다.

▶영리한 새= 영어에 'As the crow flies' 라는 말이 있는데 '돌아가지 말고 첩경으로 가라' 는 뜻이다. 까마귀는 가장 영리한 새이고 독수리의 시력을 가졌기 때문에 목표를 향하여 날렵하게 날아간다는 뜻이리라.

그러나 그런 까마귀에게 우리가 산책하며 즐기는 낭만 못지 않게 넓은 날개를 활짝 펴 늠름하고 여유있게 활공을 즐기는 낭만이 있을 줄이야 예전엔 미처 몰랐다.

까마귀는 친인간적이고 사회적이며 환경적응이 빠른 새라고 한다. 까마귀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과 상생해야 하며 잘 길들일 수 있는 친인간적인 새라는 것이다.

길은 까마귀는 사람 목소리를 흉내내고 사람 얼굴을 구별하



구원 또는 사냥을 알리는 신호를 수시로 보낼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까마귀에 대한 편견= 까마귀가 울면 불운이 올 징조라고 생각하고 흔히 더러운 새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근거없는 오해다. 일본사람들은 삼족오(다리가 3개인 까마귀)가 천황의 호위무사대를 안내한 태양신이라는 전설이 있으며 그들에게 밥을주면 조상들에게 전해 준다고 지금도 믿는 이가 많다.

성경엔 하나님이 까마귀를 시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셨다고 기록되었다.

▶고구려의 삼족오 깃발=

암컷이 알을 품는 기간 수컷이 먹이를 가져다 주는데 물은 나눌 수 없으니 먹이를 한참 물에 흠뻑 적시어 갖다 준다. 너트나 조개류는 바위를 향해 위에서 힘있게 내려 던져 껍질을 깨고 그래도 안개지는 것은 차도에 갖다 놓고 차 바퀴가 깨주면 알맹이만 취한다.

셋째 일부일처제를 철저히 지키고 대가족을 이룬다. 봄철에 대어섯 머리 새끼를 낳는데 약한 달 후면 집 밖에 내 보낸다.

새끼들은 2-3년간 남아서 동생들이 생기면 키우는 일에 부모를 돕는다. 그 후 가족을 떠나 상대를 만나 교미하고 새 가족을 만든다.

넷째 강한 이이나 풀줄기를 칼처럼 사용하는 등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땅 조각을 불고기 찌미떡밥으로 사용하는 등 낙시하는 사람을 흉내 내기도 한다.

까마귀에 관한 지식을 늘려가며 그들에 대한 나의 오해가 해소되고 오히려 호감과 정이 두터워지는 것을 느낀다. 그런데 요즘 우리에게 슬픈 일이 발생했다. 작년엔 큰 오크나무 서너 그루에 가득 앉아 자던 까마귀 무리가 지금은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큰 집에서 아이들이 다 떠난 후 느끼는 쓸쓸함과 같이 여간 설심한게 아니다. 도대체 그 많은 새들이 어디로 간걸까.

▶갈수록 숫자 줄어= 몇 년 전 미국의 까마귀들이 뇌염의 병원균 West Nile virus 에 감염되어 거의 절반이 죽었다고 한다. 이 바이러스에 저항력이 가장 약한 동물이란. 그런데 최근엔 이런 사건이 없었으니 아마도 이런 일은 간 것으로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작년에 중부 텍사스에 찾아온 격심한 가뭄으로 초원은 타고 계곡의 물은 마르고 농사는 실패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 아마도 먹이를 찾아 북쪽이나 중서부로 이주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본다.

다행히도 지난 겨울 비가 많이 와서 숲과 초원은 푸르고 농사도 잘 되고 곤충과 벌레도 많아질테니 그들이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그래도 아직 남아 있는 의리 있는 까마귀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주고 싶다. 그리고 "너희 친구들은 왜, 어디로 떠났느냐" 고 물어도 보고. 까마귀 말을 가르치는 데가 있을 줄을텐데...***

“ ‘As the Crow flies’ 돌아가지 말고 첩경으로 가라!” “까마귀는 친인간적이고 지능이 발달한 새..., 고구려 시대는 ‘삼족오’ 의 깃발로 수호신의 역할도...”

다가 해질 무렵엔 꼭 한 장소에 모여서 잠을 잔다. 가지마다 줄줄이 앉아 큰 나무들 몇 그루에 만원을 이루는 것으로 장관이다.

까마귀 한 마리의 무게는 300-600 그램 정도로 가벼워서 가는 가지까지도 여러 마리를 수용할 수 있다.

미국 까마귀의 길이는 40-53 센치미터, 익폭(즉 편 날개의 넓이)은 85-100 센치미터 정도다. 가벼운 몸에 넓은 익폭을 가진지라 까마귀가 하늘에서 활공하는 모습을 보면 기가 막히게 멋있고 유연하여 '나도 저렇게 날아 보았으면...' 하고 상상해 보기도 한다.

오늘도 한 무리(약 20마리)는 아주 고공에서, 다른 한 무리

며 기억한다는 것이다. 그들이 무엇새가 된 이유는 포식동물(Predator) 독수리, 올빼미 등)의 공격을 함께 막고 또한 소통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란 다. 도시·산림·숲·공원·초원 등 어느 곳에서도 환경에 잘 적응하며 삶을 개척해 나간다고 한다.

▶다른 곳 까마귀와 달라= 우리 고장에 사는 까마귀들은 약간 짙어대거나 우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매우 의아했는데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이곳엔 독수리나 올빼미 같은 포식동물이 없고 그들을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다. 그리고 먹이도 수백마리가 먹기에는 충분하다. 따라서 위험이나

라마에서 보듯이 고구려는 전쟁시 삼족오의 깃발을 들고 싸웠는데 아마도 수호신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까마귀는 썩은 고기나 상한 음식을 먹지만 독수리처럼 근원적인 Scavenger는 아니다. 잡식을 하기 때문에 먹거리가 다양하네 곡류·씨앗·견과류·과일, 각종 베리, 지렁이·쥐, 작은 뱀, 곤충·해충·어류·조개류·새알과 달걀 등 부지기수다.

아마도 사람이 까마귀를 싫어하는 이유는 색깔이 까매서 음식 산해 보이고 농작물을 훔쳐먹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곡물을 먹는 새는 까마귀 뿐이 아니며 또 까마귀가 해충을 먹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만 나쁜 새로 치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까마귀의 지능 계수는 영장류인 침팬지의 수준이다. 따라서 행동양식이 사람을 닮은 점이 많다.

첫째 그들은 우리처럼 큰 커뮤니티를 이루고 산다. 이주하는 무리는 한 곳에 수만 마리가 운집하기도 한다는데 마치 히치콕 감독의 '새(Birds)' 영화를 연상케 한다.

그러나 우리 마을처럼 작은 숲에 수백 마리가 정착하여 사는 경우도 많이 있다. 둘째 식량을 저장할 줄 안다. 까마귀는 네스트 근처의 으슥한 곳에 먹이를 감추기도 하고 물에 담겨놓기도 한다. 식구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예비하는 것이다.

동문 시 감상
깃 발
오세영(문리 61)
시인·모교 명예교수
갈바람이 불었다 하더라
파바람이 몰아쳤다 하더라
이 지상엔 음풍 모진 바람,
하르르 꽃잎 지는데
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그것이
하늘
향할 방향도
정할 자리도 없이
마파람 불면 마파람
셋파람 불면 셋파람의 위세로
한 세상
호령하구나
그러나 미구(未久)의 어느
폭풍우 치는 밤,
네 또한 광풍(狂風)에 갈같이
젖겨 매달릴지니
나는 장대 끝에서 나몰래는
깃발이 되기보다는
지상에 떨어져 한 줌 흙으로
삭는
꽃잎이 되리라.



이 달의 초대석<6> 오계숙(미대 59) 동문

한국적 여성이미지 가득한 설치미술가

2003 이탈리아 비엔날레 금메달 수상 예술 만개

지난 1990년부터 2011년까지 대표격인 개인전 19회, 1999년부터 그룹전과 방문 전시회 80여회, 14회 수상. 오계숙(미대 59) 동문은 동포사회보다는 오히려 주류사회에 더 잘 알려진 설치 미술가라 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12월 72개국 890여 명의 작가가 참가한 이탈리아 Florence에서 열린 제4회 Florence Biennale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에서 New Media and Installation부문 금메달을 수상한 것은 오 동문의 예술 세계가 탄개했음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1941년 서울에서 태어난 오계숙 동문은 서울사대 부속 국·중·고를 거쳐 서울대를 나왔으니 완전한 'S-Super Woman' 이 아닐까. 1964년 동문 이교락(의대 53) 교수와 결혼한 오계숙 동문은 미주 동창회 4대 회장을 역임한 오인석(법대 58) 동문과 남매지간으로 동문 가족을 이루고 있다.

오계숙 동문을 '이달의 초대석'으로 초빙해 편집주간이 전 화 인터뷰했다.

-특별히 미술을 전공하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사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약대를 적극 권했어요. 당시 부친이 병석에 누워 모친이 가정경제까지 떠맡으셨을 때라 여성도 경제력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평소 미술은 취미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고3 때 서울대와 한국일보 주최로 전국 미술경연대회 때 소묘(素描) 출품작이 특선에 입상했어요. 이 일로 오빠(오인석)가 재능이 있는 분야로 진학시키는 게 좋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했어."

-응용미술학을 전공하셨는데요.
"당시 한국에 건설 붐이 일어 그래픽 디자이너가 많이 필요할 때라 이 분야를 전공하면 일자리도 많아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일상생활과 가까운 분야라는 데 호감도 있었습니."

-후회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순수미술을 동경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 이따금 아쉬움은 있었지요. 그러나 당시엔 응용미술 분야의 초창기라 뭔가 창조적인 분야를 개척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졸업 무렵 유유산업 제약회사에 디자이너로 일할 때 선배 김광현

(미대 57, 현재 NI에서 나라 갤러리 운영)과장파 20여 명의 디자이너가 함께 '상업미술전'을 최초로 설립해 나름대로 큰 보람이었죠."

-미국에 오신 동기는요.
"재학중 교수님께 '여학생은 왜 10명 정도 밖에 안 뽑느냐'고 물으니 '여성은 결혼하고 나면 전공을 버리고 살림만 하지 않느냐'고 하시네요. '나는 결혼 후에도 아티스트로 살 것'을 다짐했습니."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직장도 작품생활도 마다하고 남편 따라 다니는 아내가 돼(이교락 교수께서 방사선 학문수련을 더 빨리고 해서) 발티모어로, 그후 캔자스까지 오게 됐습니."

-미국생활 초창기에도 미술을 계속하셨는지요.
"이 교수께서 Univ. of Missouri 콜럼비아에서 레지던트 하실 때 나도 학교에 나가 공부하던 중 아이를 둘 낳았지요. 당시 워킹맘과 아이들 돌볼 수 있는 사회 시설이 별로 좋지 않아 남편 뒷바라지와 아이들 시중, 학교 공부 등이 너무 힘들어 결국 미술 공부를 놓고 18년을 가정주부로만 일했습니."

-그 18년은 완전 공백이었나요.
"아이들 키우면서도 사실은 잠잠이 취미로 페인팅이나 드로잉은 하고 있었습니. 아이들이 온전할 수 있게 돼 다시 대학에

작품으로 봤을까' 하고 생각하게 됐지요. 그런데 대답은 'No!' 였어요. 그래서 오일 페인팅을 그만두었습니다. 내 작품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뭔가 한국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는 작품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6년쯤 방황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릴 때의 할머니 모습이 떠올랐지요."

-할머니 모습에서 작품 소재를 생각하셨다는 것인가요.
"4살 때 할머니와 같은 방을 썼는데 새벽녘 할머니의 바느질 소리에 잠을 깨곤 했어요. 그러다 옆에서 바느질과 수놓는 것도 배웠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내 버선에 빨강 꽃을 수 놓는 것이었어. 나는 이내 '할머니, 나는 노랑꽃을 좋아해요. 노랑꽃으로 놓아주세요' 했더니 할머니께서는 '여기서는 빨강꽃으로 해야 한다. 네가 아름답고 튼튼하게 자라야 한다는 뜻이야' 했더니 말이 기억났지요. 당시 할머니들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하셨는데 수를 통해 뜻을 전달하는 제주가 있었습니. 그 때는 몰랐는데 할머니에게는 그게 하나의 언어이고 드로잉이라는 사실 말이지요. 그 때부터 실로 드로잉을 만들어 내 아이덴티티가 묻어나올 수 있는 작품에 치중해야겠다는 결심이 섰어."

-1999년 캔자스 시티의 Sharlotte Street Fund Fellowship Award를 받았는데요.
"그 때가 제 작품이 한 차원을 넘는 계기였습니. 저는 전통미술을 떠나 자유를 얻어 하고 싶은 창작생활을 하게 됐습니. 그리하여 작품 '베갯잇 이야기'를 만들게 됐고 그 후 행주 앞치마 등 여성들이 매일 쓰는 물품을 작품화시켰습니. '베갯잇 이야기'는 맥과 진흙으로 여인의 여러 가지 모습, 어머니로서, 가정주부로서, 하나의 자라나는 화초로서, 손과 발이 많이 달린 거미로서 추상적이며 Symbolic하게 변형된 여인의 모습을 화선지에 그린 후 표구 대신 수를 놓아 장식한 베갯잇에 꿰매붙여 8점의 베갯잇을 전시장 벽에 설치해놓았습니. 이 작품이 미술 평론가들에게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어요. 그 후 점차적으로 바느질하는 실이 내 작품의 중요한 재료가 되었지요."

-한지와 린넨 천, 바느질 다리미 깎개를 비롯한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재는 무엇이든 재 활용되고 있어요. 벗어나서 말리고, 김고 풀 먹이며 벽에 붙이고 거는 작업이 모두 예술 세계의 근

←이민 48년만인 지난 해 오계숙 동문 부부가 함께 촬영했다.

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비엔날레 금메달 수상 작품도 그런 이미지인가요.
"당시 작품이름이 'Apron' 이었어요. 말 그대로 앞 치마를 벽만큼이나 크게 만들어 구멍을 많이 내고 거기에 갖가지 한국적 여성의 이미지를 소묘(素描)함으로써 표출되는 온갖 이미지가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구멍을 통한 광선이 벽면에 반사됨으로써 추상적인 환영의 이미지를 묘사하

어는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죠. 또한 이 바느질 실이 앞으로 어찌 발전될 것인가 하는, 나의 Creativity에 대한 호기심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각자 독특한 재질과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재질을 조속히 파악해서 발전시키고 개발해나가는 것이 자신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랄까요."

-재질과 소질이 있더라도 환경의 제약이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렇습니. 저도 아이들 양육 때문에 그렇게 한동안 공백기간을 가졌지요.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도 자신의 목적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편집주간>
오계숙(Ke-Sook Lee) 동문은

▶1963 모교 미대 졸(응용미술). ▶1966-1967 Univ. of Missouri, Post Graduate Study in Drawing ▶1982 Kansas City Art Institute, second B.F.A. in Painting ▶1988-1990 Kansas City Art Institute Adjunct Instructor, Mixed Media Drawing

<Selected Exhibitions> ▶1990년 이래 개인전 19회 그룹전은 1999년 이래 60여회 ▶2012-2013 Pennsylvania Academy of Fine Arts Museum, PA(Linda Lee Alter Collection of Art by Women Traveling exhibition)

<Selected Awards> ▶2010-Charlotte Street Foundation Rocket Grant, funded by Andy Warhol Foundations ▶2004 Kansas Artists Commission Fellowship, Individual Artist Grant, KS ▶2003 First Place Gold Medalist, New Media and Installations, 4th Biennale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lorence, Italy ▶1999-Charlotte Street Foundation Fellow, Individual Artist Grant, Kansas City, MO

<www.ke-sooklee.com >



↑오계숙 동문의 지난 2009년 작품 '앉아 등'이다. 어머니로서, 가정주부로서, 한 여성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소묘한 추상적 드로잉이다.

어는 정도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죠. 또한 이 바느질 실이 앞으로 어찌 발전될 것인가 하는, 나의 Creativity에 대한 호기심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각자 독특한 재질과 소질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재질을 조속히 파악해서 발전시키고 개발해나가는 것이 자신에 대한 의무이자 책임이랄까요."

-재질과 소질이 있더라도 환경의 제약이 많이 받게 되는데요.
"그렇습니. 저도 아이들 양육 때문에 그렇게 한동안 공백기간을 가졌지요.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도 자신의 목적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편집주간>
오계숙(Ke-Sook Lee) 동문은

▶1963 모교 미대 졸(응용미술). ▶1966-1967 Univ. of Missouri, Post Graduate Study in Drawing ▶1982 Kansas City Art Institute, second B.F.A. in Painting ▶1988-1990 Kansas City Art Institute Adjunct Instructor, Mixed Media Drawing

<Selected Exhibitions> ▶1990년 이래 개인전 19회 그룹전은 1999년 이래 60여회 ▶2012-2013 Pennsylvania Academy of Fine Arts Museum, PA(Linda Lee Alter Collection of Art by Women Traveling exhibition)

<Selected Awards> ▶2010-Charlotte Street Foundation Rocket Grant, funded by Andy Warhol Foundations ▶2004 Kansas Artists Commission Fellowship, Individual Artist Grant, KS ▶2003 First Place Gold Medalist, New Media and Installations, 4th Biennale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lorence, Italy ▶1999-Charlotte Street Foundation Fellow, Individual Artist Grant, Kansas City, MO

<www.ke-sooklee.com >



←이민 48년만인 지난 해 오계숙 동문 부부가 함께 촬영했다.



Justin Kim 후원 기자회견과 후원의 밤

“우리의 아들을 꼭 의회로 보내자”

<면에서 계속>오늘 밤 저는 이 후원만찬을 마련해주신 서울대 동창회 가족분들에게 무한한 감사사를 드립니다” 라고 말했다. 동문들은 “우리의 아들을 꼭 의회로 보내자” 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김원일씨의 신명나는 판소리와 절창고 공연(아래 사진 왼쪽) 뒤에 이미 동포사회에 위치를 확실하게 각인시켜주고 있는 동문 보컬 그룹 Curly Fries(아래 사진 오른쪽)가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켜주었다. 다음은 이날 Justin Kim의 인사말 내용 전문이다. <편집주간> Good evening, and thank you for the kind introduction. Before I start, I want to say a few words about today’s commemoration of Sa-I-Gu. I saw the LA Riots through the eyes of a twelve-year-old-although I lived sixty miles away from South Central, I remember that as a child I was gripped by fear that the riots would spread into my hometown. While I did not then fully comprehend the gravity and depth of how the riots seared and shook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among us are those may have lost family, friends, and their livelihoods in the riots. Twenty years later, we still struggle with some of the same issues disenfranchisement and injustice in the midst of another recession. This is a challenge we must confront together. Tonight, I am deeply grateful to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family for organizing this dinner. I am a proud produc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s commitment to excellence, and without the op-

portunities it opened to my father, I would not be standing before you today. I imagine that is also true for many of you who are here tonight. Seoul National University is one of a handful of global educational institutions to have left a meaningful mark through its alumni in the United States. I am so proud to have this as part of my family background. Many of you, like my parents and other first-generation immigrants, worked hard to establish roots and to give my generation great opportunities for success. Education opened new doors and a new world for my mother and father, and they were intent on making sure that my sister and I understood and respected the importance of our education. After having reflected on the struggles of my parents and their successes in immigrating to this country and establishing a new life, I am humbled by what progress they have worked for in their lifetimes. As a second-generation American, I have only known life in the United States. I am fluent in the language and life of this country. While I share a strong identity of being Korean from the household and church community I grew up in, I will never struggle to fight for survival in the way that my parents and grandparents. But I want to honor the hard work and sacrifice of our parents, serve and strengthen our community and neighborhoods in this great country, and build a brighter and fairer future for

↑ 기자회견장에서 구첵회 후원회 총무, 서치원 남가주 동창회장, Justin Kim, 홍명기 이사장 →오른쪽 셋 사진 중 Justin Kim의 왼쪽은 부친 김진식 등문과 여동생 김희선(Loma Linda Medical School Ph.D 과정중). 아래 사진은 이날 자리를 함께 한 LA지역 미주 동문들 모습이다. 동문들은 한결같이 “Justin Kim의 의회 진출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our children. That is why I am running for Congress. There are almost 2 million Korean Americans living in the United States. One estimate indicated that more than 150,000 businesses are owned by Korean Americans. Asian-Americans represent more than 5% of the population. Asian-Americans make up 20% of medical school graduates and almost 25% of dental school graduates each year. But in Congress, only 2% of representatives are Asian-American. There are decisions being made each day and in each election that will broadly affect our lives and our children’s futures. As an American, I want to help make those decisions for the future of our country-so that the country that will continue to be the land of opportunity, security, and freedom for future generations. This is why I am running for Congress. This is why my campaign worked hard to collect more than 2000 signatures for our initial petition to get on the ballot-far more than any other candidate. This is why we are working to identify strong supporters and put up lawn signs in their yards to expand our reach to many more voters and show them that there are Americans who are their



neighbors that stand behind our campaign. This is why we purchased space for a statement in the official Voter Guide that is sent out to every one of the 300,000 registered voters in the district and will soon send out a separate major direct mail piece to almost 90,000 likely voters in the district. And finally, that is why I’ve been going door to door in communities throughout the 31st District, spending more time than any of my major opponents to reach and excite new voters. This isn’t easy work-sometimes, the people I meet are frustrated and angry because of the difficulties they have faced in their life. But hearing both the ex-

citement and the frustrations of voters is important both in campaigning to turn votes and in governing and representing our communities in Congress. This is also why I need your financial support tonight. So far, we have been able to do what we needed but there is much more that we want to do. 37 days remain before the primary and we hope to send out 3 or 4 more mailers to voters. What we are able to do in these closing weeks, and how we are able to reach hundreds of thousands of voters will depend on your generosity and support. I hope you will see this as an essential opportunity for our community and our country. Thank you.***

Justin Kim(김성섭)은 김진식(공대 66)·양태숙 부부의 장남으로 캘리포니아의 Loma Linda에서 태어나 북가주의 명문 Pacific Union College에서 Chemistry·Business·History and Government를 전공 Suma Cum Laude성적으로 졸업한 뒤 Yale Law School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다. 그 후 연방법원 Riverside 지부에서 1년간 판사법서기관을 지내고 연방 법무부에서 검사(서부지역 세금관련 민사 담당)로 5년간 일했다. 그 뒤 2년간 연방 상원 탄핵위원회의 장 Senator Clire McCaskill의 법률 자문 및 연방 하원 정부 개혁위원회 의장 Congressman Elijah Cummings의 법률 자문 등으로 Congress에서도 일해 입법부·사법부·행정부에서 두루 일해 본 독특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정치 입문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와 31지구(Loma Linda·Redlands·San

Bernardino·Fontana·Rancho Cucamonga·Upland)에서 출마했다. 이 지역은 지난 2008년 통과된 Proposition 11(The Voters First Act)에 의해 연방하원 디스트릭가 Citizens Commission으로 새로 그려져 이번 선거부터 치러진다. 또한 이전의 정당대표를 뽑는 예비선거가 이번부터 처음 Open Primary제도가 시행되는 두가지 요인에다가 출마자 중 가장 뛰어난 학력과 경력으로 당선 가능성을 크게 하고 있다. 다만 Justin Kim은 현재 선거 운동에 드는 자금 부족으로 동문을 비롯한 동포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라고 있다. 후원금은 Checks Payable to ‘Justin Kim for Congress’ P.O.Box 670 Loma Linda, CA 92354. 문의는 909-936-6388(김진식)로 하면 된다. 기부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로 현찰인 경우 \$100, 개인 수표는 1인당 \$5,000이 한도다.***





필라델피아 동창회

‘새봄 음악회’ 대성황 이취

필라델피아 동창회가 지난 4월 14일 주관한 ‘필라 새봄 음악회’가 대성황을 이취했다. 블루벨 몽고메리 커뮤니티 칼리지 사이언스 센터 시어터에서 열린 이 음악회에는 400여 명의 동문들 가족과 동포들이 참석했다.

1·2부로 나누어 열린 음악회에는 음대 동문 소프라노 이인영·유미영·김성지·심희진, 메조소프라노 정주연·김미순, 테너 윤길웅·양인준, 지휘 박혜란, 첼리스트 유지연, 바이올린 남철우 동문 등이 8곡의 오페라 곡과 10여 곡의 한국 가곡·민요 등으로 화려한 무대를 장식했다.

또한 우정출연으로 바리톤 한준희·최현욱, 반주 백운학·김덕규, 장구 박선영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솔로 독창과 혼성 솔리스트 앙상블 등 다양한 형태의 콘서트를 구성해 관객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이들은 수준 높은 연주를 선보이며 새 봄의 정취와 함께 청중들을 환상의 하모니



↑필라델피아 동창회 ‘새봄 음악회’를 마련한 관계자들이 공연이 끝난 뒤 모여 기념촬영했다. →류판동 학장 초청 관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뒷 줄 왼쪽으로부터 전무식(수 61)·지홍민(수 61)·김현영(수 58)·오연각(수 53)·민홍식(수 60)·이만택(의 52)미주 재단 이사장, 류판동 학장(수 75), 조정현(수 58), 앞줄 왼쪽으로부터 주기묵(수 68) 필라델피아 동창회장, Mrs(민홍식·지홍민·김현영·오연각·조정현)

세계로 빠져들게 한 것이다. 특히 우리 민요를 우리 가락의 복 장단에 맞춰 혼성 솔리스트 앙상블로 연주해 동서양의 조화로운 음률로 선보이기도 했다.

관객들 중 한 동문은 “특히 마지막 순서 즈음에 400여 명의 관객 모두가 일어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을 합창

할 때는 눈시울을 붉히며 격한 감동에 젖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필라 동창회 주기묵(수의대 68)회장은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잠시 잊고 마음을 순화하며, 동포들이 화합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마련했다”며 “음악회를 위해 수고해준 동문 연주자들과 동문 회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



사드린다”고 말했다. “이민생활 중 10년 만에 음악

회 관람을 했다”는 한 40대 부부는 “젊은 시절 음악회를 찾아 다니면서 여유를 즐겼던 시절로 돌아 온 것 같았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이런 음악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며 필라 동창회에 대한 고마움을 밝혔다.

모교 수의대 류판동 학장, 필라 동창의 방은

필라동창회는 모교 수의대 류판동 학장 미국 방문 환영 행사를 가졌다.

류판동 학장은 지난 4월 20-26일 Michigan State Universit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Lansing, Mi. 행사 참석차 방문과정에 필라 동창회 초청으로 오게 된 것이다.

세계 수의학을 선도하는 수의대 발전 계획을 세우고 선진화하기 위해 미국 수의사 협회에서 미국 수의대를 대상으로 시설과 교수진 등을 인증하기 위해 사찰단이 각 수의대를 방문 조사하는 팀에 초청돼 합류하기 위해 방미 중 필라델피아 동문회를 방문한 것이다.

모교 수의대에서는 5개년 목표 AVMA Accreditation Processing 중으로 수의대 발전 방향과 비전에 대한 Presentation을 필라델피아 동창회 동문들을 위해 진행했다.

그간 발전기금으로 서부에서 박중수 동문과 또 한 동문이 각각 10만 달러를 쾌척했다.

동부에서는 지홍민 동문이 1만 달러를 지난 해 재미 수의사회를 통해 모교에 기부했다.

이날 류판동 학장과 동문들의 모임은 4월 18일 가야식당에서 가졌다.***

<주기묵 동창회장>



시카고 동창회

드루리 레인에서 이사회의 열어

시카고 동창회(회장 김영호)가 지난 3월 30일 Oakbrook의 Drury Lane에서 한의일 수석부회장 사회로 이사회를 가졌다. 김영호 회장의 임원진 소개 후 올해의 행사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영호 회장은 각 분과위원회위원·위원장 선출을 위한 추천을 받았고, 이사회가 위촉·위원장을 선출한 다음 동창회 각 분과 사업 계획 및 활동보고가 있었다.

▶Golden Club = 을 행사는 Seminar(2개월마다), 장거리 여행(Canadian Rocky), 단거리 여행(계획중), 조찬회(매월 첫 목요일).

▶장학기금= 잔고 \$82,000에서 현재 약 \$90,000. Main contributors are income from the Yonghoon Lee concert and

donation by 장학단 동문.

▶작은 그룹모임(한의일·박중회)= 취미가 같은 동문끼리 모이는 작은 그룹 모임을 시도해 볼 예정이다. 박중회 동문이

‘Opera방, 또는 Opera 동아리 총무를 자원했다. Lyric Opera(4 번, 공연 전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Opera에 관한 정보나 기타 흥미있는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날짜와 모임장소는 동창회 website에서 관(www.snuaachicago.com)에 올려놓을 예정. 다른 그룹을 Organize할 자원봉사 총무를 찾고 있으니 연락바란다.

▶Newsletter(김정수 동문/편집인 홍혜례)= 재미있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동문의 참여를 바란다.

▶세종문화회(Lucy Park 사무

↑시카고 동창회 회원들이 이사회 후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했다.

총장)= 제7회 세종 작문대회가 마감된다. 현재 1천600편의 수필과 시조가 접수됐다. 제3 회 국제 작곡경연대회는 6월 30일이 마감이다. 다음 작문경연대회 토픽은 이문열의 ‘우리의 일그러진 영웅들’로 결정됐고 이를 계기로 이문열 작가와 김성곤(문학평론가, 한국문학번역원원장)님을 초청해 학술심포지움과 강연회 등을 2013년 봄 주최할 계획이다.

▶한인문화회관(강영희 회장=Mrs김창만)= 다양한 상권 프로그램(강좌, 미술전 등)외에 특별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음대 동창의 음악의

한편 시카고 음대 동창회는 5월 26일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 음악회는 이소정, 김기봉, 나은실 동문이 주도하는 연례 행사로 주제는 ‘미래를 여는

음악회’다. 올해로 5년 째를 맞이하는 ‘미래를 여는 음악회’는 이 지역 동문과 가족들의 문화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음악회는 월령에 위치한 미국 교회(Our Savior Evangelical Free Church)에서 열린다.*** <김영호 동창회장>





남가주 동창회

패시픽 팜스 리조트서 순계 골프대의

남가주 동창회(회장 서치원 공대 69)가 지난 5월 5일 City of Industry의 Pacific Palms Resort에서 춘계 골프대회를 열었다.

월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가 개최되기도 한 곳이다. 100여 명의 동문들이 참여한 이번 춘계 골프대회의 본 대회 후 동문들은 인근의 뷔페식당(오사카)에서 시상식 겸 뒷풀이 행사를 가졌다.

로 진행된 뒷풀이 행사에서 서치원 동창회장은 "각자 바쁜 업무에도 이처럼 많은 동문들의 동창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번 대회는 예년과는 색다른 형식으로 꾸며왔다"고 말했다. 사회자 이원영 동문은 "수상자 트로피 등 과거의 화려허식적인 부상을 없애고 종목을 좀 더 세분화 해서 종래의 대회와 다른 특이한 '재미로 주는

←왼쪽 사진부터 시계방향으로, 뒷풀이 음식점에서 서치원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한 동문들의 기념 촬영. 서치원 회장의 시상식 장면. 가운데 흰 모자에 앉아계신 분이 최고령으로 참가하신 점형조(공대 45) 동문. 사회자 이원영 동문이 '재미있는 상'에 대해 유머러스하게 설명 중이다.

받았다. 이날의 시상 종목에 따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메달리스트= 김근(4 오버파)·손수용(5 오버파) ▶장타상= 박원복 ▶근접상= 박민식 <재미로 주는 상> ▶거의 출신원상= 정용덕(80야드 칩샷 홀인) ▶매너상= 박민식 ▶마이클 샌들상(정의상)= 하상원(라운딩 도중 습득한 립스틱을 끝까지 주인 찾아주려 고 보관하며 수소문) ▶돈독상=임향균(내기에서 선배들 돈을 싸쓸이) ▶섹시포토그래퍼상= 신혜원(내내 사진촬영으로 봉사) ▶골프인생 최악상= 성주경(20년만에 최악의 스코어를 기록) ▶5번 홀 단체 1등상=차은정·최용준·박민식 ▶5번 홀 단체 끝씨상= 최종혁·하상원·임향균·강신용 ▶물관리 실패상=서치원(사상 최저의 여성골퍼 참가)***



뉴욕 동창회 끝낸 클럽

이준행 회장 83회 생신기념 만찬

뉴욕지역 동창회 끝낸 클럽이 지난 3월 16일과 30일 20일 두 차례에 걸쳐 끝낸클럽 회원들과 함께 이준행 회장(옛 사진 왼쪽 가운데)의 83회 생신을 축하하는 조촐한 모임을 가졌다. 3월 16일에는 이준행 회장을 모시고 임호순·박봉영·손경택·정인식·송학린·최철용·이대영·조달훈·홍종만 동문이 참석했다. 이어 3월 20일에는 이규용(부부)·성기호·손경택·이대영·최철용·임호순·민준기·홍종만 동문 등이 참석해 이준행

회장의 생신을 축하하고 왕성한 클럽 활동에 대해 감사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남가주 상대 동창회

포모나 골프장에서 순계 골프대의

남가주 상대 동창회(회장 유병원 76입) 골프대회가 지난 4월 14일 Mt. Baldy의 Pomona골프클럽에서 열렸다. Sierra산맥 줄기의 아름다운 Mt. Baldy를 마주한 골프장은 경관이 수려한 곳으로 이름이 높다. 20여 명이 참가한 이날 김석기(56입) 동문은 "3년 전 병실에서 위암 수술을 앞두고 평소 동산을 자주 다니던 Mt. Baldy를 바라보며 '다시는 저 아름다운 산을 바라볼 수도 없을지

모르겠구나'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주무룩 흘렀는데 이렇게 회복돼 골프를 칠 수 있는 것이 꿈만 같다"고 말했다. 이날 양은혁(56입) 동문은 '한창 때 헨디가 25-26였는데 요즘 오히려 21정도로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이 아닌가' 한다는 평이 돌아 인기를 끌었다. 양은혁 동문은 이 사실을 입증하듯 눈부신 샷을 휘둘러(?) 이날 챔피언에 올랐다. 과거 교통사고로 증상을 입은

↑남가주 상대 동창회 동문들이 골프대회를 갖기 전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했다.

바 있는 김낙구(67입) 동문은 사고가 전혀 무색하게 경교한 샷을 앞세워 1등에 입상했다. 김기형(75입) 동문은 "학창때 상대·경영대·가정대가 함께 수학여행을 갔는데 남가주에서도 연 1회 정도 뜻이 맞는 단과대학이 같이 라운딩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챔피언=양은혁 ▶1등=김낙구 ▶2등=김석기 ▶메달리스트=김종국 ▶장타상= 이종건 ▶근접상= 김현수***

<새기획> My Journey to America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다!” <1>



김태환(문리대 60)
EMINI Haven CEO

지난 3월 3일 보교의 오연철 총장이 LA에 오셔서 미주에 계시는 동문들께서 이곳 미주 주류 사회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우리 동포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라는 당부를 하였고 환영회에 참석하신 거의 대부분의 동문들이 공감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총장님의 연설이 있길 전 식사를 하는 동안에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분들과 화기애애하게 환담을 나누는 가운데 제가 Harvard 대학교 신입생 면접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제게 그것과 관련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다가 제가 어떻게 39살에 Harvard Business School (Harvard 경영 대학원)에 합격해서 입학하게 됐는지를 설명해드렸더니 그 분들이 모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치사하시며, 그 얘기를 더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적극적으로 권유하셨기에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려 합니다.

▶무작정 미국행= 저는 1974년 3월 9일 저의 32살 생일 날 서울 김포 공항에서 NWA 비행기를 타고 소위 무작정 상경과 마찬가지로 무작정 미국행을 감행했습니다.

갑경을 거쳐 비행기를 바꿔 타고 미국의 첫발은 앵커리지에서 디디는데, 제가 계획한 대로 그 날도 3월 9일이었습니다. 날짜 변경선 덕분에 저는 제 생일 날 제 생의 제1기를 한국에서 끝을 맺고, 같은 날 미



국에서 제 인생의 제 2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많은 동문들께서는 더 젊은 나이에 유학이나 취업(의사 등의 종사자)으로 오셨을 것이나, 두 토막이 나고 좁은 곳에서 서로 아웅다웅하는 꼴을 벗어나 넓은 나라에 와서 세계 시민으로 뿔어나갈 요량으로 저는 미국이 '기회의 나라'라는 그 말 한 마디만 믿고, 실존이 넘는 나이에 용감히 찾아 왔습니다.

▶뉴욕의 출판사 취직= 이곳에서 잡은 첫번째 정상적인 직장은 뉴욕 시의 다운타운 처치 스트리트에 있는 출판사에서 저의 전공을 살려서(?) Yellow Pages에 나오는 분안의 교정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잡은 첫 직장이 영자지 (Korea Times & Korea Herald)였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배운 것이 교정 부호 등 교정(Proofreading)이어서 일하는 데는 별로 어려운 점이 없었으나, 급여가 적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일감은 많아 토요일엔 새벽 일찍 가서 자정까지 근무했고 일요일도 원하면 하루 종일 일할 수 있었으나, 일요일엔 쉬었습니다.

미국 업체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문구를 사용해서 기업 광고를 하는데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When Your House is Unbecoming, We Will Be Coming to You." 라는 집 수리 업소 광고입니다.

좀 더 나은 직업을 알아보았는데, Computer 계통을 하면 좋을 듯 해서 Control Data Institute 라는 비교적 큰 Computer 교육 기관을 찾아가 설명회를 들었는데 괜찮아보였습니다.

실명이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엔 "교육이 끝나면 취업율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는데, 그 분 대답이 "50:50"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000 이라는 거금을 들여 6개월 동안 교육을 받더라도, 취업율만이라도 높다면 해볼만 하지만 제가 안 되는 50%에 속한다면, 돈과 시간만 낭비하는 꼴이 되므로 이 Option은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4세에 미군 입대= 그러던 가운데 어느 날 저의 집사람이 '친구 남편이 미군에 입대했는데, 복무 중이나 제대한 다음에 Benefit이 좋다고 하면서 저더러 한 번 알아 보는 것이 어퍼나'고 넌즈시 제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었습니다.

←1979년 4월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 졸업식과 졸업 Reception에서 우등상 수여와 환송연이 있었다. 우등생들이 정렬하여 대기하는 가운데 필자의 우등 졸업을 축하해주기 위해 소속 부대에서 부중대장(X)이 참석했다.

이 때 가장 저의 마음을 끈 것은 GI Bill에서 나오는 장학금 혜택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뻘이 나가려면, 이곳의 학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통감했기 때문에 일단 가야겠다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 적어도 한 가지 기술(가급적이면 Computer와 연관된 기술)을 배울 수 있을 것이므로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3년 복무 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학교에서 배운 국제 정치학(Under에서 부전공, 대학원 1년 수료)과 남북 대화 사무국에서 근무하며 체감으로 익힌 바를 적용해서 이 문제의 정답을 유추했습니다.

여러 동문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꽤 쓰러지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월남전에서 쓴 맛을 보고 물러났는데 적어도 제가 근무할 동안에는 다시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리하여 1976년 4월 20일 New Jersey 주 남부에 있는 Fort Dix 신병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을 마치고, 늦여름에 North Carolina 주에 있는 Fort Bragg의 2nd Support라는 행정 지원 부대에 배속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34살에 군대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이 종전의 정병제에서 지원제로 바뀌었기에 가능하였고, 그 해말(1976년 12월 31일)로 GI Bill이 없었기 때문에, Now or Never의 선별의 기로에서 저 나름으로 결단을 내려 기회를 포착하고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컴퓨터 기술부서 원해= 중대장(대위)에게 신고를 하니, 그는 제게 "어떻게 미국 군대에 입대하게 됐나"고 물어서, "군에서는 월급을 주면서 기술을 가르쳐 준다 (Earn While You Learn 그 당시 Army Recruiting 광고의 Theme 이었음)고 해서 입대했으며 Computer Programmer가 목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 참 좋은 목표를 가졌구먼. 우리 부대 안에 Systems Analysts 가 모여서 일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곳에 배치해 줄 터이니 가서 일하도록 하세" 하면서 그곳 책임자에게 전화하고 저를 그리로 보내서 일하게 해주었습니다.

부대에서 근무하면서 보니까, 서울의 용산 미 8군 안에 Maryland University가 나와 있듯이, Fort Bragg 안에 몇 개의 대학이 분교를 설치하고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강의 신청= 군인이 현역으로 근무하면서 대학 강의를 들으면 정부가 수업료의 4분의 3을 보조해주고 본인 부담은 그 나머지인 4분의 1만 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로서는 제대를 하기도 전에 거의 공짜로 군에 있으면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셈이어서 한 번 시도하기로 작정하고 처음엔 한 과목만 들었으며, 별로 힘든 것 같지 않아 그 다음에는 두 과목을 등록해서 들



↑1979년 7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적십자회담에 필자가 남측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하고 귀환하는 도중 개성에서 선속교를 방문했다. 당시 개성사람들이 모두 서울 말씨를 사용해 친근하게 느껴졌다. 그 해 말까지 남북회담 사무국 외신담당관으로 2년간 근무 후 사직하고, 다음 해 3월 9일 32살 생일 날 한국을 떠나 기회의 나라 미국에 발을 내딛었다.

었으며, 차츰 과목 수를 늘려나갔습니다.

등록 신청은 정부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중대장의 승인이 필요한데 한 번은 중대장(새 중대장임, 전임자는 타 부대로 전출)이 "과목 수가 너무 과하지 않느냐"고 우려의 뜻을 표하기에 저는 "I can handle them, Let's see what happens. If I don't make it I will reimburse." 라고 답해했습니다. 정부의 요구 조건은 C 학점을 못 받는 경우에는 정부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근무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저녁을 먹고, 부대 안에 있는 Fayetteville State University의 분교로 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분교에서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엔 Fayetteville 시내에 있는 Main Campus로 가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는 왜 일요일에는 수업을 안하는지 혼자 투덜였습니다. (그 당시 North Carolina는 일요일엔 술도 안 파는 Blue State였는데, 학교 수업이란 일요일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주야 근무 교대로 수강= 저는 제대하기 전에 졸업장을 따는 것을 목표로 삼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닥쳤습니다.

즉, 그것은 고학년(Junior, Senior) 과목은 분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목을 들을 학생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 분교로 가야만 Upper Level Courses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제가 근무를 저녁이나, 밤에 해야 하는데 그 당시엔 저는 14th Data Processing Unit에서 Computer Operator로 근무했으며, 3교대로 근무하는데 지만 계속 저녁이나 밤 당번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허용해줄 리도 만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감천이라고, 이문제가 쉽게 풀렸습니다. 어느 날 중대 게시판을 보니 SP(Security Police) Volunteer를 뽑는다는 광고가 붙어 있었

습니다. 근무 조건은 저녁번과 밤번을 교대로 하며 경내를 순찰 하는 것이었습니다.

2인 1조로 근무하는데, 한 명은 Jeep을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은 본부와 무전기로 연락을 하고 근무 일지를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운전을 싫어하고, 미국어들은 Paperwork 작성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개들이 주로 운전을 담당하고, 제가 통신과 일지 작성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편리하게 Partner로 재미있게 일하고 근무가 끝나면, Fayetteville 분교로 가서 Upper Level Courses를 듣고 졸업에 필요한 전 과목을 이수하여, GI Bill 혜택은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제 2의 대학 졸업장을 군대에 근무하면서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6개월로도 우등생 졸업= 저는 군 복무 3년 가운데 기본 훈련(Basic Training), 교육(Computer Operator Course at Army Administration School in Indianapolis), 야외 훈련, 집안 어르신 장례 참석차 한국 방문 등 약 6개월을 뺀 2년 6개월 동안에 90학점을 이수하고 GPA 3.8로 우등생(Magna Cum Laude)으로 졸업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면 Full Time Student로 인정해주는데, 저는 현역으로 군에 복무하면서, 제일 많이 했을 때에는 한 학기에 27학점을 따기도 했습니다.

시골 학교였기 때문에 좋은 회사들이 Recruiting 하러 오지는 않았으나, 다행히 정부 기관에서 선발하러 오는 것을 알고 신청해서 3군대에 선발이 됐는데, Bank Audit Agency, IRS와 Defense Audit Agency였습니다.

▶취직원으로 이주= 근무지가 IRS는 Fresno, California 이고 Defense Audit Agency는 San Jose, California 였습니다.

그러나 Bank Audit Agency는 Washington, DC 이므로 다른 데는 이름을 처음 들어보지만 Washington은 미국의 수도이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어서, 그러로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계속>

“동창회보를 읽고...”



정원훈(상대 38)

동창회보 지난 3월호는 오연천 총장의 특별 강연회가 그 문을 열었다.

▶오연천 총장 강연= 문리대 70년 입학의 오 총장은 한덕수 대사 등과 동갑내기, 모교 대학원 교수로 근 10년을 봉직한 베테랑이다. 모교의 법인화에 즈음해 그 비약적 발전 방안 모색에 전력투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인으로서의 Honor, 한국인으로서의 Pride, 서울대인으로서의 Honor”로 길을 열어가자고 한다. 인내와 나눔의 마음으로 모교를 이끌고 나간다는 그의 노력이 성공할 것으로 믿어 마지 않는다.

남가주 동창회의 2012년 정기 총회와 회장 이취임식 소식이 실렸다. 한종철 동문의 뒤를 이어 서치원 동문이 새 회장을 맡았다. 2012년 회장단 수석 부회장은 김상찬(문리대 62) 동문이다.

이번 동창회보는 총 32쪽 중 20쪽이 기사다. 그중 2쪽을 압에 대해 할애했다. 계속되고 있는 연재로 압이 얼마나 큰 무게로 다뤄졌는지 알 수 있다.

▶압 특집= 압 칼럼을 읽는 동안에 필자와 같은 문외한이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들에 부딪힌다. ‘면역요법’, ‘일반식’, ‘생체식’, ‘역학연구’, ‘항산화’... 이런 낱말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면 칼럼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 박사의 기고는 압에 대한 지식을 엄청나게 Up Grade시켜주었다. 나는 아직 암환자는 아니지만 암이 내 삶에 있어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느껴지게 됐다. 식이요법, 규칙적인 약간의 몸 움직임, 그리고 웃음, 이들이 어거너머로 기우거리는 암의 균형을 제쳐놓고 살고 있는 것이다. 암과 같은 이 불을 뒤흔뜨키에 앞서 다른 공생자를 갖게 될는지 모른다. 노만성(老晩性)알츠하이머 그 늙이 바짝 달라붙고 있는 것이다.

MD앤더슨 암센터의 종신교수인 김의신(의대 66졸) 동문이 펴내는 암 센터 내의 활동 상황을 읽어가는 동안에 숙연한 감회를 금할 수가 없다. 암환자였던 1천600명에 달하는 Survivor 자원봉사자들이 헌신적인 봉사를 하고 있다. 이를 읽고 ‘성인(聖人)’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들이야말로 바로 현대판 ‘성인’들이 아니던가. 김 동문은 그 무리의 십장(什長)이다.

▶이달의 초대석= ‘이 달의 초대석’에 초빙된 전 국무총리 한덕수 동문은 ‘FTA대사’로 알려져 그의 공적의 인연을 엿

볼 수 있다. 한 동문의 자질은 말하자면 문무를 겸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주미대사 시절 벌어졌던 북한에 의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원안합적협, 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의 평화와 직접 위협을 당했다. 이런 사태의 압력이란 쉽게 헤어나가기 힘든 것이다. 한 대사는 이들을 넘어 더 큰 차원의 개발의 계기로 삼았다. 한미 동맹을 세계 평화 안정의 기축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그런 범세계적 인연을 잊지 않았던 한 동문의 탁견이 자랑스럽다.

▶Dr. Schofield 회고= 이기종(수의대 50) 동문의 Dr. Schofield 회고는 긴 기고문이다. 다 읽을 수 있을지 짐을 떠는 듯하다. 그러나 막상 읽기 시작하자 끌려들어가 멈출 수가 없었다. Dr. Schofield의 사람됨과 업적을 알게 된다. 겸하여 이 동문의 수의학계에서의 공헌에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 동문이 Canada 유학에서 떠날 때 Dr. Schofield가 자신의 옷장에서 스포츠 코트를 선사한다. 지금 같으면 그 멋진 스포츠 코트 차림의 이 동문이 카메라에 잡혔을 터인데... 공자님 같은 이가 있었기에 잊속만 차리는 이 세상이 바로잡혀 가는 것 같다.

▶핵 문제= 한국 원자력 통제

“암 특집은 암 지식을 훨씬 Up Grade시켜...” “범 세계적 안녕 위한 한덕수 동문의 탁견 자랑스러워” “박 변호사 같은 분을 찾아 가라... 동창회보 덕이다”

기술원장 장상구(공대 70) 동문의 ‘해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말씀은 시기에 맞는 기고다. 이 기사에 언급했던 서울의 안보 정상회담도 3월 말 열렸다. 오바마 후진타오를 위시해 G-20정상들을 망라한 모임이었다.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올렸다는 평이다. 그보다도 원자력이 통제되지 못하는 경우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몇 세기 밖에 남지 않았다. 인간이 세계지배 종말론이 공론(空論)이 아닌지도 모른다.

해무기 기사와 같은 쪽에 이상회(인문대 85) 동문의 ‘허리가 아파요? 조상맞아’ 기사는 커다란 두뇌와 두 발로 서서 걷는 인간에 관한 것으로 신선한 간식 같은 기고라 일독을 권한다. 이 동문은 현재 UC Riverside의 부교수다.

▶태극기는 김인수(사대 55) 동문의 ‘태극기의 정체성’은 우선 제목에 겁을 먹었다. 국가에 대한 무지에 대해 꾸중을 듣는 게 아닌가 했었다. 하지만 그게 아니다. 태극기의 기원과 뜻을 풀이해주고 있다. 깊은 뜻을 품고 있는 우리 국기다. 그러럼이 취미인 나는 그림을 그려 놓으면 한 구석에 태극기를 그려 넣게 된다. 태극기 만세!

정연진(인문대 81) 동문의 ‘나눔의 집에서 보낸 3.1절’은 일본군이 저지른 위안부 사

건에 관한 이야기로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애적에 닿한 수모를 잘 조명해줬다. 김순덕 할머니의 ‘꽃다핀 꽃’ 그림, 2007년 미국 하원에서 “일본은 사과하라!” 라는 의안을 통과케 한 혼다 의원 등 감동적이다. ‘위안부’를 ‘Action for One Korea’로 지향하겠다는 정 동문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원한다. 서경석(공대 67) 동문의 ‘달북난민 구출 네트워크 구성’의 자세한 설명은 반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종교단체를 비롯, 많은 단체들의 협력을 바란다. 아울러 동포들의 원조와 후원답지를 기대한다.

박취서(약대 60) 동문의 ‘한반도의 비극’은 지난 세기 동안 우리가 겪은 분단 사정을 잘 조명해주었다. 북 유럽이나 근동 지역이 지닌 것에 비해 장점도 없지 않아 보인다. 슬기와 용기로 당당한 우리의 남북통일이 이뤄지기를 기원한다.

▶법정일화= 변호사 박준창(인문대 79) 동문의 ‘법정일화’에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샀던 동포가 겪은 사극은 일화이지만 가끔 있는 잊비슷한 사례 같다. 다민족 대국에서 후배자가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짐수를 끌리는 타민족을 이길 수 있을까. 박 변호사 같은 분을 찾아가라, 동창회보의 덕이다.

▶이연행(문리 68) 동문의 ‘꽃의 성모’ 대성당 방문기에서 피렌체는 우리들에게는 좀처럼 찾아가기 힘든 먼 곳이다. 덕분에 메디치 가문의 14-15세기 건립

다. 이런 것이 세계 경제의 실상이란다. 세계은행의, 그리고 그것이 우리 동문의 말이라면 믿을 수 밖에.

▶북간도 문제= 뉴잉글랜드 윤상래(수의대 62) 동문의 주선으로 포항공대 박선영 교수 강연회가 열렸다. ‘간도의 우리’가 내용으로 원래 만주는 중국 땅이 아니라 러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거치면서 중국이 장악한 곳이다. 이곳은 우리 동족의 고향이다. 길림성(吉林省)은 말할 것도 없고 흑룡강 지역은 배달 민족의 ‘내 고향’인 것이다. 의세에 밀려, 특히 근자에서는 중국 세력에 밀려 입도 못 벌리고 있는 실정이다. 박 교수와 강연회 개최의 길잡이 역할을 맡았던 김은한(의대 60)동문에 감사의사를 표한다.

백순(법대 58) 동문이 워싱턴 여류 수필가협회에서 문학 특강을 가졌다. 주제는 Rita Dove의 시와 에세이였다. Dove는 1993-1995년의 재판시인으로 흑인 여성이다.

건강에 관해서는 최근 Oakland에서 있었던 양서명·정은 부녀 동문의 강의가 완전한 답의 일면을 보여준 것으로 느껴진다. 따남인 정은 박사는 치매예방을 목표로 기름진 음식 피하기, 하루 1만보 걷기 등을 추천하고 있다. 부친 양서명 동문은 연어·참치·브로콜리·해초·콩 등을 고루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농대 낙농학과 출신 김갑선 목사의 건강 세미나는 매회 400명이 넘는 참가자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인체에 대한 기본 원리를 잘 알고 음식이 좋고 나쁜 것을 깨닫게 되면 건강을 되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라는 것이 세미나의 주제다. 한데 그것이 아쉽 해를 보듯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등재=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크숍에 참가한 노정선·이정우 박사 등의 동정이 일반인들에게는 직접 감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부분의 개발이 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선도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성공을 바란다.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남가주 치과협회회장 하선호 동문의 포부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회원간 네트워크 강화, 커뮤니티 봉사 추진이 그의 목표다. 이를 위해 총영사관이나 여러 동포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발전을 기원한다.

미국 한인치과협회의 공로상을 받은 김효원 박사, 멕시코 대사관으로 영전한 최영안 영사, 더욱 영광스런 앞날을 기원한다.

서울대 병원이 뉴욕 사무소를 열었다. LA에 이어 미주에서는 두번째다. 2월 중순 LA사무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영자(의대 60) 동문의 NY 개인전은 3월 24일까지 1개월간 열렸다. 주제는 ‘Foggy’로

‘나는 지금도 안개 속을 걷고 있지 않은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고 한다.

서용선 화백은 NY개인전에서 ‘기억들, 그리고 타인과의 소통’으로 대변된다고 했다. ‘소통’이란 근자 한국의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이 피운 나팔꽃인 줄 알았다. 하나 이 말이 화가의 성문(聲門)을 뚫어나오고 보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 같다. 창작에 쏟아부은 고뇌에서 빠져 나온 신음이었을까. 먼저 본 윤영자 동문의 ‘Foggy’도 그런 것이 아닐까.

▶미국인 동문= 폴란드 태생의 파란 눈의 채리아(국계 대학원) 동문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것도 이미 8년에 이른다. 워싱턴 총영사관에서 재외 선거관리 일을 맡고 있다. 박정희 정권부터 된 중문동(1970-1980)까지의 대미 인식변화를 주제로 논문을 준비 중이다. 주제는 Rita Dove의 시와 에세이였다. Dove는 1993-1995년의 재판시인으로 흑인 여성이다.

건강에 관해서는 최근 Oakland에서 있었던 양서명·정은 부녀 동문의 강의가 완전한 답의 일면을 보여준 것으로 느껴진다. 따남인 정은 박사는 치매예방을 목표로 기름진 음식 피하기, 하루 1만보 걷기 등을 추천하고 있다. 부친 양서명 동문은 연어·참치·브로콜리·해초·콩 등을 고루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다.

농대 낙농학과 출신 김갑선 목사의 건강 세미나는 매회 400명이 넘는 참가자를 갖고 있다고 한다. ‘인체에 대한 기본 원리를 잘 알고 음식이 좋고 나쁜 것을 깨닫게 되면 건강을 되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라는 것이 세미나의 주제다. 한데 그것이 아쉽 해를 보듯이 쉽게 알 수 있는 것인지?

▶물론 등재=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워크숍에 참가한 노정선·이정우 박사 등의 동정이 일반인들에게는 직접 감이 가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이런 부분의 개발이 나라의 국제 경쟁력을 선도하는 것으로 느껴진다. 성공을 바란다.

창립 42주년을 맞이한 남가주 치과협회회장 하선호 동문의 포부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회원간 네트워크 강화, 커뮤니티 봉사 추진이 그의 목표다. 이를 위해 총영사관이나 여러 동포 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발전을 기원한다.

미국 한인치과협회의 공로상을 받은 김효원 박사, 멕시코 대사관으로 영전한 최영안 영사, 더욱 영광스런 앞날을 기원한다.

서울대 병원이 뉴욕 사무소를 열었다. LA에 이어 미주에서는 두번째다. 2월 중순 LA사무소는 샌프란시스코에서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윤영자(의대 60) 동문의 NY 개인전은 3월 24일까지 1개월간 열렸다. 주제는 ‘Foggy’로

고국 동문동정

수상

▲南興祐(경성제대 35-39 변호사)=지난 2월 2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池明勳(종교48-54 前 한림대 총장)=지난 3월 9일 한림대 한림과학원 일송기념사업회로부터 제7회 일송상 수상.

▲李益春(화학48-56 인하대 명예교수)=지난 3월 1일 재단법인 3·1문화재단으로부터 제 53회 3·1문화상 학술상 수상.

▲李相滿(수의학48-56 前 인천시 용진군 공수의)=최근 한국스카우트연맹으로부터 스퀘어드 옥성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무궁화금장 수상.

▲李時潤(법학54 ~58 법무법인 대륙이주 고문)=지난 2월 2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尹世榮(행정56-61 SBS 명예회장·본회 부회장)=최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평동 경기장에서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범국민 다짐대회에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에 기여한 공로로 체육훈장 청룡장 수훈.

▲朴相千(법학57-62 국회의원)=지난 2월 2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姜昌五(금속공학63-71 포스텍 석좌교수)=지난 3월 12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제16회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수상.

▲安京煥(법학66-70 모교 법학부 교수)=지난 2월 2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李榮柱(의학72-78 서울아산병원 암센터소장)=지난 3월 21일 제5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포장 수상.

▲許日燮(경영73-77 녹십자 회장)=지난 3월 16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4회 바이오스펙트럼 시상식에서 '올해의 인물상' 수상.

▲朴容晚(경영73-78 두산그룹 회장)=지난 3월 2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李承勳(의학74-80 국립암센터 대외협력실장)=지난 3월

21일 제5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동백장 수훈.

▲徐榮俊(제약77-81 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3월 19일 보령제약과 한국암연구재단이 공동 제정한 제11회 보령암학술상 수상자에 선정.

▲李相繼(화학공학82-86 KAIST 특목교수)=3월 27일 아시아인 최초로 미국화학회로부터 2012년 마빈 존슨상 수상.

▲趙顯五(대학원86졸 경찰청장)=지난 2월 27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4회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

▲金銀一(경제85-89 고려대 교수)=지난 3월 22일 '통화정책과 주택시장 버블' 논문으로 제42회 대경이코노미스트상 수상.

▲安德根(국제경제86-90 모교 국제대학원 교수)=지난 3월 8일 국제거래법 학회에서 수여하는 제5회 心堂(宋相現) 학술상 수상자에 선정.

▲朴社炯(경제86-90 모교 경제학부 교수)=3월 22일 '불완전한 사회적 감시를 통한 국제무역협정의 이행'이란 논문으로 제42회 대경이코노미스트상 수상.

▲張準根(기계설계86-90 나노엔텍 대표)=지난 3월 12일 한국공학한림원으로부터 젊은 공학인상 수상.

▲鄭允澤(AMP 53기 효성 사장)=지난 3월 2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盧喜燦(ACAD 33기 삼일방직 회장)=지난 3월 2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금탑산업훈장 수훈.

▲李康國(ACAD 63기 E-유로 대표)=지난 3월 21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39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 수상.

인사

▲李吉女(의학51 ~57 가천대 총장·본회 부회장)=3월 6일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발표한 '2012년 세계를 움직이는 여성 150인'에 선정.

▲全淑杓(언어56-60 상록문화정보연구소 대표)=최근 임기 4년의 사단법인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부회장에 재

선임.

▲千冀吉(농경제57 ~61 농업사회발전연구원 부원장)=

최근 농업사회발전연구원 총회에서 원장에 선임.

▲金聖基(농경제58-64 농협동인회 부회장)=지난 2월 28일 사단법인 농업동인회 회장에 취임.

▲宋相現(법학59-63 국제형사재판소장)=지난 3월 11일 임기 3년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에 재선임. 또 19일 유네프 한국위원회 회장에 선임.

▲權寧彬(사학61-65 前 경기문화재단 이사장)=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4대 위원장에 임명.

▲李哲永(상학63-68 ARK사모펀드·바슈룸코리아 회장)=최근 소시얼엔터프라이즈네트워크 초대 이사장에 선출.

▲秋昊卿(철학65-69 법률사무소 바로 대표변호사)=지난 3월 8일 출범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초대 원장에 선임.

▲李慶衡(사학66-70 헤이리 문화위원장·본회 본설위원)=지난 3월 31일 경기 파주시의 예술마을 에이리 제5대 이사장에 선출.

▲李元龍(건축66임 前 덕성여대 예술대 학장·본회 본설위원)=지난 3월 19일 덕성여대 학학 이래 최초의 석좌교수로 임용.

▲金振煥(법학67-71 법무법인 충정 대표변호사)=지난 3월 26일 대한공증인협회 회장에 선출.

▲尹載允(법학71-75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前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최근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에 선임.

▲徐正雨(지리74-78 前 한국회계기준원장·국민대 교수)=지난 3월 19일 한국인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위원에 선임.

▲安豪榮(외교75-79 駐벨기에·유럽연합 대사)=지난 3월 2일 외교통상부 제1차관에 임명.

▲廉明培(경제75-79 충남대 교수)=지난 4월 1일 임기 1년의 사단법인 한국재정학회 제28대 회장에 취임.

▲權在弘(식물77-81 MBC 뉴스데스크 앵커·보도국 선임기자)=지난 2월 22일 MBC 보도본부장에 선임.

▲尹汝權(경제77-81 前 미래기획위원회 단장)=지난 3월 20일 임기 2년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이사에 취임.

▲安健熙(법학78-84 이노션원드

와이드 대표)=지난 2월 27일 한국광고업협회 제18대 회장에 선임.

▲王允鍾(경제81-85 SK자이나 수석부총재)=지난 2월 28일 중국내 한국 경제단체인 중국한국상회 회장에 선출.

▲丁康讓(공법84~88 前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최근 서울 서초동 법률사무소 푸르메 대표변호사에 취임.

▲朴光武(행대원87 ~89 前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장)=지난 2월 22일 재단법인 한국문화회관 광연원 원장에 임명.

▲金宗圭(AMP 29기 한국박물관협회 명예 회장·삼성출판박물관장)=최근 임기 2년의 광화문문화포럼 제5대 이사장에 선출.

▲李元濬(AMP 69기 前 롯데백화점 영업본부장·롯데쇼핑 부사장)=최근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부사장에 취임.

▲金龍洙(AMP 69기 롯데상장·롯데홈 대표이사 전무)=최근 롯데제과 대표이사 부사장에 취임.

▲朴建鉉(AMP 70기 신세계백화점 대표)=지난 3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제19대 회장에 선출.

▲朴昌致(AIP 19기 현대산업개발 사장)=지난 3월 21일 서울 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한국주택협회 총회에서 제9대 회장에 선출.

▲朱範魯(HPM 2기 민주추진협의회 부회장)=최근 임기 3년의 新安朱氏 중앙총회 제11대 회장에 선출.

행사

▲申光淳(수의학52 ~56 모교 명예교수·한국식품안전협회 명예회장)=지난 3월 16일 서울 사당동 파스텔시티 3층 Xin에서 팔순 기념 회고록 '인크가 바랄수록 추억은 빛이 난다'(지상사)를 출판기념회 개최.

▲俞東濬(잠사56-60 先農會 회장·수원지부동창회장)=지난 3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초청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농정 현안·당면과제 논의.

▲李秉錫(회화58-62 한국미협 고문·서양화가)=지난 2월 25일부터 3월 16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전시회 개최.

▲李惠星(국어교육58-62 한국상담대학원대 총장)=최근 한국상담대학원대 첫 석사 졸업생 32명을 배출. 또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하는 상담센터 개원.

▲張明奉(행정63-72 국민대 명예교수·북한법연구회장)=지난 3월 29일 서울 태평로 뉴국제호텔에서 '북한의 기업소법 제정의 의미와 분석 및 평가'를 주제로 제175회 월례 발표회 개최.

▲郭贊浩(신대원69 ~71 한국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지난 2월 29일 6·25참전유공자회 성동구지회 운영위원회 대상으로 '19대 총선 제외국민선거 참여 현황' 특강.

▲金東奎(의학72-78 모교 신경외과학교실 교수)=지난 3월 12일 모교 병원 감마나이프센터에서 저서 '전이성 뇌종양의 치료' 출판기념회 개최.

▲李健宰(의학72-80 강원대 교수)=지난 3월 1일 공역사 및 편역자로 참가한 개론서 '스포츠영양학 2판'과 '대학생을 위한 스포츠 영양학' 출간.

▲李珉柱(회화76-80 삼실아트 대표)=지난 4월 2~13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문화갤러리에서 '共鳴筆線의 유희'를 주제로 초대전 개최.

▲권경희(기악93-97 피아니스트)=지난 4월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라벨, 베토벤, 슈만, 쇼팽 등의 작품으로 피아노 독주회 개최.

▲손치호(기악93-97 코리아안심포니오케스트라 부수석)=지난 3월 11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콘트라베이스 독주회 개최.

▲문수형(기악98-02 바이올리니스트)=지난 4월 14일 서울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베토벤, 사라사테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黃宗屹(조선항공 50졸 모교 명예교수)=3월 12일(84세)

▲高在君(농공학 51-55 모교 명예교수)=3월 10일(84세)

▲景在煥(법학 51-56 감사원 전 심의관)=3월 12일(81세)

▲姜泰雄(의학 51-57 전 원자력병원장)=3월 16일(80세)

▲林路圭(전기공학 52-56 원자력안전이카데미 이사장)=3월 3일(79세)

▲李弼鎔(광산학 62졸 하이메트 회장)=3월 23일(73세)

▲李萬淳(상학 57-63 前 금호엔터카 사장)=3월 13일(73세)

▲徐振錫(경제 57-64 前 화승그룹 부회장)=3월 24일(75세)

▲金正吉(작곡 58-62 모교 명예교수)=3월 17일(78세)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및 업소룩비·기타 후원금(*2011년 7월1일~2012년 5월 11일까지)

2011.7~2012.6월 동창회비

- ▶Alaska**
윤계중(농대 55)
- ▶Arizona**
김영철(공대 55)
박양재(약대 48)
유기석(문리 60)
정문필(사대 59)
지영환(의대 59)
진명규(공대 70)
최종태(공대 69)
- ▶California**
◀가정대▶
김혜인(가정 69)
제영혜(가정 71)
◀간호대▶
강정자(간호 61)
김영옥(간호 69)
김정혜(간호 69)
김현순(간호 69)
나정자(간호 70)
박순자(간호 60)
신경수(간호 54)
심진숙(간호 68)
오양숙(간호 60)
이명희(간호 67)
이영진(간호 77)
이종표(간호 69)
이호진(간호 74)
정인숙(간호 70)
정창동(간호 54)
최덕순(간호 59)
박영순(간호 69)
한혜순(간호 70)
◀공대▶
강길용(공대 46)
강중경(공대 48)
김기수(공대 74)
김만영(공대 53)
김상열(공대 57)
김원택(공대 66)
김진석(공대 78)
김희창(공대 57)
노명호(공대 61)
노상규(공대 60)
득교원(공대 66)
류대섭(공대 54)
문덕수(공대 73)
문인일(공대 51)
박우선(공대 63)
박원준(공대 53)
박홍근(공대 64)
손민정(공대 66)
신창순(공대 69)
손학식(공대 61)
신광재(공대 73)
양성문(공대 66)
양승문(공대 65)
- 윤용길(공대 55)
원광웅(공대 60)
이광재(공대 59)
이근원(공대 67)
이근호(공대 46)
이분상(공대 62)
이범식(공대 61)
이정호(공대 52)
이정화(공대 52)
이중희(공대 53)
이혜영(공대 56)
임창희(공대 73)
장기창(공대 56)
전철송(공대 51)
정규남(공대 52)
정동구(공대 57)
정동익(공대 57)
정우호(공대 64)
정진수(공대 56)
조경희(공대 69)
조종우(공대 45)
진청호(공대 65)
차기민(공대 85)
최승환(공대 53)
최왕욱(공대 69)
하기환(공대 66)
한의일(공대 67)
한호동(공대 58)
홍용복(공대 73)
홍정일(공대 59)
◀농대▶
김재영(농대 62)
박인수(농대 64)
방석훈(농대 61)
엄동해(농대 74)
◀문리대▶
이상대(농대 80)
이영식(농대 58)
이정일(농대 57)
전범수(농대 71)
최경선(농대 65)
◀문리대▶
고석원(문리 50)
권영재(문리 57)
김진진(문리 62)
김기태(문리 55)
김순길(문리 61)
김승원(문리 47)
김현호(문리 59)
민병길(문리 61)
민병돈(문리 61)
박문기(문리 46)
박준기(문리 68)
서영석(문리 61)
안광주(문리 58)
이연행(문리 68)
이원익(문리 73)
박우성(문리 72)
이정욱(문리 71)
- 임권빈(문리 61)
장동석(문리 66)
조태균(문리 59)
최인용(문리 65)
최재윤(문리 54)
◀의대▶
강정훈(미대 56)
김정옥(미대 61)
김영배(미대 61)
박은숙(미대 62)
신희정(미대 73)
원미량(미대 65)
신정연(미대 61)
이선화(미대 83)
임동규(미대 57)
◀법대▶
강동순(법대 59)
김성철(법대 54)
김석홍(법대 59)
김진기(법대 69)
김영현(법대 54)
김순길(법대 54)
김태윤(법대 53)
문병하(법대 51)
이기준(법대 54)
이서희(법대 70)
이재권(법대 55)
조성윤(법대 46)
◀사대▶
강신용(사대 73)
강신호(사대 49)
강진호(사대 61)
김수영(사대 57)
김영호(사대 56)
김희재(사대 66)
남장우(사대 56)
박영욱(사대 55)
박자정(사대 60)
박현숙(사대 54)
서동영(사대 60)
신혜원(사대 81)
윤성희(사대 58)
이기재(사대 52)
이익삼(사대 58)
이정근(사대 60)
전낙관(사대 60)
전성욱(사대 52)
전성대(사대 60)
정태부(사대 44)
조재길(사대 61)
조태욱(사대 60)
차중환(사대 56)
최복영(사대 54)
홍순택(사대 59)
◀사회▶
박우성(사회 77)
최경희(사회 83)

- ◀상대▶
강호석(상대 81)
김낙구(상대 67)
김동인(상대 56)
김병호(상대 57)
김윤수(상대 54)
김영서(상대 54)
김일평(상대 62)
김정민(상대 58)
김태호(상대 57)
김 훈(상대 74)
문병권(상대 47)
박의순(상대 53)
배석민(상대 71)
성주경(상대 68)
신대식(상대 60)
신영수(상대 70)
심상운(상대 54)
유진행(상대 47)
이광원(상대 59)
이명선(상대 58)
이승훈(상대 74)
이정광(상대 61)
김진기(법대 69)
김영현(법대 54)
김순길(법대 54)
김태윤(법대 53)
문병하(법대 51)
이기준(법대 54)
이서희(법대 70)
이재권(법대 55)
조성윤(법대 46)
◀사대▶
강신용(사대 73)
강신호(사대 49)
강진호(사대 61)
김수영(사대 57)
김영호(사대 56)
김희재(사대 66)
남장우(사대 56)
박영욱(사대 55)
박자정(사대 60)
박현숙(사대 54)
서동영(사대 60)
신혜원(사대 81)
윤성희(사대 58)
이기재(사대 52)
이익삼(사대 58)
이정근(사대 60)
전낙관(사대 60)
전성욱(사대 52)
전성대(사대 60)
정태부(사대 44)
조재길(사대 61)
조태욱(사대 60)
차중환(사대 56)
최복영(사대 54)
홍순택(사대 59)
◀사회▶
박우성(사회 77)
최경희(사회 83)
- 임정란(음대 76)
최애인(음대 51)
◀의대▶
강영호(의대 59)
구철희(의대 78)
김계윤(의대 57)
김기태(의대 52)
김일철(의대 64)
김영기(의대 58)
김익창(의대 49)
김지익(의대 45)
김현철(의대 57)
김홍서(의대 63)
나두석(의대 66)
박병원(의대 49)
이동성(의대 51)
박상문(의대 54)
이준식(의대 61)
이홍표(의대 58)
이희영(의대)
임용오(의대 59)
정수민(의대 66)
조동준(의대 57)
최 철(의대 68)
황동하(의대 65)
황성우(의대 53)
◀치대▶
고석규(치대 65)
김재중(치대 62)
민영기(치대 61)
박인하(치대 60)
박태호(치대 66)
백승호(치대 55)
부영무(치대 72)
신우식(치대 59)
윤희성(치대 65)
임희성(치대 59)
정대원(치대 74)
한정원(치대 55)
한중철(치대 62)
◀수의대▶
신정숙()
◀대학원▶
권기상(대원 72)
권대원(대원 55)
양광주(대원 58)
최무식(의대 66)
◀음대▶
권길상(음대 45)
김광은(음대 56)
김화영(문리 60)
김동석(음대 64)
김성혜(음대 71)
김정희(음대 55)
김창무(음대 68)
김윤범(의대 54)
김윤희(공대 66)
김일훈(의대 51)
김정주(문리 60)
고병철(법대 55)
구경희(의대 59)
권영재(의대 59)
- 노영일(의대 62)
문조준(약대 62)
민영기(공대 65)
박용순(의대 53)
배영실(의대 54)
사상현(의대 65)
소진문(치대 58)
송재현(의대 46)
신부식(치대 59)
신석균(문리 54)
심상규(상대 63)
안신준(농대 61)
양선희(음대 59)
오명자(간호 60)
유태중(공대 50)
이덕수(문리 58)
이동관(공대 75)
이소희(의대 61)
이승자(공대 60)
이영진(공대 76)
이윤모(농대 57)
이정일(농대 57)
이종일(의대 65)
이준우(치대 54)
임이섭(미대 54)
임연재(의대 59)
장기남(문리 62)
장시경(약대 58)
장윤일(공대 60)
장승훈(수의 83)
정영숙(사대 59)
조대원(공대 57)
조봉완(법대 53)
조 철(공대 49)
최이욱(간호 47)
최혜숙(의대 53)
한원중(수의 83)
한의일(공대 62)
한재은(의대 59)
함성택(문리 55)
- 제갈은(문리 59)
한기빈(공대 52)
한성수(의대 68)
황학상(의대 55)
- ▶Georgia**
김영서(상대 54)
김용진(문리 48)
김용자(사대 60)
김태형(의대 57)
박천기(법대 56)
박환식(문리 59)
방창모(문리 49)
안승택(상대 51)
양정자(간호 61)
이명재(상대 54)
이영진(공대 76)
인수암(공대 62)
임한용(공대 60)
장세문(상대 59)
정경근(농대 59)
정양수(의대 60)
정인태(의대 58)
정일화(상대 55)
진창진(의대 55)
최우백(공대 76)
최종진(의대 63)
- ▶Hawaii**
김창원(공대 49)
박창희(의대 52)
유재호(문리 57)
윤상철(약대 47)
- ▶Heartland**
구명순(간호 66)
- ▶Indiana**
임영신(의대 54)
하상태(의대 57)
- ▶Maryland**
강창욱(의대 55)
권기현(사대 53)
권철수(의대 68)
김병자(법대 52)
김승희(법대 55)
김진은(사대 58)
김창호(법대 55)
남옥현(경영 84)
도상원(의대 63)
박명영(의대 66)
박현수(상대 81)
석규범(문리 53)
소수영(간호 64)
안인욱(간호 71)
오혜원(약대 55)
우계형(상대 54)
이영수(공대 59)
이유세(사대 72)
이계승(의대 55)
이준영(치대 74)
- ▶Michigan**
권순관(공대 60)
권영조(의대 66)
남정희(의대 58)
오상현(의대 65)
이상일(의대 54)
이상길(의대 65)
이한중(의대 59)
유효명(의대 60)
육태식(의대 61)
윤호윤(의대 69)
정성순(음대 72)
정 대(의대 57)
조문희(공대 58)
차대양(공대 55)
하계현(공대 64)
- ▶Minnesota**
권학주(치대 59)
김권식(공대 61)
김영남(사대 53)
김태환(의대 58)
남세현(공대 62)
박인영(의대 69)
박정신(농대 60)
상옥진(치대 87)
이창제(문리 57)
왕규현(의대 56)
패트장() 60
- ▶Missouri**
김인수(사대 55)
김제호(상대 56)
김정하(의대 57)
노인규(의대 52)
박계원(문리 48)
박종진(의대 56)
오세경(약대 61)
유규호(음대 70)
윤상래(수의 62)
윤영자(미대 60)
이계신(공대 57)
- ▶Montana**
박노관(상대 51)
박용호(의대 59)
- ▶Nevada**
한민우(의대 69)
한태진(의대 58)
허선행(의대 58)
- 김영중(치대 66)
김택수(의대 57)
이 판(공대 55)
최영수()
최영식(법대 59)
한민원(의대 62)
- ▶Nebraska**
김명자(문리 62)
- ▶New Jersey**
강석권(법대 61)
고순정(간호 69)
고애자(사대 58)
곽상준(약대 55)
박준국(공대 61)
권오근(상대 58)
김규화(공대 63)
김세환(공대 55)
김양호(의대 51)
김원주(의대 54)
김윤수(상대 50)
김권식(공대 61)
김정혜(간호 64)
김창남(의대 62)
김현우(공대 56)
김호겸(법대 57)
김훈일(공대 67)
라준국(공대 40)
박성일(상대 58)
박성호(간호 57)
박승화(공대 69)
박진우(상대 77)
박태호(사회 76)
반영철(약대 54)
배병애(간호 49)
서정용(의대 63)
선우분혜(약대 68)
선우치민(약대 68)
송기인(의대 60)
송용철(농대 53)
신두식(의대 61)
신정택(약대 61)
연봉원(문리 61)
육순재(의대 63)
윤준식(법대 58)
이경림(상대 64)
이경태(공대 63)
이능석(의대 57)
이은순(의대 52)
이유관(의대 58)
이계원(법대 60)
이중현(법대 51)
이태형(문리 62)
이행순(미대 60)
정순기(문리 68)
조중원(수의 64)
최영태(문리 67)
최준희(의대 58)
최환선(공대 55)

*동문께서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Tax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ID No. 13-3859506
*동창회비를 비롯한 후원금은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의 기간이 됩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에 보내주시시오.
snuaausa@yahoo.com
총무국장 백옥자 (818-225-8411)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회계연도 2011년 7월 ~ 2012년 6월)

성명: 한글 영문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집주소: 전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e-Mail:

관악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룩 광고비	일반광고비	특별후원금
연\$200 <input type="checkbox"/>			명함크기(3.5" x 2") \$100 <input type="checkbox"/>	모교 발전기금 \$ <input type="checkbox"/>
연\$500 <input type="checkbox"/>	2011-2012년 \$75	2011-2012년 \$120 <input type="checkbox"/>	1/6면 (5" x 4.5") \$200 <input type="checkbox"/>	지부 분담금 \$ <input type="checkbox"/>
연\$1,000 <input type="checkbox"/>		디자인 명함1/2 \$200 <input type="checkbox"/>	1/3면 (10" x 4.5") \$400 <input type="checkbox"/>	중신 이사비 \$ 3,000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디자인명함크기\$500 <input type="checkbox"/>	1/2면 (10" x 6.7") \$600 <input type="checkbox"/>	
			전면 (10" x 13.5") \$1000 <input type="checkbox"/>	

보내실 곳: 1225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Fax: 310-515-7883 e-Mail: snuaausa@yahoo.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AAUSA'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Address No. Only Zip Pay to order of SNAAUSA

- ▶New York
 - 강영선(공대 58)
 - 김승우(사대 60)
 - 제동휘(치대 69)
 - 권영국(상대 60)
 - 김진언(외대 69)
 - 김경애(간호 64)
 - 김동진(약대 66)
 - 김봉경(약대 61)
 - 김석식(외대 58)
 - 김세중(공대 60)
 - 김영희(법대 60)
 - 김용술(상대 66)
 - 김은경(음대 62)
 - 김재경(간호 68)
 - 김경희(간호 69)
 - 김종원(상대 68)
 - 김진승(문리 53)
 - 김창수(약대 64)
 - 김현중(약대 63)
 - 김현찬(약대 60)
 - 노윤연(외대 49)
 - 류영호(외대 62)
 - 문길용(외대 45)
 - 문소자(음대 60)
 - 민발식(외대 60)
 - 민중기(공대 69)
 - 박수안(외대 59)
 - 박순영(법대 66)
 - 박찬영(약대 57)
 - 박현성(약대 60)
 - 방준재(외대 63)
- ▶Oklahoma
 - 이경숙(가정 70)
 - 이상강(외대 70)
 - 차봉희(외대 51)
- ▶Oregon
 - 김상민(음대 46)
 - 김상순(상대 69)
 - 김영자(간호 69)
 - 성성모(사대 67)
 - 이은철(문리 55)
 - 전병택(상대 66)
 - 정태훈(공대 68)
 - 최동근(문리 50)
- ▶Philadelphia
 - 김준철()
 - 김상진(음대 64)
 - 김영배(수의 59)
 - 김영우(공대 55)
 - 김용국(외대 58)
 - 김은옥(간호 76)
 - 김재술(약대 58)
 - 김태양(사대 61)
 - 남영선(공대 79)
- ▶N. Carolina
 - 마동일(외대 57)
 - 이석형(사대 58)
 - 정진호(자연 78)
 - 조동림(외대 52)
 - 한광수(외대 57)
 - 홍 훈(자연대)
- ▶Ohio
 - 김태웅(외대 61)
 - 김한교(문리 47)
 - 김현왕(공대 64)
 - 박 철(사대 55)
- ▶Texas
 - 강 Particia
 - 강영민(문리 58)
 - 곽노환(문리 46)
 - 김기준(공대 61)
 - 김영옥(가정 74)
 - 김영창(공대 64)
 - 김의선(외대 60)
 - 김정훈(공대 46)
 - 김진만(공대 57)
 - 김태호(공대 57)
 - 김훈복(사대 58)
 - 병인성(공대 50)
- ▶Utah
 - 김인기(문리 58)
 - 박정일()
 - 정석화(대원 66)
- ▶Virginia
 - 강연식(사대 58)
 - 김기봉(공대 63)
 - 김병철(공대 60)
 - 박찬형(외대 56)
- ▶Washington DC.
 - 이창열(상대67)120
- ▶California
 - 강동순(법대59)200
 - 김동석(음대64)200
 - 김영서(상대54)200
 - 김재홍(치대62)200
 - 김경희(음대56)200
 - 김종표(법대58)200
 - 노명호(공대61)1000
 - 박우선(공대63)200
 - 방석훈(음대55)200
 - 백옥자(음대71)200
 - 임동태(음대74)1000
 - 이기준(법대54)200
 - 이상우(문리72)200
 - 이홍표(외대58)200
 - 임찬빈(문리61)200
 - 정원훈(상대38)275
 - 지인수(상대59)500
 - 하기환(공대66)200
 - 한혜순(간호70)200
 - 현원영(사대50)200
- ▶Georgia
 - 김수상(외대47)1000
 - 구경희(외대59)200
 - 김계규(공대60)200
 - 김윤범(외대54)200
 - 송순영(문리52)1000
- ▶Michigan
 - 정 태(외대57)425
- ▶Minnesota
 - 김영남(사대53)325
 - 김태환(외대58)200
 - 왕규원(외대56)200
- ▶Illinois
 - 이우락(공대48)500
 - 한원준(수의83)500
- ▶Connecticut
 - 김기훈(상대52)200
- ▶Georgia
 - 정일화(상대55)500
- ▶Hawaii
 - 김창원(공대)200
- ▶Heartland
 - 구명순(간호66)200
- ▶Maryland
 - 강길종(약대69)200
 - 강장욱(외대55)200
 - 권원수(외대68)200
 - 남옥현(상대84)120
 - 이태영(법대60)500
 - 전정철(공대55)200
- ▶Massachusetts
 - 김제호(상대56)200
 - 윤상대(수의62)200
 - 이재신(공대57)200
- ▶Michigan
 - 정 태(외대57)425
- ▶Minnesota
 - 김영남(사대53)325
 - 김태환(외대58)200
 - 왕규원(외대56)200
- ▶Utah
 - 정석화(대원66)200
- ▶New Jersey
 - 박태호(사회76)500
 - 백승원(외대73)200
 - 이운선(외대52)200
 - 조종현(수의64)200
 - 허선행(외대58)200
- ▶New York
 - 권영국(상대60)200
 - 권영대(공대69)200
 - 박찬영(약대57)200
 - 윤병하(음대80)200
 - 이만택(외대52)200
 - 이재진(외대59)100
 - 이진구(음대60)200
 - 이준행(공대46)1000
 - 임석태(대) 200
 - 최한용(음대58)200
- ▶Oregon
 - 김상순(상대67)225
 - 성성모(사대67)200
 - 최근영(법대63)120
- ▶Philadelphia
 - 김선운(문리53)100
 - 손재욱(가정77)200
 - 이기범(외대56)200
 - 이만택(외대52)200
 - 정정수(외대56)200
 - 주기복(수의68)200
 - 최종훈(공대61)120
 - 현재원(공대60)200
- ▶Texas
 - 김정훈(공대46)200
 - 전기주(상대60)300
- ▶Virginia
 - 강연식(사대58)200
 - 박상근(법대75)200
 - 박용걸(약대56)500
 - 이영덕(사대61)200
- ▶Washington DC.
 - 김동호(음대58)200
 - 김성일(치대63)200
 - 이영목(공대59)200
- ▶Chicago
 - 김영호(외대 71)
 - 민영기(공대 65)
 - 이소희(외대 61)
 - 신석균(문리 54)
 - 심상구(상대 63)
 - 임현재(외대 59)
- ▶Georgia
 - 김용권(문리 48)
 - 박한식(문리 58)
- ▶Maryland
 - 최경수()
- ▶Michigan
 - 이상길(외대 66)
- ▶New Jersey
 - 김호겸(법대 57)
 - 박성일(상대 58)
- ▶New York
 - 박승희(간호 69)
 - 이진구(음대 60)
 - 전병삼(약대 54)
 - 최석진(사대 58)
 - 한영수(외대 61)
- ▶Ohio
 - 최인갑(공대 57)
- ▶Oregon
 - 전병택(상대 66)
- ▶Texas
 - 강영민(문리 58)
 - 박준철(약대 63)
 - 신달수(공대 59)
 - 이정연(공대 60)
 - 전중희(공대 56)
- ▶Wa.DC.
 - 전병택(상대 66)

- ▶New Jersey
 - 박태호(사회76)500
 - 한영수(외대61)100
- ▶New York
 - 한영수(외대61)100
- ▶Maryland
 - 김승희(법대55)125
- ▶Virginia
 - 최준호(공대60)100
- ▶Washington DC.
 - 김동호(음대58)200
 - 김성일(치대63)200
 - 이영목(공대59)200
- ▶Chicago
 - 서치원 회장 3000
 - 김병수 회장 500
 - 지영환(외대59)100
 - 김사직 전회장1200
 - 김영호 회장 1200
- ▶Georgia
 - 박민희 회장 600
- ▶Heartland
 - 구명순 회장 600
- ▶NewEngland
 - 김병국 회장 1000
- ▶Philadelphia
 - 주기복 회장 1500
- ▶Oregon
 - 이석진 회장 300
- ▶Washington DC.
 - 윤석진 회장 600
- ▶California
 - 강동순(법대59)120
 - 강신용(사대73)120
 - 강호석(상대81)120
 - 권기상(대원72)100
 - 김경무(공대69)120
 - 김광철(음대59)120
 - 김병연(공대68)120
 - 김원철(음대70)200
 - 김원택(공대65)100
 - 김일영(외대65)100
 - 김재영(음대62)120
- ▶Colorado
 - 류광현(문리58)200
- ▶Georgia
 - 이영진(공대76)120
 - 최우백(공대76)120
- ▶Maryland
 - 남옥현(영역84)120
 - 이준영(치대74)120
- ▶Chicago
 - 김광철(음대59)105
 - 김병연(공대68)1000
 - 김일영(외대66)100
 - 박문규(문리68)1000
 - 박윤수(문리48)200
 - 오인환(문리63)100
 - 이병준(상대55)1200
 - 이재진(외대59)100
 - 최재원(수의66)500
 - 김희원(수의73)250
 - Justin Kim 1150
 - 한승철(치대62)100
- ▶Minnesota
 - 김태환(외대58)120
- ▶Nevada
 - 김영중(치대66)120
- ▶New England
 - 윤상래(수의62)100
- ▶New Jersey
 - 연봉원(문리61)120
 - 이정필(상대64)120
 - 이규섭(상대68)120
 - 최영태(문리67)120
- ▶New York
 - 김영중(치대66)120
 - 김영취(법대80)120
 - 김은경(음대82)120
 - 김창수(약대64)120
 - 박성남(사대76)120
 - 방준재(외대63)120
 - 윤병하(음대80)120
 - 이재진(외대59)100
 - 정진우(외대66)120
 - 조대열(공대61)120
 - 연봉원(문리61)120
 - 한영수(외대61)240
- ▶Ohio
 - 최인갑(공대57)200
- ▶Philadelphia
 - 서중민(공대64)100
 - 손재욱(가정77)120
- ▶Texas
 - 김정훈(공대46)200
 - 전기주(상대60)300
- ▶Virginia
 - 강연식(사대58)200
 - 박상근(법대75)200
 - 박용걸(약대56)500
 - 이영덕(사대61)200
- ▶Washington DC.
 - 김동호(음대58)200
 - 김성일(치대63)200
 - 이영목(공대59)200
- ▶Chicago
 - 서치원 회장 3000
 - 김병수 회장 500
 - 지영환(외대59)100
 - 김사직 전회장1200
 - 김영호 회장 1200
- ▶Georgia
 - 박민희 회장 600
- ▶Heartland
 - 구명순 회장 600
- ▶NewEngland
 - 김병국 회장 1000
- ▶Philadelphia
 - 주기복 회장 1500
- ▶Oregon
 - 이석진 회장 300
- ▶Washington DC.
 - 윤석진 회장 600

“미주 동창회가 7월 Alaska Cruise를 실시합니다”

7월 8~15일 7박 8일 북빙양 유적지 관람, 제21차 평의원 회의

미주 동창회(회장 김은중)는 7월 8-15일 '2012 Seoul National University Alaska Cruise Association' 을 실시합니다. 이 Cruise 여행에서는 제21차 평의원 회의와 특별 강연도 같이 개최됩니다.

<문의> ▶아주관광(박영준 실장 213-388-4000 Fax.213-387-1006 ▶미주 총동창회(백옥자 총무국장 818-225-8411)

날 짜	경 유 지	이 동	시 간	일 정
제1일(8일)	LA-Seattle	항공	~4PM	시애틀 항공집합.수속후 승선.점심은 선내 뷔페.오후 4시 출발.비상탈출훈련
제2일(9일)	인사이드 패시지	항해	하루종일	멋진 인사이드 패시지 항해.과거 인디언의 수송로.선상 각종 프로그램
제3일(10일)	케치칸	관광	6AM-1:30PM	과거 툴링깃족이 연어낚시로 여름철 머물렀던 곳. 세계 제일의 토타폴 전시
제4일(11일)	주노(알래스카)	관광	2PM-10PM	1880년대 골드 러시로 생긴 알래스카 주도.해안선의 거대한 피오르드,빙하 등
제5일(12일)	Skagway	관광	7AM-8PM	툰링깃족 언어로 Skagway는 '북풍의 집'.골드러시로 모여들었던 고도시 숨겨
제6일(13일)	글래스어베이	항해	하루종일	만년설과 빙하의 절경을 이룬 국립공원. 많은 섬과 항구. 피오르드 해안절경
제7일(14일)	빅토리아	관광	6PM-11:50PM	밴쿠버 항구도시. Sunken정원이 있는 부처드 가든 등 관광.여권 영주권 필요
제8일(15일)	Seattle-LA	항해	7AM	시애틀 크루즈 터미널 도착. 유람선 이른 조식.항공편으로 각 지역 출발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CA 남가주 건축/건설링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동(공대 58) (213)422-929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ACCU Construction, Inc.
엄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9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714) 213-8157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Sierra Padre Mill Co.(건축자재 생산)
임현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N. Vulcan Ave. Encinitas CA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Kim & Kang CPA's
(김경우 강경욱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8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석 공인회계사
* 신대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325-0400
2740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Kim & Youn A Prof. Corp
윤홍원 (사회대 81)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440 Wilshire Blvd. #807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홍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Kwang Hee Nam CPA
남광희(인문) 213-487-1686
3700 Wilshire Blvd #939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금융/은행/보험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Bank of America Home Loans
David H. Lee, CPA Mortgage
Loan Officer 이동하(경대원 82)
Tel (714)469-4584 (213)500-6458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리테일러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원 (대학원 74)
323-232-1700 901E. 31st St. LA. CA.90011

Fashion World 박의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
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진영(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동문 업소록을 제정비합니다”

동창회보의 동문 업소록은 동문들의 비즈니스와 그 내용을 여러 동문들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문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 11대 회장단으로 임무가 이전된 만큼 업소록 또한 새롭게 제정됩니다. 이 업소록은 앞으로 회기연도별로 제정비할 계획입니다. 업소록 게재는 최소 Box 사이즈 \$120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액수에 따라 Box크기도 달라집니다. 동문들께서는 23면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신청서' 를 참조하시어 원하시는 사이즈 별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snuausa@yahoo.com 또는 (전화) 818-225-8411 (팩스) 310-515-7883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yahoo.com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법대 58) 562-467-546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대형양상사)
하상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
임현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호텔/숙박업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LinkTV Media.
김원탁(공대 65) 818-768-5494
P.O.Box 1368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James Lee 부동산
이종묘(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영업자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영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우주개발

JAY H. CHUNG, Ph.D.
President & CEO
TAVCO ENGINEERING, INC.
Spacecraft • Aircraft & Missiles Advanced Systems Manufacturer
정재훈(공대 64)
10874 Hoeft Street • P.O. Box 8039
Cypress, California 90630 USA
Telephone 1 714 562-2246, Fax 1 714 562-2242
E-mail: jch@tavcoeng.com
http://www.tavcoeng.com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LA. CA 90004

청운장학회
오재민(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교육/상담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818-456-8022
18531 Gresham St. #204 Northridge CA 91324

이준배 교육상담센터
이준배(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A. CA 90019

AXA Advisors LLC
원영배(미대 74) 213-368-5707 • 3435
Wilshire Blvd. #2500 LA. CA 90010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A, CA 90010

Exxel Express
정복근(사대 69) (310) 515-5758
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정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보험/재경계역
S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서비스/자동차

A. P. 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9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
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
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학 /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65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94805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A. CA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l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정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Hills Animal Hospital
손수웅(수의대 60) 626-919-7661
1414 Azusa Ave. #B-13 W.Covina CA 91791

Glenoaks Animal Hosp.
최용준(수의대 81) 818-840-9700
2037 W.Glenoaks Bl. Glendale CA.91201

건축 컨설팅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광판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은행

Wilshire State Bank P.C.O.
유재환(상대 67) 213-387-3200
3200 Wilshire Bl. LA. CA. 90010

BBCN (Bank)
Alvin Kang 213-639-1700
3731 Wilshire Bl. Ste.1000 LA.CA.90010

Commonwealth Business Bank
조앤 김 (323) 988-3005
5055 Wilshire Blvd., #640 Los Angeles CA 90036

Hanmi Bank
행장 유재승 213-382-2200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Center Bank(중앙은행)
Richard Cupp 213-251-2222
3435 Wilshire Bl. #700 LA. CA. 90005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규(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A,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제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Mat's Pharmacy
정만영(약대 66) 626-791-7595 2750
E. Washington Blvd. Suite 150 Pasadena CA91107

KOAM Pharmacy(한미약국)
권광자(약대 62) 562-402-3636
18102 Pioneer Blvd. #101 Artesia CA 90701

K's Pharmacy
김진호(약대 64) 909-591-7420
12582 Central Ave. Chino Artesia CA 90701

벨리웨스트 약국
민병원(약대 68) 626-289-4343
1935 W. Valley Blvd. Alhambra CA 91803

Howard Drugs
심화설(약대 61) 562-866-5795
5818 N. Bell Flower Lakewood CA 90713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진호주 치과그룹
* 진호주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옴즈조 치과
** 옴즈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송(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최범식 치과
최범식(치대 56).....(213)381-1112
3421 W. 8th St. #1 LA. CA.90005

김경수 치과
김경수(치대 58).....(213)482-5462
1127 Wilshire Bl #1500 LA.CA.90017

김정 치과
김정(치대 59).....(714)641-2939
204 E. Waver #104 Santa Ana. CA.92707

Lim Dental Corp.
임화식(치대 59)
1211 N. Vermont Ave. #102 LA. CA 90029

한중철 치과
한중철(치대 62) 562-860-8544
11846 E. Carson St. Hawaiian Gardens CA 90716

김재종 치과
김재종(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lma Rowland heights CA 91748

최미혜 치과
최미혜(치대 62).....(213)386-4919
3000 W. Olympic Bl. #300 LA. CA.90006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조상우 치과
조상우(치대 64).....(310)637-6187
402 S.Long Beach Bl. Compton CA90221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Your Choi's Dental
최중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248-0124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중훈 치과
정중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신우식 치과
신우식(치대 59) (714)540-5151
2112 S. Bristol St. Santa Ana CA. 92704

김인권 치과
김인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범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207 LA.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조광제 치과
조광제(치대 82).....(562)696-3334
8330 Painter Ave. #B Whittier CA.90602

의료/내과/전문외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9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안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차민영(의대 76).....(213)480-7770
520S. Virgil Ave.#103 LA. CA. 90006

South Bay Cancer Center
나정자(간호 70)
310-978-4970 310-543-5327
14608 Hawthorne Bl. LA. CA 9026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대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용오(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1325 Via Del Reg. South Pasasena CA 91030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AHNN, WILLIAM, M.D
안병일(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냉장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중(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Dale Tiffany, Inc.(전기전등)
정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치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l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섭(농대 65) (714)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상점/트로피

한국트로피
박양종(문리대 61) 213-380-2775
3475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강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샬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토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리조트

Pyramid Lake RV Resort
이재권(법대 56) (213)725-3844
45100 Copco Ave. Gorman CA 93243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francisco CA 94104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의원/연약

이봉수 안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8 Stanton, CA 90680

식품/음식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장수장 Jang Soo Restaurant
310-327-9292
1404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마포 주물럭 Mapo Korean BBQ
Restaurant (310)679-3622
14609 S. Crenshaw Blvd. #102 Gardena CA. 90249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량동순두부 213-382-6660
이태로(법56) 1413 S. Vermont Ave. L.A. CA 90006

샌디에이고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84졸임) (858) 525-3222
4228 Conr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동원(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북가주

상담/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5년 전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혼율과 많은 초혼, 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과 동문지녀 특별할인 정자선(상대 50)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의료/전문외/치과/안의원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산부인과
황동희(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MD,VA 워싱턴DC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383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재산관리

IPM Woath Management
이태영(법대 60) (410) 777-8081 ex158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변호사 / 법률사무소

Moon-Park & Associates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x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성(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 / 중개업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엔지니어링 / 영공

Driveteck, Inc.
* 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수의학 / 동물병원 / 요직업

한익성(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옥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 / 내과 / 전문의 / 개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nda Office Building #406
Baltimore, MD 21211

도상철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8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it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종국 종합의료원
이종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민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x,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
658-3110 hanstravel.joanna@gmail.com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te U-L. Berwyn Heights, MD 20740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통일시대연구소
이종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FL 플로리다

리태일러 / 푸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미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FOB Synthesis Inc.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n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태일러/개업자

IV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 / 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언론

Korean World Times
오 성 (법대 76)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efield IL

이흥미 변호사
이흥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 / 중개업 / 개업장업

Green Realty, Inc.
김정필(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i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nnr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로알 부동산
영우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샐리 경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83

수의학 /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종(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712

의료 / 내과 / 전문의 / 개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춘우 치과
이춘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6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6 Skokie IL 60077

약원 / 문외약원

RFUMS / Chicago Medical School
김윤범(의대 54) 847-578-8847
3333 Green Bay Rd. N. Chicago IL 60064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65

MA 뉴잉글랜드

병원/수의학 / 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삼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JK Realty Trust 김제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MI 미시간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의료 / 내과 / 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운 심장내과 C. A. V. A
윤효운(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화(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Evis INC.
김권식(공대 61) 952-646-0238
10250 Valley View Rd. Suite 123 Eden Praire
MN 55344

Cardiovascular Division Univ. of Minnesota
Medical School
왕규현(의대 56)
420 Delaware St. SE. Mayo Mail Code 508
Mpls MN 55455

NJ-NY 뉴욕/뉴저지

건강

!! 암, 에이즈 !! 한인수(사대 73)영생건강 718-
762-08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도벌) 분리
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건축 / 설계

김세환 건축설계
김세환(공대 65) (732) 549-1616
3851 Park Ave. Edison NJ 08820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공인회계사

Sung N. Pak, CPA
박성남(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Edward CM Kang CPA
강충무(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Wesley Y. Chung CPA
정일화(상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9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50-13 Northern Blvd 2nd Fl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금융 / 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호근(문리 71) (201) 945-4692
21 Grand Ave., #805 Palisades Park NJ 07650

리타일링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Sons Pawnbrokers Co.
곽선섭(공대 61) (973) 345-0063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현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무역 / 종합영어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옥(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택(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영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중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사회사업 / 법인

Women In Need Center
무지개의 집 여성 임시쉼터
김은경(음대 82)
P.O.Box 540929 Flushing NY 11354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활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IBECONS Int'l
김재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순례 *전 지역 크루즈 투어 *고국 방문 및 아시아 투어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239-0988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t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 / 클리닝 / 장금장제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1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정민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hrysler Building Arcade NY

수의사 / 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보고타 골프센터
김난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인문 / 인쇄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무(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 / 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 / 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완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운송 / 유통 / 통관

Kiss Products, Inc.
김광호(문리 62)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혜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의료 / 내외과 / 전문의

이재진 심장내과
이재진(의대 59) 718-426-6464
37-24 75th St. Jackson Heights. NY. 11372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욱(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일반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boro NJ 08536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8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철 소아과
박범철(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육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범(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역(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홍(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용(의대 61)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의료 / 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i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의료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호(약대 5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계좌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량(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통교 / 교외

든든한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약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봉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안악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NV 네바다

의료 / 치과병원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edental.lv.com

애 오아이오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홍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의료 / 내과 / 전문의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OK 아틀랜드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OR 오레곤

* 엘림 한인교회
최근병(법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중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imothy Haa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회계사

Choi & Co., CPA
*최환(공대 68)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금융 / 보험 / 리타일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te. 150 Horsham PA

비영리법인 / 리타일 / 접객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의사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 (수의 60) (215) 8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흥민 (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욱 (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d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영민(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연약장 / 요사업

August Moon 연희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의료 / 내과 / 전문의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삼완섭(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양(약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목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의료 / 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약대 67) (215)-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의료 / 치과

김종규 치과
김종규 (치대 63) (215) 745 - 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김국간 치과
김국간 (치대 64) (215) 224 -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TX 유스틴

수의사 / 동물병원

심고 동물병원
이윤성 (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94

의료 / 내과 / 전문의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6

검수 / 시험 / 컨설팅

선박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원유개발 컨설팅
La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장의사

한국 장의사
조시호(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UT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Tour
박종수(공대 60) (801)263-8866
292 E.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WA 워싱턴주

서비스 / 기기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의료 / 개과 / 클리닉

박찬형 내과(혈액종양 분과)
박찬형(의대 62졸) 316-841-8635
22226 Cliff Ave. So.#304 Des Moines WA 98198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254-5900
217SE 136th Ave.Suit#101 Vancouver WA 98684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425-228-7446
947 Powe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컴퓨터 /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WI 위스콘신

Gundersen Clinic
윤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편집후기’

○... ‘서거’는 국가 원수에게 쓰는 말. 동문들께서 아주 원로나 큰 공적을 쌓으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존경심에서 ‘서거(逝去)’로 표기해오는 분들이 종종 있다. 그런데 ‘서거’는 국가 원수급이 돌아가셨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 그 외는 대개 ‘작고(作故)’ 또는 ‘별세(別世)’로 표기한다.
○... 신간 인내는 되도록 설명을. 동문들께서 서적을 새로 출간하는 일은 아주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우편으로 동창회 사무실로 보내오는 것은 신간 안내를 부탁하시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도무지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이 책만 달랑 보내오는 분들이 종종 있다. 이런 경우 책을 모두 읽어야 그에 대한 안내를 쓸 터인데 편집업무상 그럴만한 시간이 부족한 것이 흠이다. 신간 안내

는 반드시 축약된 내용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란다.
○... 글을 보내실 때는 꼭 사진을. 근래 글을 보내주시는 동문들이 상당히 늘고 있어 여간 만가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글을 보내시는 분은 꼭 얼굴 사진과 함께 단과대학과 입학연도, 연락처를 첨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다람쥐가 아닌 ‘칭설모’. 골프장에서 ‘칭설모(또는 칭서)’에 의해 귀중한 골프백을 물어뜯겨 큰 구멍이 생기는 일이 흔히 발생하고 있다. ‘칭설모(칭서)’가 골프백안의 스텝이나 초코렛 등의 냄새를 맡고 벌이는 것인데 대부분의 동문을 포함한 동포들께서 이 ‘칭설모’를 다람쥐로 잘못 부르고 있다. 칭설모는 동물 분류학상 ‘다람쥐과(科) 칭설모(칭서)’에 속하는 동물로 실제로 ‘다람쥐과 다람쥐’와는 다른 동물이니 참고하시기를...***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서치원(공대 69입) 310-719-5422 charliesuh49@gmail.com
	차기회장	김상찬(문리 66입) 714-396-0493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차기회장	
뉴욕	회장	김영만(상대 59입) 201-401-8977 ymkim730@gmail.com
	차기회장	김창수(약대 64입) 212-760-1768 changsookimcpa@hot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김병국(공대 71입) 781-367-5993 byungkim@yahoo.com
	차기회장	
달라스	회장	이 준(공대 73입) 469-235-6196 junelee41@yahoo.com
	차기회장	윤수경(음대 77입) 972-248-8811
특키 마운틴스	회장	표한승(치대 58입)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정은옥(간호대 75입) 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서정용(공대 81입)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차기회장	
시카고	회장	김영호(의대 71) 708-922-0748 fhcmUSA@g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yhoh@ratheon.com
	차기회장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입)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입) 503-317-5625 seokjin@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wonsong3140@aol.com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송상희(문리 71입) 703-483-0801, 503-0864 sanghois@yahoo.com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윤석진(문리 64입) 425-670-9067 sock@rocket.com
	차기회장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ytah.edu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박 민(음대 80입) 770-449-0000 minpakhg@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중부 텍사스	회장	이명재(상대 58입) 512-591-7739 267-992-1077 yjlee11023@yahoo.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회장	주기목(수의 68입) 215-990-8717 kmjoo47@yahoo.com
	수석부회장	김정현(공대 68입) 484-744-6785 dhk064@gmail.com
플로리다	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차기회장	
캐로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451 khk@ncu.edu
	차기회장	
하와이	회장	김용수(수의 75입)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하틀랜드	회장	구명순(간호대66입) 913-268-0228 chungmm@yahoo.com
	부회장	
휴스턴	회장	탁순덕(사대 58입) 713-984-2066 taksoond@yahoo.com
	차기회장	이호성(공대 72입) 281-877-65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광호(농대 62입) 604-250-0181 604-521-3009 khlee614@naver.com
	부회장	조석기(상대 71입) 604-688-4039 서명희(미대 71입)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820-8261 dalhousiedc@hotmail.com
	부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감수상(의) · 이병준(삼) · 오민석(법) · 이용락(공) · 오홍조(치) · 이명목(공) · 이진구(농)

명예회장 : 송순영(문)

제11대 회장 : 김은종(상)

차기 회장 : 오민환(문)

관악후원회 부회장 : 노명호(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성주경(상)
총무국장 : 백옥자(응)
재무국장 : 강호석(상)
사업국장 : 이경희(문)
설외국장 : 이상대(농)
강 사 : 김재영(농) · 박명일(농)
기금모금위원장 : 이종도(공대)
IT개발위원장 : 김병연(공대)

회보 임원

발행인 : 김은종(상)
상임고문 : 방석훈(농) · 김건진(문)
편집위원장 : 지민수(상)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조동준(의) · 박양중(문) · 김재영(농) · 나철삼(문) · 이종도(공) · 김지영(사) · 김성수(문) · 이현영(문) · 김중하(인문)

논설위원

김일훈(CH) · 김기태(LA) · 조동준(LA) · 최용완(LA) · 한창섭(NY) · 백 순(WA,DC) · 육길원(CH) · 이철광(LA) · 정홍택(PA) · 윤상래(MA) · 김환수(NY) · 임승래(SF) · 장석정(CH) · 이석구(NY) · 김재환(WA) · 정요진(LA)

회칙위원회

위원장= 서중민(공) · PA
위원= 한재은(의) · IL) · 이민연(법) · TX) · 윤상래(수의) · NE) · 김지영(사) · LA) · 신응남(농) · NY) · 함은선(음) · WA)

Seas Gift
A Tasty Gift From The Sea
 Korean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 Use it as a garnishment on your favorite dish!
- Try it as a unique pizza topping!
- Tastes great with your favorite soups!
- Excellent topping on your favorite salads!
- Create your own sushii! Just add rice!

Paramount, CA • Ph: 562.633.7400 • Fax: 562.633.7474 • www.jayone.com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642-2900
 4330 Evergreen Ln.Suite H. Annandale. VA.23036

CPA

www.duo.co.kr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문리대 82) Since 1995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대표이사 김혜정(82, 문리대)

- 스페셜티 인정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규보의 위족, 사비키에서 크게 인정하- No.1 브랜드입니다.
- 배워갈 커뮤니케이션: 전문적이고 귀을 수 있- 커뮤니케이션 소중함? 어떤 만들어 드립니다.
- 듀오만의 핵심 프로그램: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어드립니다.
- 본국 회원검색: 중국 외국의 만남을 권할 경우, 7만 1천명 넘는 회원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듀오 미주지사 213-383-0077 /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뉴욕지사 212-947-2525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정통일식전문 미야비 **MIYABI**
 Japanese Restaurant

미야비
 정성이 다르다면 맛도 다릅니다

더욱 새로워진 미야비
 새롭게 단장 Private Room
 8명 수용룸 2개 * 6명 수용룸 1개 * 20명 수용룸

OPEN HOUR MON-SAT 11:00AM - 02:30PM / 05:00PM - 10:30PM
 SUN 04:00PM - 10:30PM

310.327.5245
 16008 S.Western Ave., #E&F, Gardena, CA 90247

가디나 미야비 일식집
 활어, 한국산 광어 수족관 있음

Lunch Special

회덮밥+우동	\$10.95
입밥+우동	\$12.95
우니정식	\$19.95
(스시, 사시미, 사바, 덴뿌라, 입밥, 살아있는 우니)	
미야비 정식	\$22.95
(스시, 사시미, 사바, 덴뿌라, 입밥, 우니 스프)	

바다내을 즐긴!!!
 살아있는 신선한 해산물....
 광어, 산세우, 전복, 낙지, 멧게,
 해삼, 한국산 야나고....
미야비로 오세요!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Inc.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

내과 전문의

Min Young Cha, M.D.
(의대 76)

Easy Choice·Blue Cross·Blue Shield·Cigna·Aetna 등
각종 H.M.O.보험을 가지신 분께 드리는 희소식!

서울 메디칼 그룹(SMG)의 장점

- 서울 메디칼 그룹은 한인타운의 성실한 주치의(PCP) 선생님들 30명과 전문의 선생님 15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IPA입니다.
- 각종 H.M.O.보험만으로도 각종 피검사 심전도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X-Ray와 초음파 검사 C.T.종합검진을 해드리고 있으며 다른 스페셜한 검사들도 필요시에는 1~3일 내에 해드립니다.
- S.M.G.는 Referral이 90~95%를 넘는 미국 최고의 Referral Rate를 가지고 있습니다.
- 서울 메디칼 그룹의 환자분들은 이미 최고의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Survey 상 만족도가 90%)
- 다른 메디칼 그룹을 서울 메디칼 그룹으로 바꾸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213-480-777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520 S. Virgil Ave. Suite 103, Los Angeles, CA 90020

Tel. 213-480-7770(6가와 버질)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축원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외장

차민영(의대 76)